

제2회  
고향사랑의날 기념

# 지역경제활성화포럼

2024. 9. 5. (목) 10:00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회의실 105호



주최



국회의원 이만희·한병도

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National Association of Mayors in Korea



한국지방자치학회



# 제2회 고향사랑의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 프로그램

시간	내용	
<b>1부</b>		
10:00~11:00	60'	<p><b>사회</b>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p> <p><b>시도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사례 발표</b></p> <p><b>발표</b> 윤영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남운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p>
	60'	<p><b>좌장</b>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p> <p><b>라운드 테이블 토론</b> 박계영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행정과장 양석훈 농민신문사 기자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장 이정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p>
중식(120')		
<b>2부</b>		
<b>개회식</b>		
14:00~14:20	20'	<p><b>개회사</b>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p> <p><b>축사</b>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p>
	20'	<p><b>기조강연 및 발표</b></p> <p><b>2024 인구감소시대, 인구소멸 현주소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방안 제언</b> 송인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괴산군수)</p>
14:20~15:20	40'	<p><b>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b>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p><b>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와 발전방안</b> 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p>
	15'	휴식(15')
<b>종합 토론</b>		
15:35~16:30	55'	<p><b>좌장</b>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p> <p><b>토론</b>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문재철 MBN 미디어랩 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오상철 경상북도 행정지원과장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p>
		* 가나다순



# 제2회 고향사랑의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 ① 목차

### 1부

#### 사례발표

#### 시도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사례 발표

윤영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13
김광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9
조남운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43

#### 종합토론

박계영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행정과장	57
양석훈 농민신문사 기자	63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장	65
이정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67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70

### 2부

#### 개회사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87
----------------------	----

#### 축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89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91
박덕흠 국회의원	93
이만희 국회의원	94
한병도 국회의원	96

#### 기조강연

2024 인구감소시대, 인구소멸 현주소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방안 제언	99
송인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괴산군수)	

#### 발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115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와 발전방안	141
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종합토론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165
문재철 MBN 미디어랩 부장	168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173
오상철 경상북도 행정지원과장	176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	178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	181



제2회  
고향사랑의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1부





사례  
발표

# 충북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윤영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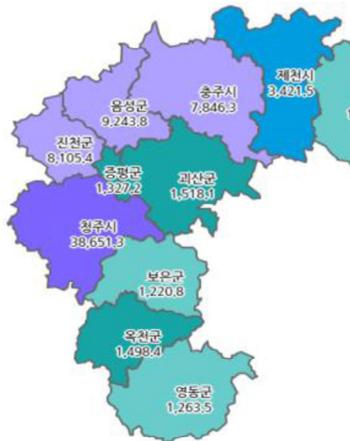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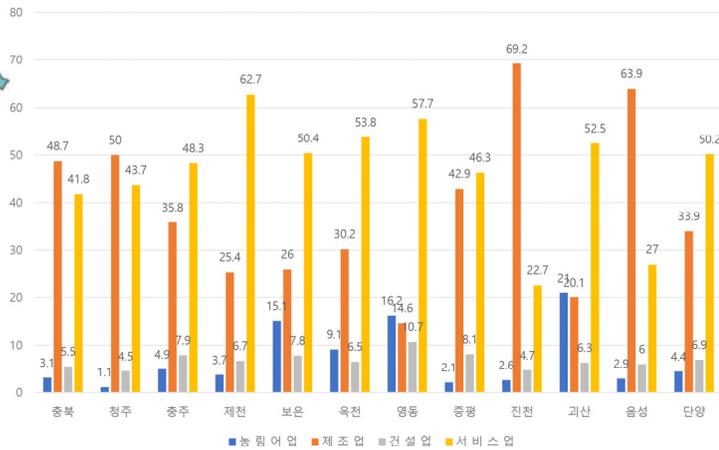


## I. 충북 개요

■ 충북 GRDP (21년 기준, 십억원)



■ 충북 시군별 생산구조 (21년 기준, 십억원)



출처: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2024-08-20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2

## I. 충북 개요

### ■ 충북의 인구 증감을 추이 (단위: 명, %)

시군	2000년	2010년	2015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CAGR(%)
청주시	630,000	720,000	785,000	825,000	835,000	843,000	847,000	850,168	4.37%
충주시	210,000	210,000	211,000	213,000	213,500	214,000	213,000	207,893	-0.14%
제천시	140,000	135,000	135,000	131,000	130,000	129,000	128,000	131,231	-0.92%
음성군	78,000	84,000	88,000	91,500	92,000	91,800	91,800	91,800	2.35%
진천군	65,000	73,000	82,000	86,000	87,000	86,500	86,000	85,876	4.06%
옥천군	60,000	55,000	52,000	50,000	49,500	49,000	49,000	49,232	-2.79%
영동군	55,000	51,000	47,500	46,600	46,400	45,800	45,000	44,617	-2.94%
증평군	30,000	32,000	34,400	35,200	35,400	35,300	35,200	37,349	3.18%
괴산군	50,000	43,000	39,600	39,400	39,200	38,800	38,000	36,756	-4.30%
보은군	44,000	38,000	33,600	32,800	32,600	32,400	32,000	31,310	-4.74%
단양군	40,000	34,000	30,600	29,800	29,600	29,400	29,000	27,699	-5.11%
<b>충북</b>	<b>1,402,000</b>	<b>1,475,000</b>	<b>1,538,700</b>	<b>1,580,300</b>	<b>1,590,200</b>	<b>1,595,000</b>	<b>1,594,000</b>	<b>1,593,931</b>	<b>1.85%</b>
<b>(비중)</b>	<b>3.0%</b>	<b>3.0%</b>	<b>3.1%</b>	<b>3.1%</b>	<b>3.1%</b>	<b>3.1%</b>	<b>3.0%</b>	<b>3.0%</b>	<b>-</b>
전국	47,000,000	49,000,000	50,000,000	51,000,000	51,500,000	52,000,000	52,500,000	53,000,000	1.73%

출처: 통계청(kosis.kr)

2024-08-20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3

## II. 전국 대비 충북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동향

### ■ 전국 대비 충북의 기부건수 및 모금액 ('23년 기준, 단위: 건, 백만원, %)

지역	기부건수 (건)	비율 (%)	모금액 (백만원)	비율 (%)	비고
수도권	77,023	14.6	7,160	11.0	
서울	27,385	5.2	2,481	3.8	
경기	41,009	7.8	3,906	6.0	
인천	8,692	1.6	773	1.2	
비수도권	449,282	10.3	57,906	89.0	
광역시	53,974	2.9	5,295	8.1	
대전	6,441	1.2	628	1.0	
세종	1,587	0.3	134	0.2	
도	395,308	75.1	52,610	80.9	
<b>충북</b>	<b>21,992</b>	<b>7.2</b>	<b>3,112</b>	<b>4.8</b>	인구 3%, 전국 대비 GRDP 3.56%
충남	37,758	12.5	4,317	6.6	
계	526,305	100	65,066	100	

출처: 행정안전부(23.12),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2024-08-20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4

## II. 전국 대비 충북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동향

### ■ 전국 대비 충북의 답례품 (23년 기준)

유형별	가공식품	농축산물/수산물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상품권	비고
건수	2,769건	1,978건	1,097건	555건	223건	
비중	42%	30%	17%	8%	3%	
<b>충북도(비중)</b>	<b>14%</b>	<b>81.5%</b>	<b>3.70%</b>	<b>0.6%</b>		

주: 전국 비중은 2023.10월 기준; 충북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내부 자료에 근거  
출처: 행정안전부(23.12),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 ■ 전국 대비 충북의 답례품 유형별 매출액 및 비중 (23년 기준)

유형별	농축산물	가공식품	지역사랑상품권	수산물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카테고리 없음	계
(예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꿀 등	빵, 닭갈비, 김치, 건강식품 등	-	과매기, 굴비, 전복, 김, 오징어 등	프라이팬, 칼, 이불, 도마 등	숙박권, 체험권, 할인권 등	-	-
건수	51,25억원	34.65억원	18.18억원	8.14억원	4.31억원	0.67억원	0.52억원	117.73억원
비중	43.5%	29.4%	15.4%	6.9%	3.7%	0.6%	0.4%	100%

출처: 행정안전부(23.12),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2024-08-20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5

## II. 전국 대비 충북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동향

### ■ 전국 대비 충북의 답례 가격대별 선택 (23년 기준)

구분	1만 포인트 이하	1만~3만 포인트	3만~5만 포인트	5만 포인트 초과	총계	비고
전국	146,994	342,839	4,766	3,853	498,402	
(비중)	29%	69%	1%	1%	100%	
<b>충북</b>	<b>3,431</b>	<b>15,553</b>	<b>311</b>	<b>216</b>	<b>19,491</b>	
(비중)	<b>18%</b>	<b>80%</b>	<b>2%</b>	<b>1%</b>	<b>100%</b>	
충남	7,969	27,165	380	232	35,756	
(비중)	22%	76%	1%	1%	100%	
대전	117	4,501	100	25	4,743	
(비중)	2%	95%	2%	1%	100%	
세종	556	597	43	16	1,212	
(비중)	46%	49%	4%	1%	100%	

출처: 행정안전부(23.12),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2024-08-20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6

## II. 전국 대비 충북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동향

### ■ 충북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현황 (건, 원)

시군	합계	충북 본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기부건수	100.00%	9.1%	13.6%	13.6%	9.1%	6.5%	8.4%	9.6%	5.2%	7.3%	4.8%	7.3%	5.5%
기부액	100.00%	7.6%	9.7%	9.7%	7.2%	6.4%	9.0%	11.0%	6.7%	12.4%	7.5%	7.1%	5.8%

주: 2023년 12.31일 통계 기준

### ■ 주요 기금사업 소개

광역명	기초명	사업명	사업내용	기금유형
충청북도	본청	의료비후불제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지원	취약계층 본인 및 자녀 대상 치아교정 비용 지원	일반기부
충청북도	영동군	인생첫컷(첫 돌사진) 지원사업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의 돌사진 비용 지원	일반기부
충청북도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일반기부
충청북도	영동군	시니어 놀이터 '키오스크' 체험존 조성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에 대해 교육	일반기부
충청북도	진천군	생거진천 케어팜 공동체텃밭(커뮤니티가든) 운영	커뮤니티가든 부지조성 및 화단구입 등 환경 조성	일반기부
충청북도	진천군	보재이상설 무궁화길 조성	보재이상설기념관 진입로에 무궁화나무 식재	일반기부
충청북도	진천군	꿈더하기 이용 청소년 간식 제공	방학기간 내 꿈더하기 이용 청소년에게 간식 제공	일반기부
충청북도	진천군	청소년 중독예방캠페인 "중독 뺑개기! NEVER LAND"	중독예방 주제의 뮤지컬 공연 및 야외 체험부스 운영	일반기부
충청북도	진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입주민이 단지 특성에 맞게 발굴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	일반기부

출처: 충청북도 내부자료  
2024-08-20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7

## II. 전국 대비 충북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동향

### ■ 소결

- ✓ (기부액) 충북의 경우 '23년 동기 대비 건수 및 금액의 비약적 증가시 시현
  - 과연 자연스런 현상인가? 일시적인 노력의 결과인가? 그렇다면 선순환 모델은 가능?
- ✓ (금액별) 고액 기부는 미미, 10만원 이하가 전체 기부액의 98.7% 수준
  - 고액 기부가 가지는 의미는 그리고 효과는?
- ✓ (지역별) 수도권 외에 특정지역 기부액 집중
  - 수도권 외에 특정지역으로의 기부 집중이 일시적인 노력의 결과인가? 그렇다면 선순환은?
- ✓ (연령별) 30~40대 비중이 64%로 절대적... 성별 차이는 극히 미미
  -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지는 메리트? 결국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이라는...

2024-08-20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8

### III. 충북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기금사업(소개)

- (사례1) 충청도, 의료비후불제 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 사업
  - ✓ (근거법령) 충청도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충청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 (추진사유)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주로 아동)의 치아교정치료 지원 (\*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300만원 + 기금지원 200만원)
  - ✓ (사업개요) 충청도(보조금) → 적십자(교정비 지원) → 치과병원(교정) ← 환자(신청)
  - ✓ (기대효과) 충북 취약계층(아동층) 삶의 만족도 제고로 애항심 고취 등

2024-08-20

출처: 행정안전부(23.12),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9

### III. 충북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기금사업(소개)

- (사례2) 영동군, 시니어 세대 급격한 증가 대비 세대공존(共-ZONE) 여건 제공(사업1) 및 열악한 양육·보육환경 개선으로 인구증가 장려(사업2)
  - ✓ (사업 1) 시니어 놀이터 '키오스크 체험존' 조성(15,000천원): 초고령화 영동 시니어 약 2,000여명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접근성 좋은 체험 장소의 선정(노인복지관, 고령자복지주택 등)
  - ✓ (사업 2-1) 인생 첫 컷(첫 돌사진) 지원(13,000천원) : 관내 영아 약 130명에게 돌사진 촬영비를 지원(1인당 10만원)
    - ➡ 영아 양육 환경 개선 및 가족사랑 분위기 조성
  - ✓ (사업 2-2) 지역아동센터 특성화 프로그램비 지원(44,200천원) : 맞벌이·저소득 아동 약 246명의 방과 후 단순 돌봄에서 프로그램 차별화
    - ➡ 글로벌 문화 체험(해외문화), 해양레포츠·바이올린 강습, 세계자연문화유산 탐방 등 양질 교육으로 보육 환경 개선

2024-08-20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10

## IV.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

### ■ 애로사항

- ✓ **기부자의 주소지 제한** (기부자가 속한 광역, 기초 지자체 기부 불가)
  - 특히 광역도의 경우, 기부자가 속한 광역 지자체는 기부 불가  
모금에 상당한 어려움 지속
- ✓ **전액 세액공제액 10만원에 따른 모금 실적 저조** (상한선인 10만원 기부가 대부분)
- ✓ **지역 간 모금 경쟁 과열 잔존**
  - 언론 매체에서의 단순 실적에 따른 순위 매기기로 지역 간 경쟁 및 갈등 유발
- ✓ **답례품 발굴**
  - 매력적인 답례품은 기부 실행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기 유발 요인이나, 충북도청의 주요 답례품은 1)청풍명월 한우·한돈 2)진천 쌀 3)충주사과 4)영동와인 5)괴산 청결고춧가루 등으로 타 지자체(임실치즈, 횡성한우 등)에 비하면, 답례품을 통한 기부금 유발은 상대적으로 취약

2024-08-20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11

## IV.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

### ■ 애로사항

- ✓ **온라인 방식으로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 난이성 지속**
  - 온라인(고향사랑e음 시스템 회원가입 후 기부 및 답례품 신청)의 한계 고려, 오프라인(기부금\_전국 NH농협은행 방문하여 기탁, 답례품\_고향사랑e음 시스템 회원가입 후 답례품) 프로세스에도 노인층의 애로요인 지속
  -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복잡한 인증 절차 등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부하고자 하나, 답례품 신청을 위해서는 결국 고향사랑e음 시스템 회원가입이 전제

2024-08-20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12

## IV.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 개선(제언)

- ✓ **(제안 1)** 지역 주민 기부 허용
  - 조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이행
- ✓ **(제안 2)** 법인 및 기업 기부 허용
  - 현실적으로 제도 활성화 및 사업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법인(기업) 기부 허용은 불가피
- ✓ **(제안 3)** 전액 세액공제액 상한(10만원) 증액
  - ❖ 일본 사례: '15년부터 세액공제액 2배 증액, 원스톱 서비스 실시 후 기부액 전년대비 4.3배 증가
- ✓ **(제안 4)** 광역시도 모금 주체에서 제외 ⇨ 광역시도의 경우 고향에 개념이 애매함
  - ❖ 상당 수 재경민들에게 있어 고향은 광역지자체(도청)가 아닌 기초지자체(시군)...
  - 광역시도는 모금 주체에서 제외하고, 기초지자체 모금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필요

2024-08-20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13

## IV.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 개선(제언)

- ✓ **(제안 5)** 양적 순위 매기기 지양, 기금 사업 내실화 등 질적 성장 유도 방안 모색
  - 충북도, 거주인구 및 출향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양적인 순위 매기기로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 유발
    - ⇨ 양적인 순위 매기기 지양, 지역특성을 살린 기금사업 내실화 등 질적 성장 유도, '자발적 기부금 증가' → '기금 사업 효과 제고' →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선순환 기대
- ✓ **(제안 6)** 디지털 소외계층 수용 방안 모색
  - **(기부 절차 간소화)** NH농협은행 방문, 오프라인 기부금 신청 시 답례품도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 ⇨ 보다 손쉽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 간소화 등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 **(오프라인 창구 다양화)** 지자체 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 받아 담당자 확인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홈텍스 입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시스템) 개선 제언

2024-08-20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14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답례품도 역시 충북!**

어디서든 꼭 받아주세요!  
맞소이다!  
여기가 진짜 답례품 맛집!

**충청북도 고향사랑기부제**

2024-08-20 충청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동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

**'가격'과 '마음' 모두 사로잡은 최고의 답례품을 소개합니다**

답례품이 뭐예요?  
이 가격에 이 품질이 가능해요?

충청북도의 대표 축산물  
**청풍명월 돼지고기**

정품명월 무항생제 삼겹살 1.5kg  
3만 포인트(10만원 기부금)  
2023년 충청북도 도형 1위 답례품

- 지급액에 의한 선의성분 함양다!
- 한우에서 가장 많은 15kg 배양!
- 돼지가 무더 1등급!

답례품 보기 가기

충청명월 명은, 충주 새끼새끼, 제천 갈곡새끼, 보은 대우가, 옥천 우리말새끼, 충남이 김치, 청풍명월(에어팩), 청풍 버섯새끼, 진천 새끼김치, 괴산 고추가루, 옥성 나무도마, 단양 육가늘장

더 많은 답례품 보기 가기

사례  
발표

# 경상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2024.9.5.(목)

지역사회혁신과 지역경제활성화 포럼

# 경상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신동철

 경남연구원  
Gyeongnam Institute

## 목차

- 1 연구개요
- 2 추진현황
- 3 주요 사례 분석
- 4 경남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 1

## 연구개요

### 배경 및 목적

I. 연구개요

-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 법률 개정을 통해 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 및 지정기부 근거 마련
- 경남의 모금액은 62.5억원으로 전국 전체 모금액의 9.6% 차지
  - 전남, 경북,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4위
  - 도내 18개 시군의 모금액은 2~4억원대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지정기부를 고려한 기금사업 개발, 법률 개정에 따른 홍보 활동 강화 등이 요구
  - 기금사업을 확정한 기부처는 19곳 중 8곳으로 42.1%에 불과(2024. 4월 기준)
- 지난 1년간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제안
  -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사업성과, 시사점, 개선방안 도출
  - 국내외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사업 분석
  - 생활인구 확대를 포함한 경상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안 제안

4

# 2 추진현황

## 01 기부건수 및 금액

II. 추진현황

○ 시도별 기부건수 및 금액

- 전국 : 526,305건, 650억원, 기부건수 당 금액 123,628원
- 경남 : 52,340건, 62.5억원, 기부건수 당 금액 119,381원

\* 기부처별 기부건수와 금액 : 2,754.7건, 3.3억원

구분	전체			기부처별	
	기부건수 (건)	기부금액 (억원)	기부건수당 금액(원)	기부건수 (건)	기부금액 (억원)
전국	526,305	650.7	123,628	2,165.9	2.7
서울특별시	27,385	24.8	90,608	1,053.3	1.0
부산광역시	15,354	12.7	82,958	903.2	0.7
대구광역시	8,808	7.5	84,849	880.8	0.7
인천광역시	8,629	7.7	89,573	784.5	0.7
광주광역시	12,591	15.2	120,411	2,098.5	2.5
대전광역시	6,441	6.3	97,440	1,073.5	1.0
울산광역시	9,193	9.9	107,201	1,532.2	1.6
세종특별자치시	1,587	1.5	91,374	1,587.0	1.5
경기도	41,009	39.1	95,253	1,281.5	1.2
강원도	44,293	52.9	119,535	2,331.2	2.8
충청북도	21,922	31.1	141,939	1,826.8	2.6
충청남도	37,758	43.2	114,330	2,359.9	2.7
전북특별자치도	63,625	84.8	133,294	4,241.7	5.7
전라남도	92,761	143.4	154,544	4,033.1	6.2
경상북도	66,001	90.0	136,345	2,869.6	3.9
경상남도	52,340	62.5	119,381	2,754.7	3.3
제주특별자치도	16,608	18.2	109,788	16,608.0	18.2

자료) 지자체 홈페이지

## 01 기부건수 및 금액

II. 추진현황

### ○ 도내 기부처별 기부건수 및 금액

- 기부건수 : 진주시 3,923건, 밀양시 3,818건, 거창군 3,542건
- 기부금액 : 합천군 476백만원, 거창군 467.8백만원, 밀양시 450백만원
- \* 기부건수 당 금액 : 합천군 169,818.1원

(단위 : 건, 백만원, 원)

구분	기부건수	기부금액	기부건수당 금액
전체	52,340	6,244.9	119,314.1
도 분청	1,069	134.5	125,818.5
창원	3,978	368.1	92,533.9
진주	3,923	326.0	83,099.7
통영	2,625	282.0	107,428.6
사천	2,468	314.0	127,228.5
김해	3,182	423.0	132,935.3
밀양	3,818	450.0	117,862.8
거제	2,378	295.7	124,348.2
양산	2,217	236.0	106,450.2
의령	1,748	232.0	132,723.1
함안	2,613	305.0	116,724.1
창녕	2,155	277.0	128,538.3
고성	2,632	352.0	133,738.6
남해	3,282	369.3	112,522.9
하동	2,852	402.7	141,199.2
산청	2,410	213.8	88,713.7
함양	2,645	320.0	120,983.0
거창	3,542	467.8	132,072.3
합천	2,803	476.0	169,818.1

7

## 01 기부건수 및 금액

II. 추진현황

### ○ 금액대별 기부건수 및 금액

- 기부금액별 기부건수 : 10만원이 41,026건(78.4%)으로 가장 많음
- \* 10만원 미만과 합산 시, 50,843건(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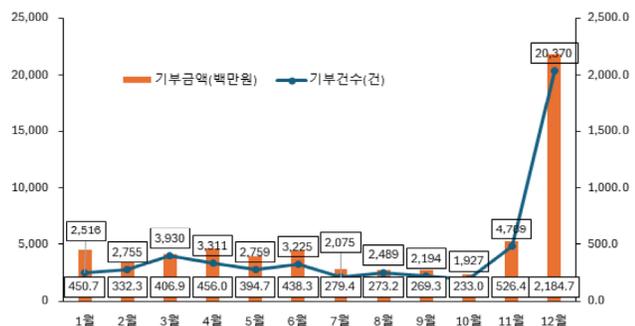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기부건수		기부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전체	52,340	100.0	6,244.8	100.0
10만원 미만	9,814	18.8	94.1	1.5
10만원	41,026	78.4	4,102.6	65.7
10만원 초과~100만원미만	941	1.8	343.2	5.5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35	0.6	584.9	9.4
500만원	224	0.4	1,120.0	17.9

자료) 경남도청 내부자료

### ○ 월별 기부건수 및 금액

- 기부건수의 38.9%, 기부금액의 35.0%가 12월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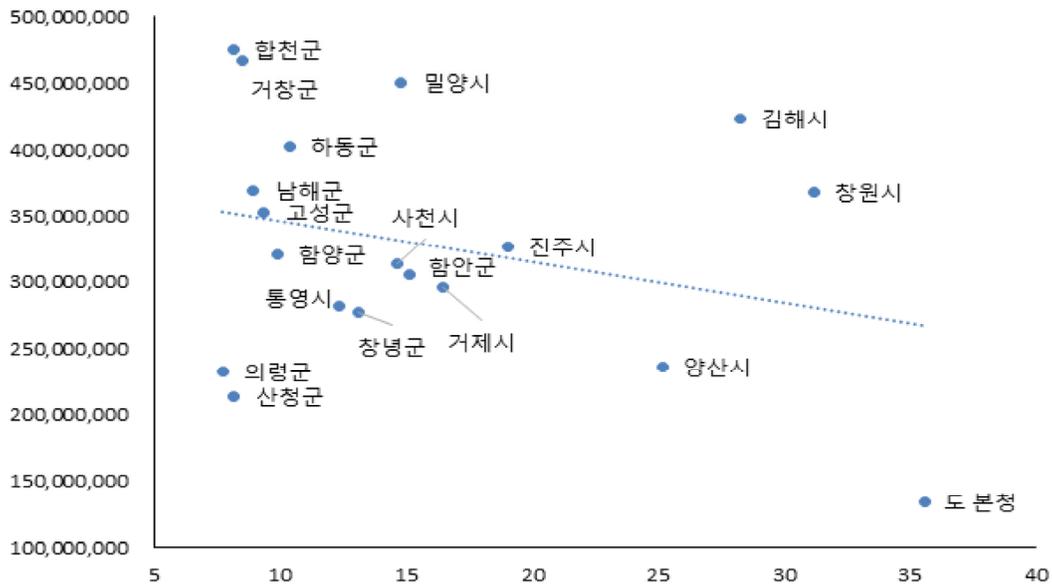


## 01 기부건수 및 금액

II. 추진현황

### ○ 기부금액과 재정자립도

- 기부금액과 재정자립도 : 부(-)의 관계가 나타남



9

## 02 담당 부서

II. 추진현황

### ○ 광역지자체는 재정, 세정, 공동체 등 행정 분야 관련 부서에서 주로 담당

- 주로 팀 형태(팀장 1명, 담당자 2명)로 담당
- 경남과 같이 세정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은 서울, 울산, 강원, 제주

### ○ 부서명에 고향, 고향사랑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유추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 곳

### ○ 경남의 시군은 대부분이 행정·재정 관련 부서에서 담당

- 주로 팀 형태(팀장 1명, 담당자(전담) 1명)로 담당

### ○ 고향사랑기부제를 유추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시군은 경남의 시군은 4곳

- 창원시, 김해시, 고성군, 합천군

10

### 03 답례품

II. 추진현황

○ 경남의 답례품 주문건수는 43,624건, 주문금액은 14억원

- 유형별로 보면, 농축산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농축산물 : 주문건수 17,062건, 주문금액 약 6억원, 경남 전체 대비 약 40%

\* 지역상품권 : 주문건수는 12,279건, 주문금액 약 4억원

(단위 : 건, 원, %)

구분	주문건수		주문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합계	43,624	100.0	1,454,140,420	100.0
농축산물	17,062	39.1	602,783,810	41.5
수산물	1,648	3.8	57,726,600	4.0
가공식품	10,476	24.0	320,842,500	22.1
생활용품	2,060	4.7	67,159,500	4.6
관광서비스	99	0.2	5,695,010	0.4
지역상품권	12,279	28.1	399,933,000	27.5

11

### 03 답례품

II. 추진현황

○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식품의 주문이 많음

○ 모든 기부처의 답례품 상위 5위안에 지역상품권 위치

○ 진주시의 하모인형 선물세트, 김해시의 명인명도, 사천시의 배누리교육농장 배 등도 순위권에 포함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도	경남사랑상품권	함! 심비우세트	토요애 한우	의령축협 한돈	다은떡방앗간 국산참기름
창원	창원사랑상품권	쌀	그린&골드키위 (친환경)	창원단감말랭이	배추김치
진주	진주사랑상품권 (모바일)	진주드림 참햇쌀 영호진미 10kg	하모인형 선물세트	알부자집 고향사랑계란	프리미엄 2종, 3종 세트 (감식초 등)
통영	통영사랑상품권	건말치세트	바다장어선물세트	천연 조미료	자연산 돌미역
사천	사천사랑상품권	죽방말치세트	리얼말기청	곤명농협 쌀	[배누리교육농장] 배
김해	김해사랑상품권	명인명도	포크밸리한돈	봉하쌀	기아쌀
밀양	밀양사랑상품권	한돈세트	밀양사랑상품권	한우세트	참기름들기름세트
거제	거제사랑상품권	한돈세트	멸치	한우세트(구이용)	거제 지역 전통주(유형)
양산	양산사랑카드 포인트	양기쁨 한우선물세트1kg	배내골사과즙	인덕선 만능요리워 32cm	퀵센스 인덕선 스탠드백미
의령	의령사랑상품권	토요애 한우	의령축협 한돈세트	동부농협 한돈세트	곡간매쌀 백미 4kg
함안	함안사랑상품권	이시랑 보리 한우	국산 참기름	농심사랑(쌀)	전통주
창녕	창녕사랑상품권 (지류)	창녕한우 불고기세트	연안금영호진미(상등급/10kg)	창녕한우 국거리세트	창녕한우 구이세트
고성	고성사랑상품권	한돈 삼겹살 선물세트 800g	쌀 선물세트 1호	무항한우 국거리 불고기세트	호박고구마 5kg
남해	남해해매화천 (모바일)	해커가 살아주는 지속물문어 1kg	해두름 흑마늘진액 프리미엄	보물선 남해한우정육세트	은빛말치세트 남해건어물침방
하동	하동사랑상품권	경상남도 하동군 영호진미10kg	하동배 7.5kg	국내산 자연산 재첩산국	하동축산농협 한돈
산청	산청사랑상품권	산엔청 소핑물 마일리지	청농생강왕액 5종 선물세트	천연꿀 선물세트	명이나물 청이찌
함양	혹돈 선물세트	지리산축돼지 선물세트	지리산한양황토쌀	황금사과	함양사랑상품권
거창	거창사랑상품권	사과	[번들사과농원] 고제사과 4.5kg	꼬시꼬시 참기름/들기름 선물세트	기창해태이10kg (23년 햅쌀)
합천	합천사랑상품권	황토한우	심바우포크	정육세트	영호진미

자료) 경남도청 내부자료

## 04 기금사업

II. 추진현황

- 기금사업을 확정된 곳은 창원시를 비롯한 8곳이며 30개 사업이 발굴(2024. 4월)
- 취약계층 지원, 안전 인프라 조성 등 소비형 기금사업이 주로 발굴
  - 취약계층 지원 17개, 안전 인프라 조성 5개, 제도 및 지역 홍보 4개, 교육 인재양성 3개, 자연환경 보전 1개

구분	사업명
창원	① 너의 소원을 말해봐(만12세 미만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지원) ② 스마트 플러그 설치(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③ 경로당 선봉기 지원 ④ 창원시 밀원수림 특화단지 조성(꿀벌 살리기 프로젝트)
통영	①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②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지원 ③ 태양열 우편함 안심 골목길 조성
사천	① 사서 로봇 및 고향사랑코너 조성 ② 취약계층 교육지원(배워DREAM) ③ 공중화장실 어린이 편의시설 개선(아동용 간이발판 설치) ④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바닥 보행신호등 설치)
김해	① 기부자와 함께 만드는 안심 통학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② 장애인 휴대용 경사로 지원 "턱을 넘어서" ③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드림라이어", 멈추지 않는 하모니(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지원) ④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나눔
밀양	① 밀양시 고향알기 프로그램 ② 고향사랑조형물 설치 ③ 학교 밖 청소년 동기강화 프로젝트 ④ 영유아 유아용품 대여 ⑤ 고향사랑 연극 프리미엄 공연
거제	① 경로당 제습기 지원
양산	① 거동 불편 취약계층을 위한 홈케어 서비스 ②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③ 확대피해아동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④ 행복한 첫 시작! 부모 교육 실시 ⑤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⑥ 학교 밖 청소년 공방 프로그램
거창	①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 ② 경로당 좌식 생활 불편 개선사업 ③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 등 지원

13

## 05 기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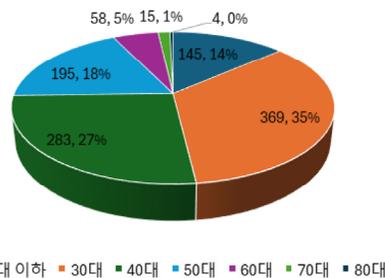
II. 추진현황

- 주소지(도 분청 기부건수 1,069건) : 부산 234건(21.9%), 서울 223건(20.9%), 경기 209건(19.5%)으로 전체 62.3%
- 경상남도 출향 인구는 부산, 경기, 서울으로 많음

(단위 : 건, %)

지역	기부건수	비율	지역	기부건수	비율
합계	1,069	100.0	경기	209	19.5
서울	223	20.9	강원	16	1.5
부산	234	21.9	충북	20	1.9
대구	41	3.8	충남	21	2.0
인천	27	2.5	전북	10	0.9
광주	6	0.6	전남	17	1.6
대전	23	2.2	경북	42	3.9
울산	111	10.4	제주	52	4.8
세종	17	1.6			

- 연령 : 30대 369건, 40대 283건,  
50대 195건, 20대 이하 145건



14

## 06 시사점

II. 추진현황

- 시군 간 기부금 모금 차이 심화
  - 적은 기부금으로 인한 기금사업의 미시행 또는 차이는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가능성
- 업무 담당 직원 부족 및 부서명을 통한 안내 기능 미흡
- 지역상품권 중심의 답례품
- 취약계층, 공동체 지원 중심의 기금사업 발굴
  -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은 현재 없는 실정으로 다양한 기금사업 발굴이 필요함

15

### 3

## 주요 사례 분석

## 01 답례품 개발

III. 주요 사례 분석

## 1) 농산물 정기 배송 서비스

- 이바라키현 쌀 4종 정기배송 :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茨城県 境町)는 이바라키현의 대표적인 쌀 품종 8개 중 코시히카리를 포함한 4개 품종을 5kg씩 총 20kg로 구성하여 3개월간 매월 정기적으로 배송
- 채소 및 과일 정기배송 : ● 고치현 토사시(高知県 土佐市)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채소 및 과일을 계절별(연 4회) 배송

## 2) 지역 연고 기업 프로스포츠팀과 연계한 체험형 답례품

- JAL 오사카국제공항 시설견학 투어 : 오사카부 토요나카시(大阪府 豊中市), 이케다시(池田市), 효고현 이타미시(兵庫県 伊丹市)가 공동으로 개발
- 프로배구단 서포트 체험 프로그램 : 오사카부 미노오시(大阪府 箕面市)는 남자프로배구 지역 연고팀인 산토리 썬 버즈와 연계하여 서포트 체험 프로그램을 답례품으로 개발

17

## 01 답례품 개발

III. 주요 사례 분석

## 3) 지역의 고유 자원 활용 및 소통을 통한 답례품

- 다랑논 연간 주인제도 : 니가타현 오지야시(新潟県 小千谷市)는 농촌경관자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다랑논을 지키고, 다랑논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다랑논 주인제도를 답례품으로 개발
-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답례품 개발 : 홋카이도 아시베쓰시(北海道 芦別市)는 마을주민, 학생, 단체 및 기업, 공무원등 지역 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답례품을 개발
  - 지역 내 고등학생이 직접 디자인한 포장재 활용, 답례품 발굴에 지역 주민이 참여한다는 스토리텔링 완성

18

## 01 답례품 개발

III. 주요 사례 분석

## 4)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답례품

- 배려답례품의 등장과 확산 : 기부와 이를 통한 관계형성,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 대응을 이념으로 기부에 따른 답례품을 나 자신 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하거나,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도록 구상한 답례품을 의미함

-지원형 : 장애인 지원 시설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개발

-기증형 :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부자가 선물하는 답례품

-협찬형 : NPO나 장애인 지원 시설, 커뮤니티 활동 단체, 직업훈련, 학교 등에 협찬 금 형태로 지원하는 답례품

-참가형 :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제설작업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도와주는 체험 이벤트 등을 답례품으로 개발

- 2017년 7월 군마현 마에바시시(群馬県 前橋市)에서 시작된 배려 답례품은 2024년 4월 현재 130개 기초지자체로 실시 중임

-지역응원이라는 요소가 보다 강화된 답례품

19

## 02 기금사업 발굴

III. 주요 사례 분석

-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서비스 지원사업(경북 경산시)

- 지정 운영 시간에 따른 시간당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비 지원

- 보호종료 아동 사회정착 자립지원금 지급(전남 목포시)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비 지원(연간 100만 원)

-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및 퇴원 환자 통합돌봄서비스(전남 담양군)

- 관내 어르신들의 안전한 병원 방문과 퇴원 후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사업 과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시행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출동! 덕이대장' 사업 운영(경북 영덕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70세 이상 노인가구 등 경제적 부담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민원 해결

20

## 03 시사점

III. 주요 사례 분석

- 지역 내 자원 활용 및 차별화를 통한 답례품 개발
  -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정기배송, 지역 주민 참여 등 차별화 전략
- 답례품 개발 영역의 확장
  - 지역 내 기업·프로스포츠팀 연계 체험 프로그램과 경관자원 보존 등으로 확대
- 배려 답례품의 등장·확산 및 지자체 참여 확대
  - 취약계층 등 지원을 기금사업 뿐 아니라 답례품으로도 접근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의식이 실체화
-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
  - 의료·아동·간호·어르신 돌봄 등

21

# 4

## 경남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안

## 01 추진과제 및 대응방안

Ⅳ. 경남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안

### 추진과제

- 시군의 기부금 모금액 차이 심화
- 답례품의 지역상품권 비중 심화
- 시군의 기금사업 발굴 지연
- 담당 직원 부족

### 대응 방안

- 경남 고향사랑기부제 지원 조직 운영
- 도내 기업, 관공서, 스포츠팀, 연구기관과 연계한 체험형 답례품 개발 등 답례품의 다양화 및 차별화
- 관계부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금사업 발굴
  - 개인 또는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이 바람직

23

## 02 발전방안

Ⅳ. 경남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안

### 답례품 개발

- (단기) 지역 홍보 효과 및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지역특산물 중심의 매력적인 답례품, 타 지역에서 제공하지 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 (중장기) ①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답례품 발굴, ②지역 주민 참가 등 개발과정에서 기부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답례품, ③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농업 조직이 생산한 배려 답례품

### 기금사업 발굴 및 추진

- (단기)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 사업 중심으로 발굴 및 추진
- (중장기) 지역주민 복리증진 사업과 더불어 지역 내 핵심 추진사업과의 결합을 통해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 제도 홍보를 통한 지역응원·생활인구 확대

- (단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출향민, 향우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답례품 선정 현황 및 기금사업 내용 등의 제도 홍보, 기부자예의 기금사업 추진 상황 안내, 수혜자의 감사 인사 등 전달을 통한 지역응원 의식 강화 및 재기부 유도
- (중장기) 기부자의 지역 방문 및 생활인구로의 정착 유도

24

감사합니다.



사례  
발표

# 대구시 맞춤형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과 추진방안

김광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대구시 맞춤형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과 추진방안

2024.9.5

김 광 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대구정책연구원  
DAEGU POLICY INSTITUTE

대구시 맞춤형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과 추진방안

## 차례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대구시 고향사랑기금 사업 목표 및 전략
3.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4.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체계 구상



3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① 중장기 관점의 제도 추진 방향성 설정

- 기부 대상을 출신지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거주지 이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지자체 모금 전략과 노력에 따라 실적 차이 예상
- 기부자의 선택지가 넓은 상황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일관성 있는 제도 추진 방향 설정에 따라 모금 및 사업 성과에 매우 중요

### ② 기부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지자체 전략 수립 필요

-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여 특정 지역에 기꺼이 기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수단 두 가지는 기부금(기금) 사업과 답례품 전략
- 기금모금을 위한 홍보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제도 성공에 더 중요한 요소가 기부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

### ③ 기금사업 추진 효율화 방안 제안

-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제안 및 선정 등 사업추진에 적합한 실행방안 제안
- 중간지원조직 등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 기금사업 개발의 기본 방향

### ① 기부자 관점과 수요자(주민) 관점의 조화

- 기부자의 의사와 지자체의 욕구(사업구상)가 서로 일치하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부자의 입장에서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기부금 재원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기부금을 납부하려는 의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② 단기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기금 용도 반영

-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법률 제11조 제2항)
- 기금사업은 지역 공동체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기부금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문제 해결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설계

### ③ 대구시 관계인구 재생산과 지역문제해결형 사업에 집중

- 지역에 애정을 갖고 현안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 지역의 활력과 주민복지 증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등 복합적 성격의 사업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개발 필요

## 기금사업 목표와 추진 전략

### ①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통한 대구시 관계인구 창출
- 3대 추진전략 : 민-민 협력형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지원  
지역 자원의 잠재력 재발견 및 육성 사업 개발  
단기-중·장기 사업 간 균형과 연계 창출



7

## 기금사업 구성 체계 및 유형 구분

사업 분야 및 대상	지역 공동체 활성화		로컬마케팅 콘텐츠 고도화	
	사업 대상 : 사람(주민)		사업 대상 : 지역(도시)	
	취약계층 복지 지원	청소년·청년 활동 지원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관광활성화	지역 생태환경 보전
민-민 협력형 지역 문제 발굴 및 해결 지원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사업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해외 연수 지원 사업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사업 -대구형 '베이비 박스' 사업	-고향사랑 도서관 운영 -청년 U턴 지원 사업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디지털 예술교육' 체험 프로젝트	-열섬현상 완화 도시 숲 조성 사업
지역 자원의 잠재력 재발견 및 육성 사업 개발	-문화소외계층과 어린이 대상 간송미술관 관람 지원	-스타트업 오피스 지원 사업	-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예술수업 운영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구 정원형 가로수길 조성 -대구수목원 국화 전시회 확대 지원
단기-중장기 사업 간 균형과 연계 창출	-어르신 돌봄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및 육성	-지역문제해결형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클라우드 펀딩형 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달성 토성복원(보존) 사업 -생태도시 내구 조성 사업 -문화형 특화가로 조성

8



## 취약계층 복지 지원

### ①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사업

- 기금지원 대상 :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가구
-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가구에 무상으로 식료품을 지원
- 특히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 실시
- (사례) 일본 도교도 분교구, 생활빈곤 가구에 푸드뱅크 활용 식품 가정배송 실시

### ②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해외 연수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해외 연수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중 일부를 선발
- 방학 기간 동안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기금으로 필요경비 지원
- (사례)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미래인재 육성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 실시

### ③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사업

-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퇴소 대상자에게 자립 준비금 5백만 원을 지급
- 자동차 운전면허 등 자립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 취약계층 복지 지원

### ① 대구형 베이비 박스 사업

- 기금지원 대상 : 신생아를 키울 수 없는 산모와 공공 복지시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안전한 곳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공공형 베이비 박스(Baby Box 혹은 Baby Hatch) 운영

### ② 문화소외계층과 어린이 대상 미술관 관람 지원

- 사업 대상 : 문화소외계층 및 어린이 대상(단체 및 개인)
- 미술관 관람료 지원 및 관람 가이드 제공
- 단체 대상으로는 분기별로 관람 신청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수혜자 선정

### ③ 어르신돌봄 재택의료 전문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 사업대상 :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65세 이상 시니어 중심의 사회적 기업
- 퇴직한 의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나 혹은 요양보호사와 연계하여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

11

## 청소년·청년 활동 지원

### ① 고향사랑 도서관 운영

- 기금지원 대상 : 대구시 7개 시립 도서관 및 이용자
- 사업내용 : 대구시의 7개 시립 도서관에 고향사랑기금으로 구입한 도서를 지원하여 '고향사랑 도서 코너' 설치·운영

### ② 청년 U턴 지원 사업

- 기금지원 대상 : 대구시 출생자 중 다시 대구로 U턴해서 돌아온 40세 미만 청년
- 사업내용 : 대구 소재 기업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일부 지원
- (사례) 일본 토야마현 다테야마쵸, 고교나 대학 졸업 후 청년들의 U턴을 촉진하기 위해 학자금 상환 응원 보조금 제도 운영

### ③ 스타트업 오피스 지원 사업

- 기금지원 대상 : 스타트업 사업에 지원한 40세 미만 청년
- 사업내용 : 창업자에게 발표회 개최 지원, 서비스 개발 비용, 광고·홍보비 지원

12

## 청소년·청년 활동 지원

### 지역문제해결형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 지역문제 해결형 로컬 크리에이터 팀 선발 및 재정 지원
- 지역의 자원을 연계·활용하거나, 지역 내 문제를 창업의 기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창업모델 발굴 및 지원 프로젝트
- (관련 사례)서울시 넥스트로컬(Next Local) : 청년창업가의 지역연계형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13

##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관광 활성화

### 시립예술단과 함께 하는 예술수업 운영

- 사업 대상 : 지역 문화예술 분야 동아리 회원 및 관심청소년
- 학교, 기업, 기관 등 문화예술 동아리 대상 1일 클래스 운영
- 예술인 장래희망 청소년 대상 1인 전담 클래스 운영

###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 기금 지원 대상(사업주체) : 대구시 및 사업참여 민간조직
- 동성로를 버스킹 등 젊은층의 자유로운 야외활동 및 행사/이벤트 공간으로 개선해 대구 대표 젊음의 공간으로 조성
- 버스킹 등 청년 야외활동공간, 첨단가로시설물, 외부방문객 편의시설 등 설치

### 예비 예술인 활동 지원

- 11개 예술 분야 신진예술인(예술인 미등록자)과 예술활동 증명 신청준비 예비예술인
- 크라우드 펀딩형 예비예술인 데뷔 지원 및 활동 지원

14

##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관광 활성화

### ① 문화형 특화가로 육성

- 기금지원 대상 : 대구시 부서, 해당 특화가로 활성화 추진 단체  
- 특화가로 활성화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 보행자 공간의 안전 확보, 보행의 연결성과 연속성, 장소적 매력, 지속가능성 등 방문객 보행 환경의 개선을 통해 테마형 특화가로의 활성화
- 특화가로에 지역 예술인의 예술조각 작품 설치 지원

15

## 지역 생태환경 보전

### ① 열섬현상 완화 도시 숲 조성 사업

- 기금지원 대상 : 대구시, 도시 숲 조성 사업 수행 민간단체
- 사업내용 : 가로수 식재 및 도시 숲 조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
- 주택지 생활권 내의 빈공터에 대한 녹화사업 실시, 시민 생활정원 컨테스트 개최

### ② 문화재 제자리 찾아주기 사업

- 기금지원 대상 : 달성 복원·보존, 경상감영 정문(관풍루) 원래 자리로 옮기기 등
- 사업내용 : 달성공원 및 주변 복원·보존 사업  
달성공원에 위치한 관풍루를 경상감영의 정문 위치로 복원하는 사업

### ③ 생태도시 조성 사업(달성습지·안심습지 생태 보존)

- 기금지원 대상 : 달성습지·안심습지 관리 시설 및 보호단체
- 사업내용 : 신천·달성습지·안심습지 등의 관리·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수질개선 및 습지생태계 보존 추진

16

## 지역 생태환경 보전

### ① 대구수목원 국화전시회 사업 지원

- 기금지원 대상 : 대구시 수목원관리사무소
- 사업내용 : 수목원의 묘목 및 초화류 양묘장 운영과 연계한 국화꽃축제 개최 지원  
양묘생산 및 계절꽃 전시회 개최 지원  
친환경 초화류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지원 등

### ② 대구 정원형 가로수길 조성

- 기금지원 대상 : 대구시 소관 부서
- 사업내용 : 정원형 가로수길 조성
- 시민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도심 내 가로수길과 정원 조성
- 도로와 보행로 사이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고 의자 등 간이 휴게시설 설치

17



##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체계 구상

18

## 제안형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체계

- 주민이 사업 제안, 기부금(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자원 조달
-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채택된 경우에 그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 추진성과는 제3의 평가기관이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를 지자체에 보고
- 대구시는 사업 추진 성과를 기부자에게 단계별, 최종적으로 알림



19

## 사업자 제안형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체계

- 크라우드펀딩형 기금 사업 방식과 유사
- 사업자가 지역사회에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지자체에 제안
- 사업의 목적과 추진과정, 소요자원 규모, 성과목표, 성과보상금 등 비교적 명확하게 설계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추진



20

## 민간보조사업과 고향사랑기금 자원 연계

- 민간보조사업 -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보조금 등 재정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업
- 민간의 사업이나 활동을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사업화 추진(사업자 제안형)

### ▽ 대구시 2023년 민간경상보조 사업 예시

번호	사업명	추진 단체 및 기관
1	독립운동 현창사업	광복회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대구대학교
3	중증중복발달장애인 돌봄센터 운영	대구대학교
4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대구지체장애인협회
5	장애인 고충처리상담사업	(사)대구장애인재활협회
6	척수장애인 발굴과 사회적 향상을 위한 해피투게더 사업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협회
7	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
8	대구포크페스티벌 개최	(사)대구포크페스티벌
9	국채보상운동 세계화 추진 사업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10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사)대구불교총연합회
11	세계문화산업포럼 운영	(사)한국문화산업포럼
12	뮤지컬스타 발굴 및 육성 지원	(사)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13	경상감영 풍속 재연	대구광역시관광협회
14	시민참여 녹화운동 전개	(사)푸른대구가꾸기 시민모임

21

감사합니다





사례  
발표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 지표 연구

조남운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차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성과에 대한 논란

고향사랑기부제 대안  
성과지표

결론

# 고향사랑기부제 성과에 대한 논란



## 광역자치단체 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2023)

- 특징1: 모금: 수도권/도시 → 도 지역
  - 정책 의도 달성
- 특징2: 모금규모의 지역편차 높음
  - 지역규모 등 다양한 요인 결합

(단위: 백만 원, 건, %)

지역	지역구분	모금액	비율	모금 건수	비율	받은기부금	보낸기부금	순모금액
경기도	수도권/ 도시지역	3,906	6.00	41,007	7.79	3,906	13,585	-9,679
광주광역시		1,516	2.33	12,589	2.39	1,516	4,979	-3,463
대구광역시		747	1.15	8,808	1.67	747	3,264	-2,516
대전광역시		628	0.96	6,437	1.22	628	1,734	-1,107
부산광역시		1,274	1.96	15,349	2.92	1,274	2,953	-1,680
서울특별시		2,480	3.81	27,371	5.20	2,480	13,616	-11,136
세종특별자치시		145	0.22	1,587	0.30	145	899	-754
울산광역시		985	1.51	9,191	1.75	985	1,416	-431
인천광역시	773	1.19	8,629	1.64	773	2,089	-1,316	
강원특별자치도	도 지역	5,294	8.14	44,292	8.42	5,294	1,767	3,528
경상남도		6,248	9.60	52,340	9.95	6,248	3,810	2,438
경상북도		8,999	13.83	65,999	12.54	8,999	2,915	6,084
전라남도		14,336	22.03	92,761	17.63	14,336	3,915	10,420
전북특별자치도		8,480	13.03	63,617	12.09	8,480	3,748	4,732
제주특별자치도		1,823	2.80	16,608	3.16	1,823	481	1,343
충청남도		4,317	6.63	37,756	7.17	4,317	2,150	2,167
충청북도		3,112	4.78	21,922	4.17	3,112	1,742	1,369
총합		65,063	100	526,263	100	65,063	65,063	0



#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집계 문제

- 국토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발표 (2024.4)
  - 광역자치단체 단위 기부액 총합 비교 결과에 기반한 일부 지역 비판 제기
- 지역별 차이를 감안한 성과지표 제시 필요성 존재



## 뉴제주일보

### 제주, 고향사랑기부 건수·모금액 道 지역 최하위

2024년 04월 17일 07면 (8면)

지난해 제주지역 고향사랑기부 건수와 모금액이 전국 8개 道(道) 지역 중에서 가장 저조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고향사랑기부 건수는 1만6608건(3.2%)로 8개 道(道) 중에서 가장 적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고향사랑기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9만2761건), 경북(6만6001건), 전북(6만3625건) 순이었다.

반면 고향사랑기부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1587건), 대전(6441건), 인천(8629건) 등으로, 광역·특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고향사랑기부 건수가 적었다.

지난해 제주지역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18억2300만원(2.8%)으로, 역시 8개 道(道) 가운데 가장 적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43억3600만원), 경북(89억9900만원), 전북(84억8100만원) 순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 한해 지역 주민도 자신의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기부 주제를 변경하고, 법인 또는 단체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기부 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	건수	금액
충북	2만1922건(4.2%)	31억1200만원(4.8%)
충남	3만7758건(7.2%)	43억1700만원(6.6%)
전북	6만3625건(12.1%)	84억8100만원(13.0%)
전남	9만2761건(17.6%)	143억3600만원(22.0%)
경북	6만6001건(12.5%)	89억9900만원(13.8%)
경북	5만2340건(9.9%)	62억4000만원(9.6%)
제주	1만6608건(3.2%)	18억2300만원(2.8%)
강원	4만4293건(8.4%)	52억9600만원(8.1%)

다. 아울러 연간 500만원 한도인 기부금액 제한을 완화하고 하한액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sejullo.net (13.5-17.8cm)

# 연구 개요

- 지역별 성과 집계시 나타날 수 있는 과대/과소평가 요인 검토
- 과대/과소평가 요인을 배제한 지역별 성과 집계 방안 도출
-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지표 제안



## 대안 성과지표 검토



### 단순합산 문제1: 동일지역내 모금 중복계산

- 단순합산시 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부 단위사이의 모금액이 중복 합산되면서 지역 모금액이 과대평가됨
- 예: 4인가족 (A,B,C,D)의 각 월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 만일 A가 B에게 50만원을 주고, C가 D에게 30만원을 주었다고 가정할 때, 단순합산시 가구소득은  $400+50+30 = 480$ 만원으로 산정됨
  - 하지만 가구소득은 가족내 현금 이전 내용과 무관하게 총 4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와 동일하게 어떤 광역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얼마 받았는가를 산정하고자 한다면 동일 지역사이 기부금은 배제하고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 동일 광역지역 내/외 모금 통계

(단위: 건, %, 백만 원)

지역	지역 구분	모금단위 수	모금 건수			모금액		
			지역 외	지역 내	지역내 비율	지역 외	지역 내	지역내 비율
서울특별시	수도권/ 도시 지역	26	13,524	13,847	50.6%	1,225	1,255	50.6%
경기도		32	20,399	20,608	50.3%	1,963	1,943	49.8%
부산광역시		17	9,415	5,934	38.7%	843	430	33.8%
대구광역시		10	5,807	3,001	34.1%	555	192	25.7%
인천광역시		11	5,827	2,802	32.5%	541	232	30.0%
울산광역시		6	6,256	2,935	31.9%	628	357	36.3%
광주광역시		6	9,132	3,457	27.5%	1,049	467	30.8%
대전광역시		6	5,071	1,366	21.2%	468	160	25.4%
세종특별자치시		1	1,587	-	0.0%	145	0	0.0%
경상남도		19	30,108	22,232	42.5%	4,022	2,226	35.6%
전북특별자치도		15	43,463	20,154	31.7%	5,665	2,815	33.2%
충청남도	16	28,685	9,071	24.0%	3,331	985	22.8%	
경상북도	23	50,680	15,319	23.2%	7,385	1,613	17.9%	
전라남도	23	72,832	19,929	21.5%	11,526	2,809	19.6%	
충청북도	12	17,527	4,395	20.0%	2,375	736	23.7%	
강원특별자치도	19	35,789	8,503	19.2%	4,193	1,101	20.8%	
제주특별자치도	1	16,608	-	0.0%	1,823	0	0.0%	
총합 (전체)		243	372,710	153,553	29.2%	47,737	17,321	26.6%
총합 (도 지역)		128	295,692	99,603	25.2%	40,320	12,285	23.4%

출처: 행정안전부 원시자료



## 문제2: 지역의 규모 효과를 고려 하지 않음

- 광역자치단체의 크기 편차가 큼
  -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5개 광역 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2~20배 수준임
  - 경제규모(GRDP)의 경우는 2~26배 수준임
- 규모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큰 지역의 모금(기부) 성과는 과대평가, 작은 지역의 모금(기부)성과는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큰 지역일수록 타 지역에 출신(연고)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외 모금 성과 및 지역 규모 지표

(단위: 건, 백만 원, 10억 원, %, 만 명)

지역	지역 구분	지역 외 모금건수	지역 외 모금액	경제규모 (10억 원)	제주 대비 경제규모	인구수 (만 명)	제주 대비 인구수
경기도	수도권/ 도시	20,399	1,963	546,816	2,598%	1,363	2,019%
서울특별시		13,524	1,225	485,748	2,308%	939	1,390%
인천광역시		5,827	541	104,497	496%	300	444%
부산광역시		9,415	843	104,297	496%	329	488%
울산광역시		6,256	628	86,255	410%	110	163%
대구광역시		5,807	555	63,189	300%	237	352%
대전광역시		5,071	468	49,566	235%	144	214%
광주광역시		9,132	1,049	45,220	215%	142	210%
세종특별자치시		1,587	145	14,497	69%	39	57%
충청남도		도지역	28,685	3,331	128,488	610%	213
경상남도	30,108		4,022	120,060	570%	325	481%
경상북도	50,680		7,385	115,341	548%	255	378%
전라남도	72,832		11,526	90,946	432%	180	267%
충청북도	17,527		2,375	79,424	377%	159	236%
전북특별자치도	43,463		5,665	57,793	275%	175	260%
강원특별자치도	35,789		4,193	52,531	250%	153	226%
제주특별자치도	16,608		1,823	21,048	100%	6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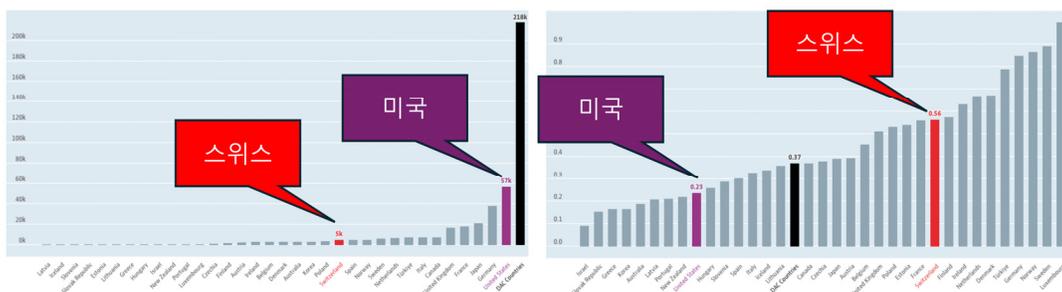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원시자료, KOSIS. 경제규모(GDP)는 2022년 기준, 인구수는 2023년 기준임



## 국가간 기부 성과 비교 사례 (공적개발원조)

총 ODA: 미국 > 스위스

GNI 대비 ODA비율: 스위스 > 미국



총 기부액은 미국이 높지만 경제규모 대비 기부비율은 스위스가 높음



## 대안 성과 지표 산식1 (지역내 기부 제외)

$$\hat{D}_i := \frac{M_i}{GRDP_i} \times 100(\%)$$

$\hat{D}_i$  : 지역  $i$ 의 GRDP 대비 모금액 비율 (%)

$M_i$  : 지역  $i$ 가 외부 지역으로부터 모금 받은 총 금액

$GRDP_i$  : 지역  $i$ 의 지역 총생산



## 대안 성과 지표 산식2 (경제규모 대비 모금액 비율)

$$\hat{C}_i := C_i \times GRDP_i \times M, \quad M := \frac{\sum_j^N C_j}{\sum_j^N C_j \times GRDP_j}$$

$\hat{C}_i$  : 지역  $i$ 의 GRDP 가중 모금 건수

$C_i$  : 지역  $i$ 가 외부 지역으로부터 모금 받은 총 건수

$GRDP_i$  : 지역  $i$ 의 지역 총생산

$M$  : 보정 계수



## 대안 지표 적용 결과

(단위: 10억 원, 건, 백만 원, %)

지역	지역구분	GRDP (10억원)	모금건수 (타지역)	모금액 (타지역)	모금건수 (GRDP가중)		모금액 (GRDP 비율)		기부액 (GRDP 비율)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전라남도	도지역	90,946	72,832	11,526	60,339	1	0.01267	1	0.00122	15
제주특별자치도		21,048	16,608	1,823	59,452	2	0.00866	3	0.00228	7
전북특별자치도		57,793	43,463	5,665	56,664	3	0.0098	2	0.00161	10
강원특별자치도		52,531	35,789	4,193	51,333	4	0.00798	4	0.00127	12
경상북도		115,341	50,680	7,385	33,106	5	0.0064	5	0.00113	16
경상남도		120,060	30,108	4,022	18,895	6	0.00335	6	0.00132	11
충청남도		128,488	28,685	3,331	16,821	7	0.00259	8	0.00091	17
충청북도		79,424	17,527	2,375	16,627	8	0.00299	7	0.00127	12
광주광역시		45,220	9,132	1,049	15,216	9	0.00232	9	0.00998	1
세종특별자치시		14,497	1,587	145	8,248	10	0.001	10	0.0062	2
대전광역시	수도권/ 도시	49,566	5,071	468	7,709	11	0.00094	11	0.00318	4
대구광역시		63,189	5,807	555	6,924	12	0.00088	12	0.00486	3
부산광역시		104,297	9,415	843	6,802	13	0.00081	13	0.00242	6
울산광역시		86,255	6,256	628	5,465	14	0.00073	14	0.00123	14
인천광역시		104,497	5,827	541	4,201	15	0.00052	15	0.00178	9
경기도		546,816	20,399	1,963	2,811	16	0.00036	16	0.00213	8
서울특별시		485,748	13,524	1,225	2,098	17	0.00025	17	0.00254	5

출처: 행정안전부 원시자료



## 결론



## 결론 요약

###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평가 방법별 특징 및 대안

비교 방법	모금 주체별 비교	광역자치단체 단위 비교(단순합산)	광역자치단체 단위 비교 (중복계산/규모효과 고려)
비교 방법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3개 모금주체 : 226개 기초자치단체+17개 광역자치단체</li> <li>·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모금주체에서 제외</li> <li>→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단위로 모금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자치단체 내 기부단위 모금건수, 모금액 단순합산</li> <li>· 문제1 : 동일 광역자치단체간 모금이 중복계산됨</li> <li>· 문제2 : 광역자치단체 규모 효과가 고려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지역간 비교 문제 : 동일 광역자치단체내 모금(지역별 20~40% 수준) 제외</li> <li>· 지역 규모 효과 고려 : 모금액의 지역 경제 (GRDP) 대비 비율 계산</li> </ul>
제주 모금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금 건수 1위 / 243</li> <li>· 모금액 2위 / 24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금건수 8위 / 8개 도지역</li> <li>· 모금액 8위 / 8개 도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금건수 2위 / 8개 도지역</li> <li>· 모금액 3위 / 8개 도지역</li> </ul>



## 본 연구의 한계

- 대안 지표 산식은 단순 집계적 과대/과소 추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의 성과와 동일시할 수는 없음
  - 예: 규모효과를 보정한 국가 총생산 지표인 1인당 GDP의 높고 낮음을 그 국가의 경제의 질적 수준과 동일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문제
- 고향사랑기부제의 진정한 성과는 기부/모금 성과와 같은 양적 지표 뿐만 아니라 지역 특수성, 기부사업 성과, 정책 효능감 등과 같은 질적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감사합니다!



라운드  
테이블

좌장 |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

토론 | 박계영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행정과장

양석훈 농민신문사 기자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장

이정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토론문

##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박계영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행정과장

### 1. 사상구 현황(개요)

#### □ 사상구 개요·현황

<p><b>① 인구현황</b>                  ↳ 초고령 사회 진입, 연평균 2.3%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인구: 203,789명, 부산시 인구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자: 102,544명, 여자: 101,245명</li> <li>- 세대수: 98, 625세대</li> </ul> </li> <li>◆ 65세 이상 인구: 42,960명(총인구 21.1%)</li> <li>◆ 청년인구: 40,325명(19.8%)</li> </ul>	<p><b>② 평균소득 수준</b>                  ↳ 부산시 구군 중 하위 3번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4%(서구: 14.1%, 기장군: 10.9%)</li> <li>- 부산시 구·군 중 하위 3번째</li> </ul> </li> <li>◆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3%(동구 41.5%, 서구 39.8%, 중구 35.6%)</li> <li>- 부산시 구·군 하위 4번째</li> </ul> </li> </ul>
<p><b>③ 예산규모: 5,834억 원</b>                  ↳ 재정자립도 17.9%, 재정자주도 28.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회계: 546,627억 원/ 특별회계: 6,634억 원</li> <li>◆ 기금(7개): 301억 원</li> <li>◆ 2023년 예산 대비 468억 원 증가</li> <li>◆ 2024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252억 원 적자</li> </ul>	<p><b>④ 노후화된 사상공업단지</b>                  ↳ 전통 주력산업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5년 낙동강 주변 공업단지 조성</li> <li>◆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신발, 주물, 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최대 공업지역으로 성장</li> </ul> </li> <li>◆ 전통 주력 산업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해, 소음 등 심각한 도시문제 초래</li> </ul> </li> </ul>

#### □ '23년 모금 현황

○ 목표액: 120,000천 원

○ 모금실적: 1,097건 / 167,735천 원(목표액 대비 139.7%), 부산시 1위

구분	금액(천 원)	건수(건)	인원(명)
2023.12.31.	167,735	1,097	1,018
2024.07.16.	67,229	175	169

2023년~2024년 현재까지 부산시·군·구 기부모금액 1위 달성

## ○ 기부 금액별 현황

- 지역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통한 기부금 실적 증대

총계		10만 원 미만		10만 원		10만 원 초과 ~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97	167,735	268	1,922	<b>775</b>	<b>77,500</b>	26	5,813	18	32,500	10	50,000

※ 모금순위: 연말정산혜택을 위한 소액기부자(775건, 77,500천 원)

월별순위: 12월(532건 52,506천 원), 연말정산혜택을 위한 기부가 총 건수(1,097건)대비 49%, 총금액(167,735천 원) 대비 31%를 차지

지역별순위: 부산광역시(413건 85,213천 원) / ② 서울·경기(323건 40,423천 원)

부산지역과 서울·경기권의 기부현황이 높고, 소규모 기부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 □ '23년 답례품 제공 현황

## ○ 총괄현황

제공 건수(건)	제공 금액(천 원)	비고
784	40,458	

## ○ 인기답례품 현황(상위 10개)

순위	품목명	제공 건수(건)	제공 금액(천 원)
1	국제식품 초원농원 왕갈비탕 1kg*3팩	175	7,710
2	국제식품 왕갈비탕+한우고기곰탕 각 1kg	112	5,640
3	국제식품 한돈 냉장 찜갈비 1kg*2팩	100	6,660
4	깨비참 참기름 국산 300ml 1병	69	2,070
5	깨비참 참기름 수입산 350ml 3병	59	4,290
6	원목칼꽃이7p세트	41	1,230
7	국제식품 한우족탕+한우고기곰탕	37	1,380
8	드립백 30입 + 원두 200g 세트	31	930
9	국제식품 한우족탕 1kg*3팩	25	750
10	깨비참 들기름 수입산 350ml 2병	24	1,440

※ 기부자가 갈비탕, 찜갈비, 참기름 등과 같은 먹거리 위주 선호

## 2. 사상구의 노력

### □ 노력 1 : 기부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이 되는 기금사업 발굴

- 공모명: 사상구 고향사랑기금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 참여대상: 사상구민 및 사상구 직원
- 접수결과: 18건, 16명(공모기간: '23.12.4.~'24.1.12.)
- 심사방법: 기금사업 선정 시 기부자 의견을 제안사업에 적극 반영

(1차) 부서검토	(2차) 실무심사	(3차) 의견수렴	(4차) 본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제안 18건</li> <li>• 검토: 12개 부서</li> <li>• 기간: 2024.1.24.~1.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부서 채택제안</li> <li>• 내용: 위원회 심사</li> <li>• 일시: 2024. 2. 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고액기부자</li> <li>• 방법: 우수제안 선호도 등</li> <li>• 기간: 2024.2.14.~2.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최종 채택제안</li> <li>• 방법: 위원회 심사</li> <li>• 일시: 2024.3.4.</li> </ul>

- 심사결과: 6개 사업 중 3개를 기금사업으로 2024년 예산편성 완료

- '23년 기금모금액(167백만 원) 대비, 지역 맞춤형 기금사업 전액 예산편성

※ 단계별 심사를 통한 제안사업 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

기부자의 의견을 제안사업 선정에 적극 반영, 단순한 모금행위를 넘어 재기부의 원동력이 되는 기금사업 발굴, 선제적 기금활용방안 마련으로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활용 우수사례 선정

### □ 노력 2 : 지역 특색 맞춤형 기금사업 운영

- (사업1) 청년예술가와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거리 산책'

- 사업예산: 10,000천 원

- 사업대상: 사상구 청년음악가 등

- 사업내용: 지역청년예술가 발굴, 창작활동 등 공연기회(버스킹 공연 등) 제공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지역 정주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거리공연의 즐길 기회 제공

※ 지역특성: 공단지역 특성상 위축된 청년음악가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을 돕기 위해 선정

- (사업2) 함께하는 힘: 중증질환자를 위한 운동치료 프로그램

- 사업예산: 30,000천 원

- 사업대상: 사상구민(암, 파킨슨병 등 중증질환자)

- 사업내용: 지역대학 및 지역병원과 연계, 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 제공
- ※ 지역특성: 사상구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국 및 부산의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증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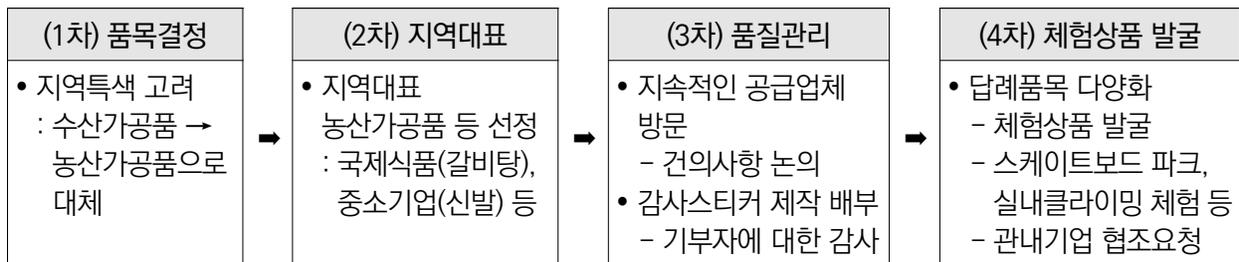
○ (사업3) 재첩 in 스토리: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 제작·설치

- 사업예산: 120,000천 원
- 사업대상: 사상구민
- 사업내용: 삶의 터전이었던 낙동강 재첩을 통해 고향의 정취를 되살리기 위한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 및 포토존 제작·설치
- ※ 지역특성: 1980년대 이전 낙동강 하루 모래톱에는 재첩이 유명했으며, 채취한 재첩을 ‘재첩국 아지매’ 들은 새벽 첫차를 타고 부산 각지에 팔러 다녔으나, 이제는 잊혀진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선정

□ 노력 3 : 지역특색 맞춤형 답례품 선정과 지속적인 품질관리

○ 2023년~2024년 1~4차에 걸친 차수별·테마별 답례품 지속 선정 및 발굴

- 지역특색에 맞는 23개 상품, 9개 관내업체 등록



- 답례품 품질관리를 위한 지속적 공급업체 방문 점검
  - 신규 답례품 선정 시마다 지속적 공급업체 방문점검, 답례품 공급 시 건의사항 등 논의
- 답례품 발송 시 감사스티커 부착 배송
  - 공급업체에 답례품 발송 시 부착할 감사스티커 일괄 제작 배부
  - ※ 기부자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기부자 예우를 통한 재기부 유도

□ 노력 4 : 지역 뿌리산업의 전통계승을 위한 맞춤형 답례품 선정

- '60년대 사상의 뿌리산업인 신발제조회사 ‘국제상사’를 계승하기 위한 지역 소상공인 제조 신발을 답례품으로 선정

-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소상공인 신발산업 발굴(2개 업체), 고향의 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다양한 소액기부자의 맞춤형 취향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노력 5 :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홍보 대상 지자체 선정

- 전국 지자체 10곳 중 부산에서는 사상구가 유일하게 선정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기금활용 사업을 홍보영상으로 제작
  - BTV(고향을 부탁해)와 연합뉴스TV에서 전국 송출 예정(2024.8.18.)

□ 노력 6 : 지역 맞춤형 홍보활동 추진

- 서부산공업지역 기업체대상 「찾아가는 고향愛」 추진
  - 지역특색을 살린 서부산공업지역의 기업체와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관내 축제와 연계한 홍보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제20회, 제21회 사상전통달집놀이 행사 연계 홍보관 운영('23.2./'24.2.)
  - 2023년 2030부산세계엑스포 연계 홍보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23.2.)
  - 부산록페스티벌 연계 홍보관 운영('23.10.) 등
-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사상:단독」 추진
  - 유관기관(부산사상소방서, 부산사상우체국 등) 및 업체 대상 「사상구 고향사랑기부제를 단디, 똑디 알려드립니다」 홍보
- 2024년 「고향사랑기금사업 연계」 홍보관 운영 및 홍보물품 배부
  - 기금사업 '음악이 있는 거리 산책' 버스킹 공연 시 홍보('24.6.~7.)
- 구 홈페이지 「고액기부자 명예의 전당」 개설 등 집중 홍보
  - 고액기부자 홍보를 통한 기부자 예우를 통해 '선순환 기부체계' 마련

### 3. 향후 계획

#### □ 2024년 지역맞춤형 선제적 기금사업 추진

- 추진대상: 아이디어 공모제안 3개 사업
- 추진방법: 기금모금액(167백만 원) 전액 예산편성, 사업운영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시기	예산액
청년예술가와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거리 산책	정주형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음악가 발굴, 버스킹 공연 지원	2024. 6.~11.	10,000천 원
함께하는 힘: 중증질환자를 위한 운동치료 프로그램	공단특성 상 암 연령표준화사망율이 높은 취약 계층 중증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024. 7.~	30,000천 원
재첩 in 스토리: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 제작·설치	삶의 터전이었던 낙동강 재첩을 통해 고향의 정취를 되살리고 잊혀진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 및 포토존 제작·설치	2024. 11.~	120,000천 원

#### □ 지역 맞춤형 「지정기부」 기금사업 선정

- 추진방법: 공모전 개최, 기부자 의견 수렴, 부서추진 희망 사업 발굴
- 추진방법: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정기부사업 추진

지역특성	지정기부(예시)	추진시기	예산액
노후화된 사상공업단지 지원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식재산(IP) 창출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2024.10.	50,000천 원
취약계층 밀집지역 모라3동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고독사 예방 등 지역문제 특화사업 지원 - 모라!하이! 우리네 까치둥지 사업 - 고고망(고독한 사람들과 함께 고하는 사회관계망) 사업		10,000천 원

토론문

##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양석훈

농민신문사 기자

### 1. 주목받는 기금사업

- 발제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기금사업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 매력적인 기금사업을 발굴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공감. ‘기부’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
- 단순히 지자체가 기금사업 하나를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관계인구를 창출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함
- 이 같은 시선은 고향기부제를 지역문제 해결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함
- 관건은 지자체가 어떻게 매력적인 기금사업을 찾아내느냐임. 지자체 공무원 스스로 가능할까에 대해선 회의적 입장. 현재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지정기부 사업이 19개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런 현실 방증
-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 가능한 기금사업의 범위에 대해 행안부와 지방의회가 깐깐히 규제하는 현행제도도 손질 필요

### 2. 과열경쟁 우려, 필요한지

- 몇몇 발표문은 고향기부제 모금 실적을 언론 등에서 줄 세우기 하는 데 아쉽다는 반응. 지자체의 과열 경쟁 부를 수 있다는 것
- 반면 제주처럼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실적에 제대로 반영 안돼서 불만인 곳도 있음
- 과열경쟁을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또 과열경쟁이 되면 안 되는 것인지

- 고향기부제는 모두의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 지난해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처럼 모금 활성화 위해 초반부터 고군분투해온 곳이 실제 좋은 모금 성적 거둠. 이들 지자체의 노력이 '지정 기부제 법적 근거 마련' '민간 플랫폼 개방' 등 제도 개선 성과로 이어졌다고 믿음
- 이런 지자체가 더 나와야. 지자체 모금 실적을 줄 세울 필요는 없지만 잘하는 지자체 사례는 널리 확산돼야
- 정부 역할은 이 같은 지자체가 나오도록 독려하고 지자체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는 것이라고 생각
- 현재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대로 지자체 창의력을 옥죄고 있진 않은지에 대해 고민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함

토론문

##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장

### □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성과에 관한 양적 평가, 신중한 논의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기부금이 크다 작다는 판단은 지역별 모금 현황과 실제 재정 규모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부금의 규모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목적이 얼마나 잘 달성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성과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 확충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평균 2억 4천만 원, 비인구 감소 지역은 1억 1천만 원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현안별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 필요

- 대표적인 현안으로 제도 규제 완화, 법인기부 허용, 세액공제 제도 개선, 민간 플랫폼 허용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제도 규제 완화: 홍보 및 기부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2024년 8월부터 문자 메시지, 동창회·향우회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가능하게 하였고, 2025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부금 규모를 확대 가능해짐. 향후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기부 상한액 조정에 따른 답례품 규제 완화, 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추가적 제도 개선 필요

- 기부금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조정된 만큼 고액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필요
  - 현재 지자체 주요 답례품들은 전액 세액공제액인 10만 원의 30% 수준인 3만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지방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3만 원 수준의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전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필요
  - 세액공제의 경우 2024년 7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발의가 이루어 졌으며(한병도의원 대표발의, 2024.7.15.), 주요 내용은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액 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하고, 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공제율을 조정
- 법인기부의 허용은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의 확대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법인기부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법인 허용에 따른 제도 설계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 모금 주체 및 대상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법인에게 부여할 혜택의 범위, 법인 혜택으로 인해 발생할 정부의 재정 결손분에 대한 합의, 정경유착과 같은 부작용 예방책 등 검토 필요
- 민간 플랫폼의 도입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특히,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플랫폼의 허용은 지자체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관리 운영의 투명성, 지자체 간 형평성 측면에서 민간 플랫폼 도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면 기부금 접수 업무 수행에 있어 기부자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야 하는 문제,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 중심의 민간 플랫폼 활용 활성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기준 명확화, 위탁 대상 사무별 운영·관리 체계 수립, 민간 플랫폼 자격 기준 명확화 등 단계별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토론문

##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이정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 인천의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 2023년 기준, 인천은 총 7억 7,292만 원이 모금되어 목표액(3억 원) 이상을 달성함
  - 10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의 48.6%만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말에 기부금이 몰리면서 목표액을 초과함
    -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이하의 비중이 높음
  - 강화군과 부평구는 1억 원 이상 모금된 것으로 나타남
    - 강화군은 21개, 부평구는 22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인천 내에서 등록된 상품이 많은 지역임

## 〈2023년 인천광역시 군구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구분	모금액	주요답례품	지역	모금액	주요 답례품
강화군	1억 3,000만 원	강화섬쌀·잡곡세트, 순무김치	남동구	3,852만 원	남동해풍단배, 솔잎김
옹진군	3,945만 원	호박수제양갱선물세트, 옹진자연물 온라인포인트	연수구	9,690만 원	녹청자찐잔, 콜드브루커피
중구	2,670만 원	맛좋은섬쌀, 팔미도 금빛낙조 이용권	부평구	1억 100만 원	참기름·들기름선물세트, 충전식 찜질기
동구	2,528만 원	호두정과, 스콘세트, 영양소금세트 2종	계양구	6,686만 원	계양쌀, 두리생생표다리버섯
미추홀구	9,700만 원	인천SSG랜더스홈경기 할인권, 수제비누	서구	6,787만 원	장수미

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경인일보(2024/01/02)<sup>1)</sup>

1) 경인일보. (2024.01.02.). 인천 고향사랑기부제 성적표 '합격선'.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4\\_0103\\_010000249](http://m.kyeongin.com/view.php?key=2024_0103_010000249)(검색일: 2024년 8월 27일)

- 특히 인천의 다수 지역에서 주요 답례품 중 지역사랑상품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호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본청 포함 11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선정
  - 본청 답례품 중 인천e음카드 717건(94.7%), 강화섬쌀 30건(4.0%), 웰니스관광 상품 6건(0.8%), 수제인삼꿀청 4건(0.5%) 순으로 나타남(경향신문, 2024/01/30)<sup>2)</sup>

## □ 지역사랑상품권과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농업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가 선호하는 답례품은 ‘농축 임산물 및 지역특산물(46.8%)’과 ‘지역사랑상품권(30.3%)’이며 해당 답례품이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음(유찬희·박혜진, 2024)<sup>3)</sup>
-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면 도시지역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을 선정하기 쉽지 않아 인천 내에서 사용이 용이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상품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 인천 내 사업장 중 10만 6천여개소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상품권 발행규모가 컸던 2022년에는 주요 사용처인 ‘식음료’, ‘종합소매’ 등 사업체의 매출액 중 인천사랑상품권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인천시에서는 가맹점 매출액별 인센티브 차등화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생가맹점 운영으로 장기적으로 지역 소비 선순환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답례품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부자를 만족시킬 만한 답례품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음

2) 경향신문. (2024.01.30.). 인천광역시, e음카드로 이어진 ‘고향사랑’... 올해는 더 잇는다. [https://www.khan.co.kr/ePR/article/202401302247065#\(검색일: 2024년 8월 27일\)](https://www.khan.co.kr/ePR/article/202401302247065#(검색일: 2024년 8월 27일))

3) 유찬희·박혜진. (2024).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KREI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

- 지역 현안과 연계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
  - 지역의 특산품이 없는 지역에서 답례품을 발굴하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모금액이 미달된 지정 기부 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활용하여 이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발표를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
- 지속적인 기부환경 조성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 및 공유
  -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통계자료를 근거로 기부자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 또는 사업을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에 기부하도록 유도
- 기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수단 발굴
  -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방식에 대한 제약을 두기보다는 지자체 자원에 맡겨서 예비 기부자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상 신문, 방송 등 일부 매체를 이용한 홍보만 가능하며, 향우회나 동창회, 거리 홍보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완화할 필요가 있음

토론문

##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 □ 내용

- 내용: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일본 고향납세제도 운영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경산시를 사례로 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배경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와 재정의 불균형 완화에 있다. 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필요성은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와 재정 측면의 불균형을 완화를 목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수도권 인구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4% 차지하고 비수도권 특히 도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점차 가속화 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둘째, 지방소멸 위기 대응 노력 일환이다. 즉,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 3월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113개 단체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지역)소멸위기 처해 있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재정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답례품 제공,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위험도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있다.

## 2)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21년 10월 19일 법제화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현재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제1조에서 이 법의 제정목적은 명시하고 있다. 즉,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1조).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 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법 제2조 1항).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기부 주체와 대상	• 개인이 주소를 둔 자치단체 외의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법인은 기부 불가	법 제4조
가부 제한	•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기부 금지 •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금지	법 제5조
기부·모금의 강요 등의 금지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 강요 금지 •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 금지	법 제6조
기부금 모금방법	• 대중 광고매체를 통한 기부금 모금 홍보 가능 - 호별 방문,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 등 금지 • 기부금 광고매체 허용범위(시행령 제3조)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부금 상한액	• 개인 기부금 연간한도액을 500만 원(2025.1.1.부터 2,000만 원 상향조정)으로 정함(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법 제8조 3항
지정 모금 및 기부	• 기부자는 제11조 제1항 각호 하나의 목적 달성하기 위한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 가능	법 제8조의 2
답례품 제공	• 기부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 -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 규정(시행령 제5조: 기부액의 30%)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고향사랑기금 설치 등	•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주민복지,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지자체 조례제정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운영 투명성 제고	
기부 결과 공개	•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현황, 고향사랑기금 운용 결과 등 공개	법 제13조
개인과 기관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 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 법 위반 시 1년 이내 기간 동안 지자체의 모금·접수 제한 및 위반 사실 공표</li> <li>- 개인(공무원) :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li> <li>• 기부금 모금방법을 위반하여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li> </ul>	법 제4조 법 제16조 법 제17조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만 원까지 전액 / 10만 원 초과인 경우 초과 금액의 16.5%</li> </ul> </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

## 2.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영 사례

### 1)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주요특징 비교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06년 후쿠이현 지사가 처음으로 고향기부제 공제의 도입을 제안한 이후, 지방의 세수감소로 인한 대도시와의 격차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4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고향납세제도는 개인이 고향이나 관심 지역으로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중 자기부담금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액의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특히 농어촌 지역에 기부함으로써 지역의 지방창생(地方創生)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2008년 고향납세제도 도입 후 2015년 제도를 개선하여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sup>1)</sup>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강화를 통해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을 증가시킨 바 있으며, 고향 창업가 지원 및 고향 이주교류 촉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부금 모금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상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차이가 존재한다(최천규, 2023: 139).

1) 2015년 4월 1일부터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가 고향 납세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고향납세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인 “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 적용을 받는 사람은 소득세에서의 공제는 발생하지 않고, 고향 납세를 한 다음 연도의 6월 이후 납부한 주민세에서 감액되는 형태의 공제가 이루어진다.

〈표 2〉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 고향 납세제도의 주요 특징 비교

구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납세제도		
성격	• 순수한 기부금적 성격이 강함		•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이전의 성격이 강함		
법적 근거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 세액공제 항목 추가		
시행시기	• 2023. 1. 1 시행		• 2008. 4 시행		
기부 주체	• 개인(법인 기부 불가)		• 개인과 법인		
기부대상	• 기부자 거주지 외 전국 모든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대상		• 제한 없음(단, 거주지 자치단체 경우 답례품 미제공)		
자기부담금	• 없음		• 2,000엔		
기부금 한도	• 기부금액 연간 500만 원 한도 (2025.1.1.부터 2,000만 원으로 상향)		• 한도액 없음 : 다만 공제한도액은 있음[소득세 총소득의 40%, 주민세(기본분) 총소득 금액의 30%, 주민세(특별분) 2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시행령) • 답례품은 현금·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금지		• 제한 없음: 단 총무 대신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권고 • 답례품은 전자제품·상품권 금지		
재원 이전	• 국세인 소득세 공제 중심 - 중앙 → 지방 이전(91%) - 지방 → 지방 이전(9%) * 세액공제 국가 부담 91%		• 지방세인 주민세 공제 중심 - 중앙 → 지방 이전(소득세율, 평균 23%) - 지방 → 지방 이전(주민세, 약 77%) * 소득에 따라 중앙·지방 비율이 상이하며, 지방부담 비율 높음		
세액공제 방법	•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국세 소득세: 10만 원×(100/110) - 지방세 지방소득세: 국세 공제액×(10/100) [10만 원 초과 시: 16.5%] - 국세 소득세: 10만 원×(100/110)+ (기부액-10만 원)×(15/100) - 지방세 지방소득세: 국세 공제액×(10/100)		• 소득에 따라 공제상한액이 다름 - 국세 소득세 소득공제: (기부금-2천 엔)×소득세율 - 지방세: 주민세(기본분): (기부금-2천 엔)×주민세율(10%) 주민세(특별분): (기부금-2천 엔)×(100%-10%-소득세율) * 공제상한액 초과분부터 세액공제 하지 않음		
재정 부담 적용 예	소득 수준	• 연간 급여소득 7,000만 원인 주민이 30만 원 기부 시		• 연간 급여소득 700만 엔인 주민(무자녀 부부 가구원)이 3만 엔 기부 시	
	부담 상황	국세(국→지)	40.3%(120,900원)	국세(국→지)	18.7%(5,600엔)
		지방세(지→지)	4.0%(12,100원)	지방세(지→지)	74.7%(22,400엔)
	기부자(민→지)	55.7%(167,000원)	기부자(민→지)	6.6%(2,000엔)	

자료: 최천규(2023: 140) 및 김광석(2022: 28)의 재구성

## 2) 고향납세 운영 현황

일본의 고향납세 수입액은 2008년 도입 당시 5.4만 건의 기부를 통해 81.4억 엔을 모금하였는데,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 및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2012년 이후 세액공제 적용 하한액을 5,000엔에서 2,000엔으로 인하하여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5년 ‘지방창생’ 정책·개인 주민세(특례분) 공제 인상·신용카드 납부 및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 등 납세 환경 정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 현재 4,447.3만 건 기부를 통해 8,302.4억 엔이 모금되었다(〈표 3〉 참조).

〈표 3〉 일본 고향 납세 수입액과 수입 건수 추이

(단위: 억 엔, 만 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수입액	81.4	77.0	100.2	121.6	104.1	145.0	388.5	1,652.9	3,653.2	5,127.1	4,875.4	6,724.9	8,302.4
수입 건수	5.4	5.6	8.0	10.1	12.2	42.7	191.3	726.0	1,730.2	2,322.4	2,333.6	3,488.8	4,447.3

자료: 최천규(2023: 137)의 재구성

## 3) 정책적 시사점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므로 일본의 경험이 중요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답례품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울러 답례품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지역 생산품 중 고가의 품목이 아니더라도 기부자에게 큰 매력을 줄 수 있는 답례품 선정과 발굴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고향 납세 기부금 모집 관련 경비 중 답례품 경비(답례품 조달 및 배송)가 2021년 기준 2,904억 엔으로 7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부금 수입대비 35.0%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한 기부금 모집 전략이 필요하다. 즉, 지역특산물 제공에 그치지 말고 지역발전정책(고향 및 기부대상지 방문, 체험형 방문프로그램 등)과 연계, 지속 가능형 사업들로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 입장권, 농어업 관련 체험 이용권, 테마파크 시설 이용권 등의 답례품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의 고향 납세의 사용처로는 주로 건강·의료·복지, 교육·인재 육성, 환경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셋째,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절차 간 우리나라의 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부금 수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즉,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 및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2012년 이후 세액공제 적용 하한액을 5,000엔에서 2,000엔으로 인하하여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5년

‘지방창생’ 정책·개인 주민세(특례분) 공제 인상·신용카드 납부 및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 2019년 고향 납세 지정제도 신설 등 납세 제도개선을 통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

넷째,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가 대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구호 성금 전달이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1년 3월에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피해 입은 이화테현에서 2011년 전년 대비 기부금액이 16배 증가한 2,781백만 엔이었고, 2016년 규모 6.5의 지진으로 피해 입은 구마모토현은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8,047백만 엔이었다(이상걸·이수영, 2022: 81).

다섯째,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인프라(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구축 및 운영, 활용과 관련 중앙-지방간 제도화 필요하다.

### 3. 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 1)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분석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분석은 자료의 제약으로 경산시를 사례로 하였으며, 분석 기준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요, 운영 절차, 답례품 선정, 기부금 기부 건수 및 모금 수입, 답례품 유형별·품목별 선호, 기부금 모집 관련 비용, 홍보방법 등이다. 이러한 분석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외에 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관련 내부자료 및 정보공개 청구자료(2024.8.18.)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경산시의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은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 (1)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요는 <표 1>에서 전술한 내용과 같다.

#### (2)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절차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서 방문 없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지자체 지정금융기관(농협은행·농축협)을 방문하여서 할 수 있다. 답례품의 선정과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산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그림 1〉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3) 답례품 선정 현황

『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 및 품목 선정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솔라팜영농조합법인 등 7개 업체에서 버섯, 와인, 장류, 쌀, 유가공품, 체험권, 화장품 등 7개 품목이다. 공급 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 외 최근 추가된 답례품으로는 지역농축산물(한우, 한돈, 자두, 봉숭아, 대추, 참외, 샤인머스켓 등), 가공식품(대추차, 대추주, 대추진액, 대추칩, 신선차, 와인), 지역 상품권(경산물 모바일 쿠폰, 경산시 사랑카드) 등이 있다.

〈표 4〉 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 및 품목

공급업체	대표자	주소	공급품목	비고
솔라팜영농조합법인	최재규	경산시 자인면 압독로 390	버섯	
농업회사법인(주) 비노케슬	김미화	경산시 남천면 산전길 74-10	와인	
뚝배기식품	김상영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길 55	장류	
진성RPC도정공장	신호철	경산시 자인면 설총로 730-8	쌀	
밀크하우스	배규미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	유가공품	
경산동의한방촌	황세진	경산시 남산면 삼성현공원로 38	체험권	
박가분	이가은	경산시 어봉지길 285-10 (여천동)	화장품	

자료: 경산시 내부자료

### (4) 기부금 기부 건수 및 모금 수입현황

경산시 2023년(2023.1.1.-12.31) 1년 동안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건수 및 모금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표 5>과 같다. 먼저 총 2,627건에 3억 4,847만 5,000원이며, 그중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가 2,562건에 2억 1,942만 6,000원으로 전체 기부자 대비 기부 건수 및 모금액이 각각 97.5%, 63.0%에 해당한다. 다음 시도별 기부 건수를 보면, 대구광역시가 1,147건으로 전체대비 43.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기타 지역 515건(19.6%), 경상북도 418건(15.9%), 경기도 290(11.0%), 서울특별시 257(9.8%)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시도별 기부금액을 보면, 역시 대구광역시가 1억 7,471만 1,000원으로 전체 수입의 50.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기타 지역 5,714만 2,000원(16.4%). 경상북도 4,903만 6,000(14.1%), 서울특별시 3,932만 3,000원(11.3%), 경기도 2,826만 3,000원(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건수 및 모금 수입현황(2023.1.1.~12.31.)

구분		건수	금액(천 원)
총 기부 건수 및 금액		2,627(100.0%)	348,475(100.0%)
시도별 기부 건수 및 금액	대구광역시(구군 포함)	1,147(43.7%)	174,711(50.1%)
	경상북도(시군 포함)	418(15.9%)	49,036(14.1%)
	서울특별시(구군 포함)	257(9.8%)	39,323(11.3%)
	경기도(구군 포함)	290(11.0%)	28,263(8.1%)
	기타 지역	515(19.6%)	57,142(16.4%)
	합계	2,627(100.0%)	348,475(100.0%)
소액기부자(10만 원 이하) 기부 건수 및 금액		2,562(97.5%)	219,426(63.0%)

자료: 경산시 정보공개 청구자료(2024.8.18.)

### (5) 답례품 유형별·품목별 선호 현황

경산시 2023년(2023.1.1.~12.31.) 1년 동안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유형별·품목별 제공 현황 내역은 〈표 6〉과 같다. 먼저 답례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축산물이 980건으로 전체 답례품 건수(2,038건) 대비 40.1%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지역 상품권 및 화폐 709건(34.8%), 가공식품(지역중소기업) 349건(17.1%) 순이며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체험서비스는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체험서비스 유형은 품목이 한방문화체험권 1개 품목으로 향후 다양한 품목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 답례품 품목별로 살펴보면, 경산사랑카드가 676건으로 전체 답례품 건수 대비 33.2%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한돈 423건(20.6%), 쌀 398건(19.5%), 대추 관련 가공품 176건(8.6%), 장류 60건(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기부금 기부 건수가 2,627건 인데 비해 답례품 수령 건수가 2,038건으로 나타난 이유는 매우 소액기부자의 경우 선정할 답례 품이 없거나 5년 동안 포인트(기부금액의 30%)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 6〉 경산시 답례품 유형별·품목별 선호 현황(2023.1.1.~12.3.1)

유형(4개)	품목	건수
	합계	2,038(100.0%)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체험서비스	한방문화체험권	0
지역농축산물	쌀	398(19.5%)
	한우	28(1.4%)
	한돈	423(20.6%)
	건 대추	49(2.4%)
	복숭아	11(0.5%)
	자두	1(0.05%)
	버섯	27(1.3%)
	참외	21(1.0%)
	미나리	1(0.05%)
	샤인머스켓(포도)	21(1.0%)
	기타	0
		소계
가공식품(지역중소기업)	밀크하우스	39(1.9%)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떡배기)	60(2.9%)
	대추 관련 가공품 (대추차, 대추주, 대추진액, 대추칩 등)	176(8.6%)
	신선차	5(0.2%)
	와인	34(1.6%)
	기타	35(1.7%)
		소계
지역 상품권 및 화폐	경산물 모바일 쿠폰	33(1.6%)
	경산사랑카드	676(33.2%)
		소계

자료: 경산시 정보공개 청구자료(2024.8.18.)

#### (6) 기부금 모집 관련 비용 현황

2023년(2023.1.1.~12.31.) 1년 동안 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관련 비용 내역은 〈표 7〉과 같다. 즉, 기부금 모집 관련 총비용은 8,434만 2,000원으로 기부금 수입대비 24.20%에 해당한다. 그중 답례품 조달비용이 5,000만원으로 기부금 수입대비 14.35%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홍보비용 2,103만 3,000원(8.9%), 답례품 배송비용 217만 9,000원(0.62%), 사무 비용 113만 원

(0.32%)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드 수수료 등 결제 관련 비용은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답례품 조달비용은 다수 소액기부자가 답례품 수령 조건 미달로 답례품 미수령 등으로 현재 답례품 조달비용 한도(기부금 수입의 30%)보다 훨씬 낮으나 답례품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어 향후 훨씬 늘어 날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전체 기부금 모집 관련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관련 비용 현황(2023.1.1.~12.31.)

구분	금액(천 원)	기부금 수입대비 비율(%)
답례품 조달비용	50,000	14.35
답례품 배송비용	2,179	0.62
홍보비용	31,033	8.9
결제 관련 비용	-	-
사무 비용(답례품 선정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등)	1,130	0.32
합계	84,342	24.20

자료: 경산시 정보공개 청구자료(2024.8.18.)

## (7) 홍보방법 운영 현황

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방법은 주로 네이버 블로그(1건), 유튜브(2건), 대중교통(버스, 대구지하철 등), 기업설명회, 단오제 등에서 고향사랑홍보 부스 운영, 경산시 전광판 등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개념 및 성격, 기부 주체, 기부대상, 기부금 한도,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기부금 사용 용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방송, 신문사 등을 피하고 최소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7〉 제시한 바와 같이 경산시 2023년 1년 동안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비용은 3,103만 3,000원으로 기부금 수입비용 대비 8.9%에 해당한다.

## 2)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

고향사랑기부제는 경산시 2023년 1년간 운영사례에서 보듯이 관심 저조, 모금액 저조, 대다수 기부자가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 등 시행 초기이지만 다소 부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및 운영상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부금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 범위 제한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와 대상 범위는 주민등록 이외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여

법인은 불가하고 주민등록지는 기부가 불가하다. 반면에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는 개인은 물론 법인도 기부할 수 있고 기부대상도 제한이 없어 거주지도 기부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2) 기부금 한도액 및 세액공제 제한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 원(2025.1.1.부터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액공제도 10만 원까지 전액(100%) 공제되나 1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16.5%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는 기부자의 기부금 한도가 없으며 자기부담금(2,000엔)을 제외한 기부금을 소득에 따라 정한 공제상한액까지 전액 국세와 지방세 환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방식이나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10만 원 이상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로부터 기부금 일부(기부금의 16.5%)만 환급될 뿐 나머지 기부액의 상당 부분을 기부자 자신이 개인 부담해야 하는 부분공제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

## (3) 기부금 모집 관련 홍보 및 모금방법 등에 대한 강한 규제

기부금 모집 관련 직접 홍보 제한, 모금방법 제한, 모금장소 제한 등 강한 규제를 취하고 있다. 즉 기부금 모집방법과 관련 현행 법률에는 간접적인 대중 광고매체를 통한 기부금 모금 홍보가 가능하고 호별 방문,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 등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으며, 모금장소도 경산시의 경우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또는 경산시 지정 금융기관(농협은행·농축협)으로 한정하고 있다.

## (4) 답례품의 유형별·품목별 발굴 및 선정 미흡

준비 부족 등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목적에 맞는 다양한 답례품의 발굴 및 선정이 다소 미흡하다. 즉, 지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지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별·품목별 답례품 선정이 필요하다. 경산시 운영 사례서 보듯이 아직 준비 부족으로 2023년 1년 동안 전체 기부금 기부 건수가 2,627건인데 비해 답례품 수령 건수가 2,038건으로 소액기부자의 경우 선정할 답례품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기부금 사용 자율성 제약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제2항은 기금의 모집비용(전년도 기부액의 15%)을 제외한 재원은 법에 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용 목적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사용 목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

### (6)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재원 규모 미흡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재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주민 복리 지역 현안사업들을 수행한 많은 한계가 있다.

## 3) 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은 일본 고향납세 운영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과 경산시 운영 현황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과 경산시 차원의 활성화 정책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개선

#### ① 기부금 기부 주체와 대상 범위 확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주체와 대상을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처럼 개인은 물론 법인도 기부할 수 있고 기부대상도 제한이 없이 거주지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부 주체로 법인허용의 경우 법인에게 폭넓은 사회적 기여의 기회를 주고 지자체의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준조세로 인식될 우려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의 존재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 ② 기부금 한도액 폐지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금 한도액 및 세액공제 관련하여 일본 고향 납세제도처럼 기부금 한도액을 없애고 세액 공제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의 기부금 한도액 제한은

자발적 기부 의사의 제한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배치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개인 기부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③ 기부금 모집 홍보방법의 규제 완화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홍보방법은 간접적인 대중 광고매체를 통한 기부금 모집 홍보 외에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 매체 이용 등 직접적인 방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즉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을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여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과 관련하여 강요는 금지되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할 수 있도록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칙 관련 규정(동법 제17조 제2항) 등도 삭제하여야 한다.

### ④ 기부금 사용의 자율성 확대

우리나라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주민 복리 증진사업으로 법률로 제한되어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고 지자체의 기부금 사용의 자율성도 떨어진다. 향후 일본의 고향납세처럼 지자체 기부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⑤ 기부금 재원의 규모 확충

기부금 재원 규모가 경산시 운영 사례에서 보듯이 2023년 1년 동안 기부금 모금액 3억 4,847만 5,000원이며 이중 기부금 모집 관련 총비용 8,434만 2,000원(기부금 수입대비 24.20%) 제외하면 약 2억 4,413만원으로 다양한 주민 복리 및 지역 현안사업들을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고향사랑기금의 재원은 기부금 모집액 50%와 지자체 일반회계로부터 이전 재정 50%를 마련하여 주민 복리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경산시 차원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정책과제

경산시 차원의 활성화 정책과제로는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의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수립, 경산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답례품 발굴 및 선정,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목표 및 전략 수립을 통한 홍보 강화, 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최근열 (2023; 141-144) 참조].

## 참고문헌

- 김광석. (2022). 「대구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제 추진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신두섭. (2021).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도입과 활용방안: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 298차 대경 킬로퀴럼 발표 자료.
- 이상걸·이수영. (2022). 「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 더 봄 : 서울.
- 행정안전부. (2018).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계획(안)」.
- 최근열. (2023). 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25(2): 125-147.
- 최천규. (2023).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내용과 시사점-일본의 고향 납세제도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재정 추계 & 세제 이슈」, 제22호: 129-141.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에 대한 내부 자료 및 정보공개청구 자료(2024.8.18.).



제2회  
고향사랑의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2부





## 개회사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주재복입니다.

먼저, 9월4일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년 차를 맞이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과 함께, 첫째 650억의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함께 힘써 주신 국회,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모든 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4년 행정안전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고, 고령화의 심화로 평균 연령이 44.8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의 소멸은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사업 발굴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15년 전에 '고향납세'라는 이름으로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먼저 모금하기 시작한 일본은 한 해 10조 원 규모를 모금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금액은 민간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 3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음을 예측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해 평소 관심이 있던 지역뿐만이 아니라 답례품 등을 통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기부를 하게 되면, 지역의 정성이 담긴 지역특산품이나 지역 체험 및 체류형 답례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부자 본인에게는 또한 기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기부금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 과정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간 91대 9의 비율로 공제가 이루어져 재정분권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 지속적으로 기부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한 해 모금액이 국가 일반회계 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기부금 성장이 지속 될 경우 1% 수준의 4조원 규모까지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을 구성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도개선과 홍보, 답례품과 기금사업 발굴 사례들을 공유하는 등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이하여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정책연구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축하해 주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님, 국회 박덕흠·이만희·한병도 의원님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초강연을 해주시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신 송인헌 괴산군수님을 비롯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 참석자분들과 포럼 준비에 함께해주신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담당자분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주재복



## 축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원장권한대행님과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곳곳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등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인재가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범부처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부족한 지역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총 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출범하여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체류인구의 특성을 분석·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지역의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제도 시행 첫 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다른 지자체 평균의 약 1.9배에 달하는 모금액을 달성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활력 제고의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고향사랑기부제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정기부' 제도는 기부자가 관심있는 지역문제 사업을 직접 선택하여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의 효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말부터는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모금이 허용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튼튼히 뿌리를 내려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다 탄탄히 하고 기부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고향사랑e음 플랫폼에서만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기부자가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 개방 사업을 올해 말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개최되는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5.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 축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동기입니다.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과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고향사랑기부제 1년의 성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자리를 위해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하여 행사개최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자와 참여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 인구소멸과 지방 간 재정격차의 악순환이 지속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고향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지역에 기부라는 새로운 모금방식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에 달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을 통해 지방정부는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상한액을 연간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지방정부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가 가능해졌으며, 민간 플랫폼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더 많은 관심이 모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4. 9. 5.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 동 기



## 축사

**박덕흠**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원장권한대행님, 그리고 함께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문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중요한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첫해부터 89개의 인구감소지역에서 평균 지역들보다 약 1.9배에 달하는 모금액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부터는 '지정기부' 제도 등 새로운 방안들을 도입하여 기부자들이 지역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이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욱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5.  
국회의원 박 덕 흠

## 축사

**이만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공론의 장을 함께 마련해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어 주실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여러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실 기초강연자 및 발표·토론 참석자 여러분께도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07년 12월, FTA로 손해를 입은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고향세”가 발표되면서 다방면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5년이라는 오랜 논의 끝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3년부터 1월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력과 희망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적극적인 답례품 개발과 홍보하고, 기금을 활용해 전남 곡성의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충북 진천 ‘생거진천 케어팜 공동체 텃밭 운영’ 등 지역 주민 문제 해결하는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은 약52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그 금액은 650억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우리 사회에 무사히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많은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긴급진단 토론회 개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고향사랑의 날은 올해로 2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7월 31일 민간플랫폼 개방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8월부터는 지자체 문자메시지, 향우회 등을 통한 홍보 및 모금활동이 가능해졌고, 2025년부터는 기부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기여 할 수 있는 잠재력과 기대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2008년에 도입한 '고향납세제도'는 지난해 1조 엔이 넘는 모금액을 모으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기부금의 활성화 그리고 제도의 또 다른 홍보 역할을 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에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 9. 5.  
국회의원 이 만 희



## 축사

한병도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을 국회의원 한병도입니다.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포럼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재복 원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한편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증정하는 전례없는 파격적인 제도였기에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비수도권 출신 유명인을 시작으로 대중으로까지 기부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내 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직접 선택하는 지정기부가 도입된 데다, 내년부터 기부금 한도가 현행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무려 네 배 상향될 예정이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한국은행 등 유수의 기관에서 저출산과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비수도권 재정 확충과 산업 육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 고향사랑 기부제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정법을 발의했는데, 저와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모여 포럼을 여신다고 하니 무척 반가운 마음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포럼에서 좋은 의견을 마음껏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우리가 합심하여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을 이뤄낸 것처럼 22대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주까지 먼 걸음을 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 9. 5.  
국회의원 한 병 도





기조  
강연

# 2024 인구감소시대, 인구소멸 현주소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방안 제언

송인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괴산군수)





## 2024 인구감소시대, 인구소멸 현주소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방안 제언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송인현

## 순서

- 01 지방소멸위기 현주소
- 02 인구감소 원인
- 03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 04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05 고향사랑기부제



01 지방소멸위기 현주소

**(혼인기피) 혼인을 하락 → '40년 유소년 인구비중 3.4% 전망**

일자리·양육·주거 등 3대 불안 가중으로 혼인 기피 현상 심화

- (혼인건수) '15년 168건 → '23년 86건
- 특히, 20대 혼인율 5.1% 불과 → 사실상 20대 혼인 소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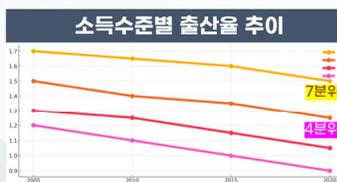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청년의식 변화, '23)

01 지방소멸위기 현주소

**(저출산) 출산율 급격 하락 + 혼인해도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 급증**

- 출산율**
  - 1 25~34세 출산율 하락
  - 2 중산층 출산율 하락
  - 3 아내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출산율 하락
- 유배우 출산율** 첫째아 출산비율 급락 → 무자녀부부(딩크족)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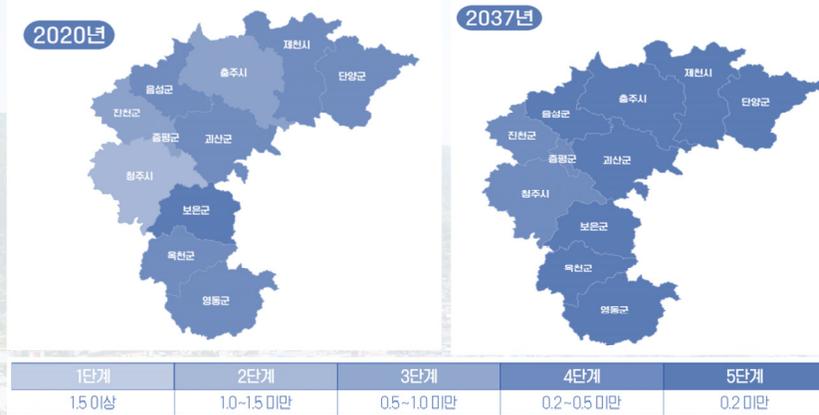
## 01 지방소멸위기 현주소

### 지역소멸 위험지수 더욱 악화

(’20년)4단계, 소멸위험진입 → (’37년)5단계, 소멸고위험\*

\*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0.2 미만인 지역 (한국고용정보원)

### 혼인건수 및 연령대별 미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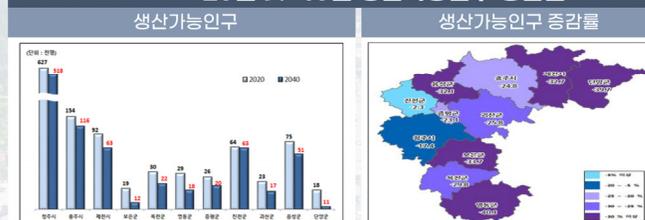


## 01 지방소멸위기 현주소

### (고령화) '23년 노인인구 39.6% → '40년 노인 인구비중 55.5% 전망

- 기대수명 증가, 저출산 가속화로 고령자 비중 빠르게 증가  
\* 65세 이상 인구비율(%) : ('08) 27.3 ('17) 30.5 ('21) 35.6 ('23) 39.6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9,050명) 고령화 진입 본격화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망자수 급증으로 인구 자연감소 불가피
- 생산가능인구<sup>15~64세</sup> 감소, 고령화로 성장잠재력 악화  
- '20년 2.3만명에서 지속 감소, '40년 1.7만명 예상

### '20년 및 '40년 생산가능인구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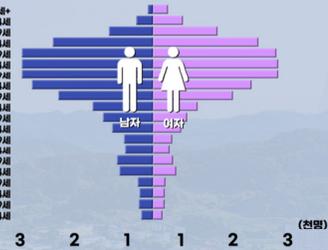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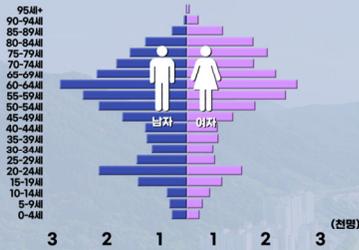
## 01 지방소멸위기 현주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현재 인구추계가 지속될 경우,

→ **유소년 급감에 따른 인구구조 심각한 중형으로 변화, 인구절벽 도래**

과산 20년

과산 40년



## 02 인구감소 원인

02 인구감소 원인

(자연감소) 저출생·고령화, 출생률 저조, 높은 사망률

- (출생률) 조출생률

구분	도	과산	음성	단양
조출생률			3.4	2.1

**2023년**  
출생 64명, 사망 610명  
→ 자연감소 546명

- (사망률) 조사망률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6
조사망률	8.9	6.5	7.9	10.1	18.5	17.1	14.4	7.7	15.9	11.4	16.8		

02 인구감소 원인

(인구이탈) 영유아·청년·여성층, 타지역 전출 (인구이탈)

- 귀농·귀촌 등의 영향으로 인구 순유입이 이뤄졌으나, 최근 전출자 증가로 인구유출 심화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6
순이동(A-B)	+740	+662	+577	+777	+548	+479	+514	+393	+635	△667	△523	+92	△183
전입자 수(A)	4,652	4,995	5,125	5,403	5,156	5,283	5,126	5,515	6,360	5,541	3,924	3,489	1,665
전출자 수(B)	3,912	4,333	4,548	4,626	4,608	4,804	4,612	5,122	5,725	6,208	4,447	3,397	1,848

- 장년층의 인구유입은 증가하는데 반해, 영유아, 청년, 여성층의 수도권 등 도시 전출이 많은 상황

→ 저출산·고령화 더욱 심화

## 03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 03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행정안전부



2021.10.

국회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2023.02.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및  
인구소멸대응기금 지원  
행정안전부



2022.06.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정부



2023.07.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행정안전부



2023.01.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발족  
행정안전부



2023.09.



## 04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04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b>추진배경</b>	인구감소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소멸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b>구성현황</b>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b>대 상</b></td> <td>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b>설립근거</b></td> <td>「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회의 구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b>주요역할</b></td> <td>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발굴 및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협력 확대</td> </tr> </table>	<b>대 상</b>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b>설립근거</b>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회의 구성)	<b>주요역할</b>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발굴 및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협력 확대		
<b>대 상</b>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b>설립근거</b>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회의 구성)								
<b>주요역할</b>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발굴 및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협력 확대								
<b>추진경과</b>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b>'22.11.29.</b></td> <td>준비위원회 발족식 개최</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b>'23.09.25.</b></td> <td>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b>'23.11.30.</b></td> <td>인구감소지역 정책제안서 행정안전부 전달(12개부처/31건)</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b>'24.03.18.</b></td> <td>협의회 사무국 정식 사무실 개소 및 현판식 개최</td> </tr> </table>	<b>'22.11.29.</b>	준비위원회 발족식 개최	<b>'23.09.25.</b>	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	<b>'23.11.30.</b>	인구감소지역 정책제안서 행정안전부 전달(12개부처/31건)	<b>'24.03.18.</b>	협의회 사무국 정식 사무실 개소 및 현판식 개최
<b>'22.11.29.</b>	준비위원회 발족식 개최								
<b>'23.09.25.</b>	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								
<b>'23.11.30.</b>	인구감소지역 정책제안서 행정안전부 전달(12개부처/31건)								
<b>'24.03.18.</b>	협의회 사무국 정식 사무실 개소 및 현판식 개최								
<b>주요성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인구감소지역 100% 협의회 가입</li> <li>- 인구감소지역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정책반영 1호 : 인구감소지역 1가구 2주택 종과세 면제</li> <li>• 정부정책반영 2호 :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li> </ul> </li> </ul>								



## 05 고향사랑기부제

### 05 고향사랑기부제

#### 도입배경 및 목적

**도입배경**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및 경제활동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와 지역간 발전 격차 발생

**목적**

-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
- 지역특산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
- 기부금을 통한 새로운 자원 확보

#### 주요내용

**기부주체 및 대상** 주소지 외의 모든 지자체(광역시, 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 개인 기부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온라인), 농협창구(오프라인)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방지를 위한 답례품 종류 제한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 05 고향사랑기부제

###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현황

\*자료: 국토연구원(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기부총액 650억 6,600만원

기부건수 52만 6,305건(기부자수 51만 4,066명)

###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기부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지방자치단체명	기부건수	기부액	지방자치단체명	기부건수	기부액
전남 담양군	12,146	2,242	전남 영광군	7,111	934
제주(분청)	16,608	1,823	전북 순창군	4,289	878
전남 고흥군	4,428	1,231	전남 영암군	4,957	845
전남 나주시	6,751	1,067	전북 임실군	5,974	693
경북 예천군	5,170	977	경북 안동시	6,132	680

\* 광역지방자치단체 : 전남(143.4억원), 경북(89.9억원), 전북(84.8억원), 경남(62.5억원)

## 05 고향사랑기부제

### 지역별 기부현황

▸ 지방자치단체 평균 모금액 : 2억 6천만원

표 3 모금액별 지방자치단체 분포

모금액 구간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계
지자체 수(비율)	4곳(2%)	27곳(11%)	54곳(22%)	86곳(35%)	49곳(20%)	23곳(10%)	243곳(100%)

⇒ 지방재정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집중

▸ 비수도권 89%, 수도권 11%

### 연령별 기부현황

▸ 30~50대(80%) 비중 높음 ⇒ 세액공제 혜택 등 사유

표 4 연령대별 기부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기부건수	57,040	153,772	141,735	125,963	47,795	526,305
비율	10.8	29.2	26.9	23.9	9.1	100

## 05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금액별 기부현황

표 5 기부금액별 기부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미만	10만 원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기부건수	50,298	18,901	441,291	12,199	1,564	2,052
비율	9.6	3.6	83.8	2.3	0.3	0.4

▶ 10만원(84%)비중 높음

### 시기별 기부현황

모금액의 절반(49%)이 11월~12월 집중 ▶ 상반기 36% ▶ 하반기 64%

### 방법별 기부현황

(온라인) 80.6%(524억원), (오프라인) 19.4%(12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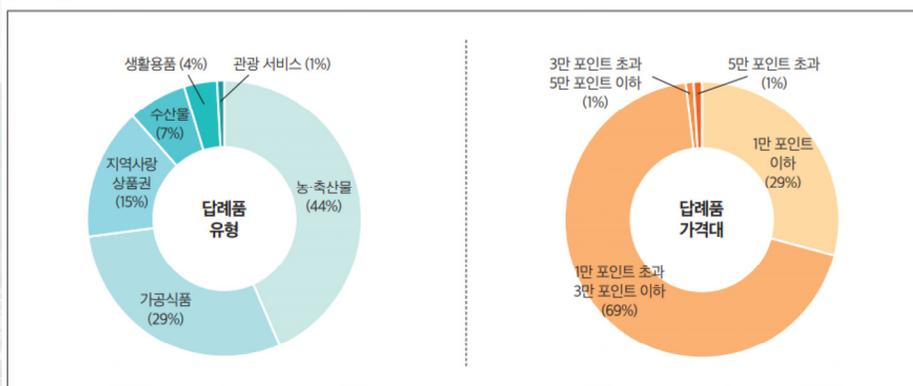
## 05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

- 답례품 선호 유형 및 가격대

- ▶ 농·축산물 및 수산물(51%), 가공식품(29%)
- ▶ 3만 포인트 이하 (93.8%) ⇒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 다수

그림 1 답례품 유형 및 가격대 선택 현황



## 05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방안

기부주체	개인 ⇒ 인구감소지역 한해 기부주체 단계적 확대 ▸ 법인 또는 단체 우선 확대 및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장기 검토
기부금액	▸ 하한액 신설 ⇒ 답례품 지급 행정비용 절감 ※ 일본 하한액 2,000엔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 ⇒ 인구감소지역 세액 한도 상향 ▸ 은퇴자, 비취업자 등 세액공제 혜택 받지 못하는 기부자 대상 답례품 추가 지급 검토

## 05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방안

모금주체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국한 ▸ 국민이 인식하는 고향의 공간적 단위 적용 ▸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모금주체로서 역할 중복
답례품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 ▸ 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모금창구	- (모금창구) 고향사랑e음 및 농협창구 ⇒ 모금창구 다각화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모금 및 답례품 신청 개선 ▸ 민간 모금 플랫폼 도입 및 운영

2024 인구감소시대,  
인구소멸 현주소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방안 제언

**감사합니다**



발표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발제 : 차 미 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방안 연구(연구수행기관: 국토연구원)를 요약하였음

## CONTENTS



- 1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 현황
- 2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용 사례와 시사점
- 3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과제 제안
- 4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 1

### 01 |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 및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간 발전 격차 문제 심화, 지역간 재정 격차 심화와 열악한 지방 재정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 마련

#### 목적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도모
- 고향에 대한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

#### 법적 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21.10 제정, ’23.1 시행)

#### 주요 내용

- (기부주체 및 대상)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법인 불가), 기부 한도 연간 500만원\*  
- 세액 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모금방법) 대중 광고매체를 활용  
- 금지 활동 : 개별·호별 모금,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의한 권유 독려
- (답례품)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기부금액의 30% 이내(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 (기금활용 사업등) 4개 분야\* 활용 / 기부금 접수현황, 기금운용 결과 공개  
- ①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포함) 지원, ②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 ④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 01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요

### 고향사랑기부금법 주요 내용

- ✓ 고향사랑기부금의 설치 및 운용(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등)
  - (기금 설치)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야 함
  - (기금 운용 목적)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기부금 관리·운용)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 10억 원 이하)으로 충당 가능
  - (타 사업과의 관계) 고향사랑기부금을 위의 기금의 운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
  - (모금·운용 현황 공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기부금의 접수·운용\* 현황을 공개
    - \* 기부금 접수 현황, 기금 사용 내역, 답례품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등

5

## 01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요

###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단계별 주요 내용

- ✓ 고향사랑기부금의 운용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등에 따름
  - (주요 내용)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후 의결
    -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 확정  
(전년도)



- (수립) 기금운용계획 수립
- (협의/조정) 예산부서 협의 및 조정
- (심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확정)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기금사업 관리(집행)  
(회계연도)



- (수입금 현황, 집행) 기금운용 관리
- (계획 변경 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

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다음 연도)



- 결산보고서 작성
- 기금운용성과분석 실시
- 기금결산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 지방의회 제출
- 성과분석 결과 통보 및 공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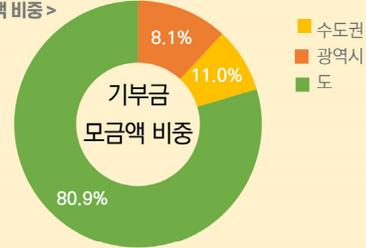
## 02 고향사랑기금 운용 현황 (2023년 52만명, 650억원 모금)

### 광역지자체별 고향사랑기금 모금 현황

구분	기부 건수	모금액(백만원)
<b>전국</b>	<b>526,305</b>	<b>65,066</b>
서울	27,385	2,481
부산	15,354	1,274
대구	8,808	747
인천	8,629	773
광주	12,591	1,516
대전	6,441	628
울산	9,193	985
세종	1,587	145
경기	41,009	3,906
강원	44,293	5,295
충북	21,922	3,112
충남	37,758	4,317
전북	63,625	8,481
<b>전남</b>	<b>92,761</b>	<b>14,336</b>
경북	<b>66,001</b>	<b>8,999</b>
경남	52,340	6,248
제주	16,608	1,823

자료 : 행정안전부

<지역별 모금액 비중>



<월별 기부건수 및 모금액>

(단위 : 건,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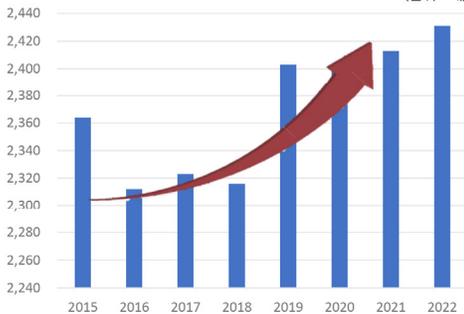
월별	기부건수	모금액	모금액 비중
1월	26,151	4,470	6.9
2월	28,361	4,305	6.6
3월	36,068	4,790	7.4
4월	25,778	3,993	6.1
5월	21,172	3,094	4.7
6월	17,630	2,658	4.0
7월	15,755	2,229	3.4
8월	15,767	2,166	3.3
9월	21,727	2,690	4.1
10월	20,359	2,686	4.1
11월	49,782	5,901	9.1
<b>12월</b>	<b>247,755</b>	<b>26,084</b>	<b>40.0</b>
계	526,305	65,066	100.0

## 참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현황(2023)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수와 조성액은 증가 추세이며, 2022년 기금당 평균 조성액은 231억 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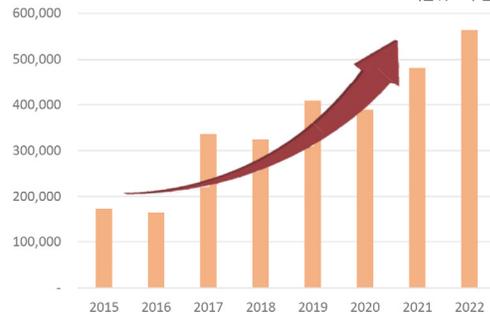
<기금 수>

(단위 : 개)



<조성액>

(단위 : 억 원)



(단위 : 개,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금 수	2,364	2,312	2,323	2,316	2,403	2,400	2,413	2,431
조성액	172,664	162,877	336,127	324,341	408,543	388,863	482,309	563,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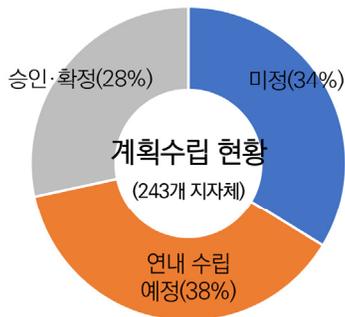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03 고향사랑기금 사업 현황 및 사례(2023.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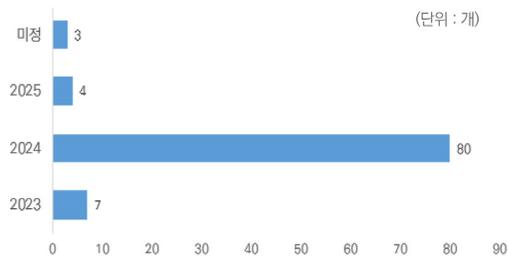
#### '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수립 현황

- (자료) 행정안전부 업무연락을 통한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결과(2023.10월 기준)
- (현황) 243개 지자체 중 36개 지자체(14.8%)의 92개의 기금사업 사례 조사(동일 지자체 중복사업 제외)
  - (지역별) 전남(21건), 경남(20건), 광주(18건), 충북(7건), 전북·경북(6건), 충남(4건), 서울·대구(3건), 울산·제주(2건)

<2024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현황>



<연도별 기금사업 시행 계획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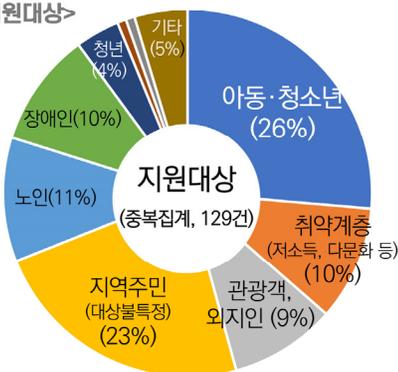
💡 (수립 현황) 69개 지자체 계획 확정, 92개 지자체 연내 수립 예정 / 2024년 총 80개 사업 추진 예정

### 03 고향사랑기금 사업 현황 및 사례(2023.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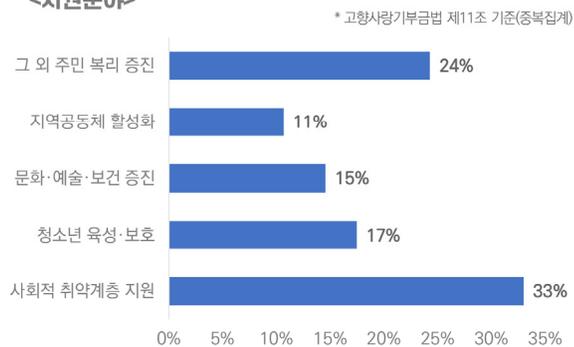
#### 고향사랑기금의 지원사업과 분야(2023~'25)

- (지원대상) 아동·청소년(26%), 지역주민 전체(23%), 노인(11%), 취약계층(10%) 순으로 집중
- (지원분야) 「고향사랑기부금법」 분야로 구분 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33%), 주민 복리 증진(24%) 순으로 높음
  - (세부분야) 복지(35%), 보육·교육(23%), 문화·예술·관광(14%), 마을만들기(8%), 환경(7%), 기타(6%), 안전·재난재해(5%), 지역산업육성(3%)

<지원대상>



<지원분야>



💡 (대상) 아동·청소년, 지역주민, 노인 중심 / (분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주민 복리 증진 중심

### 03 고향사랑기금 사업 현황 및 사례(2023.10월 기준)

#### 고향사랑기금 사업 유형별 사례

지원 대상	사업명(지역명)
아동·청소년	• 야간, 휴일 소아청소년 진료서비스 지원사업(경북 경신),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드림과이어" 멈추지 않는 하모니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지원사업(경남 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광주 남구) 등
지역주민 (대상불특정)	• 100원 발래방 마을공동 운영(전남 나주),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광주 동구), 태양열 우편함 안심공목길 조성 사업(경남 통영),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제주), 고향사랑 연극 공연(경남 밀양) 등
저소득, 다문화, 돌봄필요가정 등	• 의료후불제 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사업(충북),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및 퇴원환자 통합돌봄(전남 담양),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경북 영양), 램프요정 지니 프로젝트 "너의 소원을 말해 봐" 사업(경남 창원) 등
관광객, 외지인	• 서울에서 가장 예쁜 장미축제 활성화를 위한 "장미도시 조성"(서울 중랑구), 밀양시 고향알기 프로그램(경남 밀양) 등
노인	•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광주 남구), 독거어르신 건강돌봄 로봇 구입지원(전남 순천) 등
장애인	• 발달장애인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광주 동구), 장애인 휴대용 경사로 지원사업 "턱을 넘어서"(경남 김해) 등
청년	•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울산 동구), "정황을 알다" 청년지역탐방 사업(전남 장흥), 구미명 에너지 사업(경북 구미) 등
신혼 및 임신가구	• 신혼(임신)부부 예방접종 지원사업(울산 남구)
기업	• 지역상생형 V-ESG 자원봉사 프로젝트(광주 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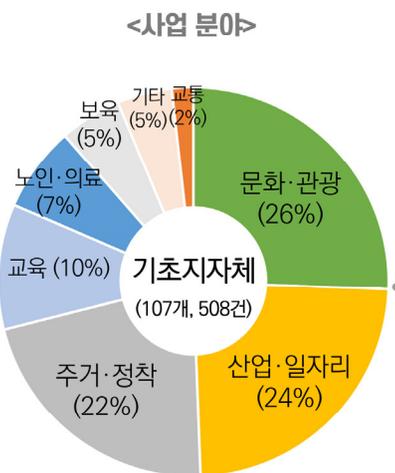
  

지원 분야	사업명(지역명)
환경	• 순천만 갯벌 블루카본 강화 사업(전남 순천), 골벌 살리기 프로젝트 "창원시 밀원수림 특화단지 조성" 사업(경남 창원), 평두메습지, 어린이 램사르습지 탐사대 운영(광주 북구) 등
주거, 인프라	• 농어촌민박 리모델링 지원사업(대구 군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충북 진천), 고향사랑 조형물 설치 사업(경남 밀양), 담양읍 상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전남 담양) 등
문화, 예술, 관광	• 북구의 작가를 찾아라 북구 무등문학상 운영(광주 북구), 고향사랑 나라사랑 "망우역사문화공원 자연힐링공간 조성"(서울 중랑구), 찾아가는 "내사랑 긴해공원" (경남 김해),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전남 광양) 등

11

### 참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사례('22~'23년)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유형 및 현황('22~'23)



자료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전성민 외(2022), 박성남 외(2023)

사업 분야(건수)	기금사업 명(지자체명)
문화·관광 (130건)	• 농산촌 체험형 생활인구 지원(강원 평창, 살아봐요 장항위계 이션 '위메'(충남 서천), '제천 더 오래'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 사업(충북 제천) 등
산업·일자리 (121건)	• 산촌 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충북 괴산), 청년창업농 스마트 팜 단지 조성·지원 사업(전북 고창), 귀농·귀어 기업승계자, 스마트한 부자만들기 프로젝트(전남 진도), 식물 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 사업(경기 연천) 등
주거·정착 (110건)	•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충남 논산),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전남 고흥),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전남 장흥), 산단 생활지역 정주환경 개선 사업(경남 고성), 빈집·농지 통합플랫폼 구축(전남 해남) 등
교육 (53건)	• 도담도담 마을로 이어지는 곡성유학 완성(전남 곡성), 지리산 권 인재양성 프로젝트 : 훈항골 인재학당(전북 남원) 등
노인·의료 (36건)	• 100세 팔팔 건강자킴이 스마트 경로당 설치(전남 신안) 등
보육 (26건)	•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충북 단양), 공공산후조리원 조성(강원 영월), 소아 외래진료센터 건립(충남 보령) 등
기타(23건)	•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정원 조성(강원 양구) 등
교통(9건)	• 버스공영제 고도화로 소외 없는 교통케어(강원 정선) 등

**(대상) 청년(74개) 중심 / (분야)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정착 순 / H/W, 생활인구, 장기거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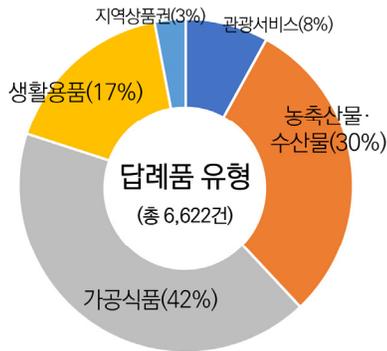
12

## 04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2023.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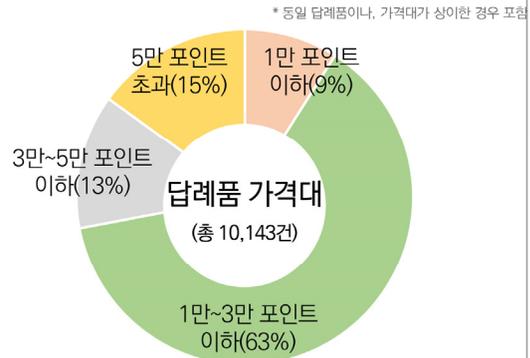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

- (유형) 총 6,622건의 답례품 중 가공식품(42%)과 농축산물·수산물(30%)이 가장 많은 비율 차지
- (가격대) 제공되고 있는 답례품은 대부분 3만 포인트 이하(72%)로 구성

<답례품 유형>



<답례품 가격대>



💡 (유형) 가공식품, 농축산물·수산물, 생활용품에 집중 / (가격대) 3만 포인트 이하 중심

13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용 사례와 시사점

2

## 01 고향납세제도 개요

### 추진 목적

- 2008년 도입된 고향납세제도는 도시와 지방의 행정수지 불균형 시정을 목적으로 하며, 고향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에 대한 관심도 제고
  - 납세자가 기부지역을 선택도록 하여 지역(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

###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하여 고향납세 제도 근거 마련 ('08.4 제정)

### 추진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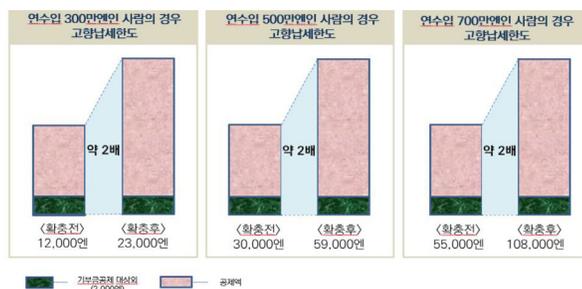
- (2011년) 기부금 세제 적용 하한액 인하
    - (기존) 5,000엔 → (변경) 2,000엔
  - (2015년) 특례공제 상한액 인상 및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
    - 상한액 : 개인주민세 소득할액의 1할에서 2할로 인상
  - (2016년) 기업판 고향납세(지방창생응원세제) 신설
    - 세액공제 비율 확대(2020년), 인재파견형 추가(2020년)
  - (2019년) 고향납세 지정 제도(지정기부) 도입
  - (2023년) 필요 경비 처리 및 답례품 기준 강화 조치
    - 고향납세 필요 경비 처리 확대, 기부금액 50% 한도 내에서 필요 경비 활용, 지연산업에 의한 생상품 기준 강화\*
- \* (답례품 인정 제외) ① 다른 지자체와 외국산 고기를 구입하여 숙성한 답례품, ② 다른 지역의 쌀을 정미하여 답례품으로 하는 경우, ③ 지역내 생상품과 다른 지역 생상품을 세트 구성한 경우, ④ 지역내 생상품의 비율이 낮은 경우 등

## 참고

## 고향납세제도 개편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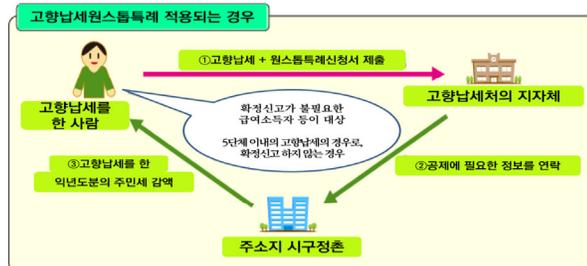
### 고향납세 공제한도 2배 확대

- 2015년 1월 이후, 고향납세 공제한도를 10%에서 20%로 2배 확대



###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 신설

-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 등이 고향납세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도 고향납세의 기부금 공제를 받는 제도(2015년)



## 참고 고향납세제도 개편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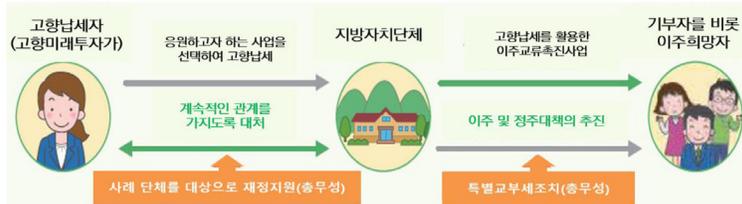
### 고향 창업가 지원 사업 지원

- 일본 총무성에서는 클라우드펀딩형의 고향납세를 추진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가지원 사업을 추진
- 지역경제 선순환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클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기업가에 자금을 제공



### 고향이주 촉진프로젝트 지원

- 지자체는 클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이주교류촉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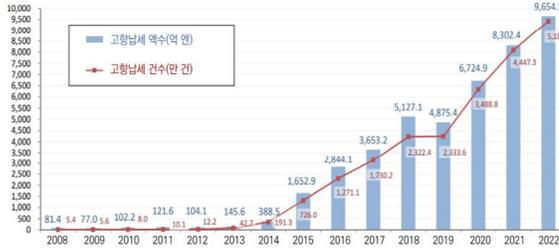


## 참고 (한국) 고향사랑기부금과 (일본) 고향납세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	고향납세제도(일본)
도입 시기	2023년	2008년
도입 방식	고향사랑기부금법(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
기부 대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 개인	주소지 지자체 포함 개인 및 기업(법인), 주소지에 기부 가능
기부 한도	연간 500만 원, 하한 없음	상한액 없음, 하한액 2,000엔 *개인의 소득, 가족구성등에 따른 세액공제 상한액은 있음
모금 시스템	고향e음 시스템 (공공 구축)	초기는 수기, 2012년 이후 민간 모금시스템 도입 (현재 40여 개 사이트 운영 중)
세액 공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초과분의 16.5% 공제	개인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 차등 적용 (소득, 가구원에 따른 평균 공제상한액 7.2만 엔)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 *그 밖에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함	조달비용 및 해당 자치단체의 생산품으로 제한하는 것은 동일하나, 인접한 지자체 간의 협력하여 생산된 경우(원재료 생산 및 가공 등)에는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해당 지자체들이 모두 답례품으로 제공 가능
경비* 제한 기준 * 답례품 송부, 홍보, 결제비용 등	기부금액의 15% 이내	기부금액의 2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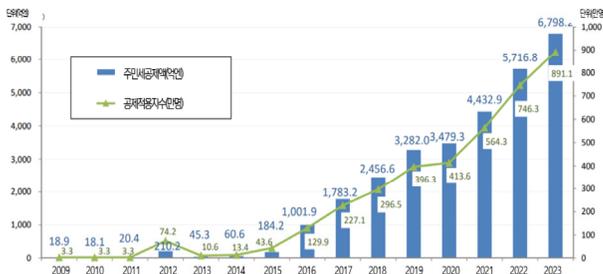
## 02 고향납세제도 운용 현황

고향납세 액수 및 건수(2008~2022)



- 고향납세제도 도입(2008)
  - 답례품 지급 방식 도입(2014)
  -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절차 간소화)(2015)
  - 기업판 고향납세 시작(2016)
  - 고향납세 기부액 약 10조 원 달성(2022년 기준)
- 모금 시, 기부자가 구체적 기금사업도 선택 가능

고향납세 공제액 및 공제자수(2009~2023)



- 기부금액 증가에 따라, 공제액 및 공제자수 증가
  - '15년 원스톱제도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
  - '22년 기준 전체 고향납세액 대비 세액공제액은 약 60% 차지 (전년 대비 7%p 증가)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3.8.1)

19

## 02 고향납세제도 운용 현황

고향납세 사용처 선택 (지정기부)

고향납세 모집 시 사용	'23년('22년도) 결과 단체 수(비율)	'22년('21년도) 결과 단체 수(비율)	'21년('20년도) 결과 단체 수(비율)	
선택 가능(지정)	1,745 (97.7%)	1,746 (97.7%)	1,736 (97.1%)	
선택 불가능(비지정)	41 (2.3%)	42 (2.3%)	65 (2.9%)	
'선택 가능' 범위	분야 선택 가능	1,677 (93.9%)	1,698 (95.0%)	1,673 (93.6%)
	구체적 사업 선택 가능	431 (24.1%)	460 (25.7%)	449 (25.1%)
	* 클라우드펀딩형	337 (18.9%)	318 (15.9%)	285 (15.9%)

고향납세 기금의 사용처 현황

(단위 : 백만원, 천 건, 지자체 수)

구분	모금액	모금건수	지자체 수	구분	모금액	모금건수	지자체 수
아동, 육아	122,202	6,742	909	건강, 의료, 복지	47,309	2,528	1,180
교육, 인재육성	67,201	3,454	974	관광, 교류, 정주촉진	28,328	1,339	707
지역, 산업진흥	62,278	3,522	1,076	스포츠, 문화진흥	21,027	924	761
마을 만들기, 시민 활동	49,761	2,849	866	안심, 안전, 방재	17,493	932	634
환경, 위생	49,022	2,569	1,018	재해 지원, 부흥	4,484	262	239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3.8.1) 20

## 03 고향납세 기금사업 사례

### 스마트 농업촉진 사업 (미야자치현 미야코노조시)

- 지원 대상 : 지역주민
- 지원 분야 : 경제·산업, 인프라
- 지원 목적 : 지역의 기간산업인 농림·축산 분야에 스마트기술(AI, ICT 등)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화
- 지원 내용
  - 농업인 및 관련기관 대상 선진사례 세미나 개최
  - 농업용 드론 등 스마트 농업기기 도입 지원

### 방과후 아동클럽 사업 (미야자치현 미야코노조시)

- 지원 대상 : 아동·청소년
- 지원 분야 : 교육, 보육
- 지원 목적 : 맞벌이가정, 취약계층 등 보육 공백을 겪는 초등학교생 대상 놀이 및 생활 공간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 도모
- 지원 내용
  - 방과후 또는 휴일에도 아동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아동클럽) 조성
  - 2022년 기준, 2곳의 아동클럽 신규 개설 등 서비스 향상 도모

### 지역 보물 보여주기 사업 (나가사키현 히라도시)

- 지원 대상 : 관광객, 지역주민
- 지원 분야 : 역사·문화, 체험·관광, 지역·산업
- 지원 목적 : 히라도시(長崎県平戸市)의 역사문화자원 재생 및 활용을 통한 교류인구 확대
- 지원 내용
  - 역사문화자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전활용
  - 관광시설 리뉴얼 및 루트 다양화
  - 시티 프로모션 추진으로 지역 매력 확산
  - 관광객 수입 환경 정비
  - 지역주민 및 방문객 확대 수용 체제 재구축 등



히라도시 홈페이지 및 노트뉴스(2023.10.16)

## 참고 일본 고향납세 활용 사례(2022)

### 일본의 고향납세 활용사례(2022)

교육·육아		지역·산업부흥	
· 지역 과제를 배워 지역의 미래를 개척	홋카이도 유바리시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철도 활성화	이와테현
· 고향납세로 매력 있는 농업학교 만들기	홋카이도 엔베츠초	· 기업과 고향납세와의 연계를 통한 청년 유턴	토야마현 다테야마초
· 육아 지원의 충실로 인구 증가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초	관광·교류	
마을 만들기·스포츠		· 80년 된 목조 폐교사를 사람이 모이는 거점으로	후쿠시마현 쇼와촌
·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향납세로 마을 만들기에 동참	홋카이도 니세코초	· 역사적 가치가 있는 열차역의 재생과 변화가 창출	시가현 히노 정
·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마을을 활성화	군마현 다카사키시	· 고향에 애착을 갖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살리다	돗토리현 히노 정
· 소생하는 센조우산 만 그루의 벚꽃	돗토리현 코토우라초	· 지역부흥협력대에 의한 인터내셔널 세어하우스 개업	오카야마현 마니와시
· 요로 마라톤대회를 통한 교류인구 확대	가고시마현 요로초	환경	
문화·역사		· 귀중한 습지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 추진	아이치현 오와리아사히 시
· 기부자에 의한 사업 참여형 고향납세로 교류인구 확대	아이오리현 히로사카시	· 아름다운 산호초 바다를 지키고 싶다	오кина와현 요미탄손
· 구마모토 지진 재해 도자기 재생 프로젝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안전·부흥	
· 가이아 성을 복원하여 역사 낭만이 넘치는 마을만들기	아이치현 카라야시	· 생명을 지키는 '재해 구조견' '세러피견' 육성하기	토쿠시마현
복지		·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후쿠오카현 후쿠오카 시
· 생명을 이어주는 '어린이 가구 식사 제공'으로 아이와 가족을 구하고 싶다	도쿄도 분교우구	· 구마모토 지진으로부터의 복구, 부흥을 위해	쿠마모토현 쿠마모토 시
· "타고가자 : 넷코라이" 과소지의 교통 수단 확보	미에현 구마노시		

자료 : 총무성 고향 납세 활용 사례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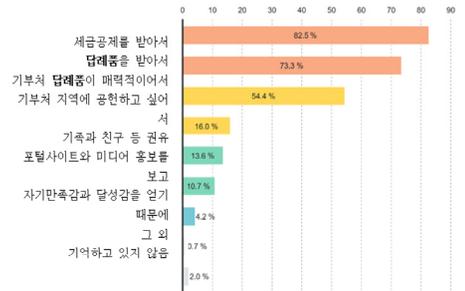
## 04 | 일본 제도 운영의 시사점

### ✓ 중앙정부 '지방창생정책'과 연계하여 제도 개선 및 진화

- (문제의식)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자신을 키워준 고향에 자신의 의사로 얼마든지 납세 가능한 제도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창생정책의 주요 시책으로서 제도적 진화\*를 거침
- \* 개인 → 기업판 고향납세 확대, 개인 소득과 연동한 세액공제 차등 적용 등

### ✓ 지역 향토·특화 산업 기반의 답례품 개발과 협력 중시

- 고향납세의 주요 이용 계기로 '세금 공제'(82.5%)와 '답례품을 받아서'(73.3%), '답례품이 매력적이어서'(54.4%) 순으로 나타남
- 인접 지자체 간 협력 생산의 경우(원재료 생산 및 가공 등)에는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해당 지자체들이 모두 답례품으로 제공 가능



자료 : 2022년 고향납세 이용자 10,816명 대상 조사 (사무엘러리 홈페이지 인용)

### ✓ 납세자와 지자체 간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구축 모색

- 납세자는 자발적 기부(지정기부)를 통해 지역발전 촉진
-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 부족 해소,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연계 운용

23

## 고향사랑기부 제도개선 제안

3

# 01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추진 방향

##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및 운용 방향

- (기본방향) ①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② 지역경제 활성화, ③ 국가 균형발전 기여
- (기금사업 발굴 및 운용 방향)  $f(\text{지역다움} + \text{지역활력 및 경제력} + \text{지역 주민의 삶의 질} + \text{생활 및 관계인구} + \text{지속가능성})$



##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 전략

- 1 기부자와 지역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 참여' 촉진 (개인의 자발적 기부 촉진,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 확산)
  - 기금 목적(유형별)과 부합하면서 기부자 선호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과제 해결형 사업(공익성)' 발굴 필요
  - 기부자 및 지자체(지역주민) 주도의 기금사업 발굴, 기금사업 및 운용 현황 공개 등 투명성 제고를 통해 지속적 기부 유도
- 2 기부자의 생활·관계인구 전환 촉진 (인구감소시대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역활력 증진)
  - 생애주기·지역과의 관계·체류강도 등 관계인구 특징을 토대로 외부 인구를 '단계적'으로 이끄는 전략 필요
- 3 타 사업·지역과의 연계·협력 촉진 (기금사업의 효과성 제고) +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차별성 확보 필요
  - 타 기금사업(복지증진 목적의 기금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의 연계\*, 타 지자체와 연계·협력\*\* 방안 마련

\* 종료 사업의 후속 사업, 추진 중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부문 확대, 추진 중 또는 기 추진 H/W 사업에 S/W 사업 지원 등  
 \*\* 광역제휴형 사업 발굴,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예, 공공 산후조리원 공동 건립 및 이용 지원, 공동 관광루트 개발 등), 인구감소지역-비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예, 농산어촌 유학 지원, 로컬푸드 생산 및 판매 지원, 농촌체험교실 지원 등)

# 01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추진 방향



- ✓ (기부자 참여) 기부자 참여형 기금사업 발굴 확대
  - 기부자 직접 제안형 기금사업 발굴(공모전 등)
  - 기부자가 기금사업을 자율적 선택 후 기부(지정기부)
- ✓ (지역과제 해결) 지역과제 해결형 기금사업 발굴 확대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과제를 구체화한 기금사업 발굴
  - \* 시민참여 결정형(시민 공모에 의해 기금사업 및 목표금액 제안, 검토 위원회 심의 및 재검토 등)
- ✓ (공개·투명성) 기금사업 운용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기부자 및 지역주민 대상 '기금 모금·기금사업 운용 현황' 공개 등
  - 기금사업 운용 단계 모니터링 실시
- ✓ (연계·협력) 타 사업·지자체와의 연계·협력 촉진
  - 타 기금사업(주민 복지증진 목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타 지자체와 연계·협력사업 발굴·추진 등
- ✓ (성과평가) 기금사업 운용 성과 평가
  - 핵심성과지표(KPI)(목적, 대상 등), 기금 집행률 등 기금사업 운용 성과 평가 등
- ✓ (모니터링 및 환류) '기부자 및 지역주민 체감' 모니터링 및 환류
  - 기부자 수요 및 반응 모니터링, 기금사업 성과 주민체감 모니터링 실시
  - 제도 및 기금사업 관련 환류·조정(기금사업 운용 결과 안내 및 기부자 대상 만족도 조사, 기부자 초청 행사 개최) 등

<선호 기금사업 용도>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금 인식조사( '22.11월)

## 02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과제 제안

### 분석 목적

-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애로사항 및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도출

### 분석 범위

- 의안정보시스템 (\*22.10월~현재)
  - 기부대상, 기부주체 등 17개 의안발의 내용 분석
- 243개 지자체(광역시, 기초)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 (\*23.10~11월) 답례품 개발, 홍보, 모금방법 등 제도 운영 애로사항과 제안 수렴(회수율 88%)
  - (\*23.12월) 민간 모금플랫폼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의견 수렴(회수율 42%)
- ‘고향사랑 기부금’ 전국 시·도 연구원 권역별 협력포럼
  - 권역별 제도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제안 분석 및 정리

### 분석 내용

- 제도개선 제안 분석
  - 기부주체, 기부금 상한액·하한액, 세액공제, 모금 시스템 운영, 홍보 활성화 등

27

## 03 중점 개선과제별 검토 방향

### 기부 주체

- (배경 및 필요성) 기부 주체 대상을 확대해 기부 문화 확대, 제도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등을 도모
    - (현행)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 한해서 기부 가능
    - (제안)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해외 동포, 외국인 등으로 확대
  - (검토 방향)
    - (단기) 지역주민(인구감소지역 주민에 한해 적용), 법인 또는 단체\*(주사무소 소재지 외 기부 허용), 해외 동포, 외국인으로 확대
    - (중장기) 지역주민(인구감소지역+비인구감소지역 모두 포함), 법인 또는 단체\*(주사무소 소재지 포함 기부 허용) 등
- \* 지역에서 운용계획에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그중 국가가 인정한 기금사업에 한해 기부 허용

### 기부 금액

- (배경 및 필요성) 기부 금액 제한 완화를 통해 제도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 도모, 하한액 신설로 지자체 행정비용 절감
  - (현행)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 원
  - (제안) 개인별 연간 상한액 증액 및 하한액 신설
- (검토 방향)
  - (단기) **개인별 연간 상한액 2,000만 원으로 확대**, 하한액 신설(답례품 개발 등의 소요비용 고려, 일본은 2,000엔 설정)
  - (중장기) 개인의 연간 상한액 폐지

일부개정  
(\*24.2)

28

### 03 | 중점 개선과제별 검토 방향

#### 세액공제

- (배경 및 필요성)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제도 활성화 도모
  - (현행)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세액공제 비율 100%,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적용
  - (제안) ① 세액공제 한도 상향, ② 세액공제 비대상자 인센티브 마련 등
- (검토 방향)
  - (단기) ②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개인(은퇴자, 비취업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제공 등
  - (중장기) ①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는 세액 공제 한도 축소 또는 현행 유지, 인구감소지역은 세액 공제 확대

#### 모금 주체(지역)

- (배경 및 필요성) 국민들이 인식하는 고향의 공간적 단위 및 수도권의 계속 거주 인구비중 증가 등을 고려할 필요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역할 중복 및 기초 지자체 대비 광역 지자체의 기부 금액 저조 등의 문제 대두
  - (현행) 전체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제안)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기부지역 제한, 광역 지자체 및 수도권 제외, 광역 지자체의 경우 구·군 통합하여 모금 등
- (검토 방향)
  - (중장기) 광역 지자체 제외, 기초 지자체만 기부금 모금 허용 / 광역 지자체는 구·군 통합하여 광역 지자체에서 모금

29

### 03 | 중점 개선과제별 검토 방향

#### 모금 방법 및 모금 시스템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기부 활성화를 위해 ① 모금 방법 다각화, ②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등 필요
  - (현행) 온라인(고향사랑e음), 오프라인(농협 창구)에서만 기부 가능
  - (제안) ① 민간 모금플랫폼 도입 등 모금 창구 다양화, ② 기부시간 확대, 답례품·기금사업 목록 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
- (검토 방향)
  - (단기) ② 24시간 기부 허용, 답례품 목록 개선, 답례품 선택 후 남은 포인트 재기부 허용, 고령기부자 시니어 앱 운영 등
  - (중장기) ① 민간 모금플랫폼 도입 및 운영\*(카카오·네이버 등을 활용한 기부, 그 외 민간 모금플랫폼 운영 허용 등), ② 가족 간 포인트 합산 제도 도입 및 운영 등

\* 도입 시기(향후 2년 후),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고도화·안정화에 대한 의견 다, 기부자 개인정보 확인 및 적정 수수료 책정 등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

#### 홍보 방법

일부개정  
(\*24.2)

- (배경 및 필요성) 사적 모임 등에 대한 홍보 규제에 의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고, 모금이 쉽지 않은 상황
  - (현행) 호별 방문, 개별적인 전화·서신,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홍보 불가
  - (제안) 홍보방법 규제 완화(사적모임 홍보 허용 등), 중앙부처-지자체 제도 홍보 역할 분담 등
- (검토 방향)
  - (단기) 호별 방문, 개별적인 전화·서신 외 홍보 방법 허용, 중앙부처와 지자체 홍보 책무 강화(행안위(\*23.11)), 중앙부처-지자체 간 역할 분담(중앙부처-KTX, 전광판 등을 통해 제도 홍보, 지자체-지역 소개, 지역별 기금사업 및 답례품 등 홍보)

## 03 | 중점 개선과제별 검토 방향

### 답례품 개발 및 비용

- (배경 및 필요성) 지속적 기부 유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①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 ② 비용 지출 근거 마련 필요
  - (현행) ①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② 답례품 비용 지출 근거 부재
  - (제안) ① 답례품 선정 기준 완화, ② 답례품 비용 지출 근거 마련
- (검토 방향)
  - (단기) ② 답례품 비용 지출 근거 마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 비용으로 충당 가능, 행안위('23.11))
  - (중장기) ① 해당 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역은 지역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 기타

- (제도 명칭) 고향에 대한 인식 변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을 고려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명칭을 '지역사랑기부제' 등으로 변경
- (민간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허용(운영비는 기금사업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기부자 개인정보 열람) 공공 및 민간 모금시스템 상에서 정보 제공, 홍보 등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얻은 기부자에 한해, 지자체가 기금사업 추진 현황, 축제 등 지역 소식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허용
- (오프라인 창구에서 답례품 선택) 농협 창구에서도 기부 후 답례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타 지자체 사례 공유) 고향사랑e음 등에서 타 지자체 기금사업, 답례품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

## 참고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제안 분석

### 제도 개선 제안

구분	의안정보시스템	지자체 실무자 의견	권역별 시도연구기관 포럼	행안위('23.11월)
기부 주체	- 지역주민 포함 - 법인 또는 단체 포함 - 해외 동포 포함 - 외국인 포함(정보 제공)	- 지역주민 포함 - 법인 또는 단체 포함	- 지역주민 포함 (인구감소지역에 한함 등) - 법인 또는 단체 포함 (주사무소 소재지 외 기부 허용, 답례품 미제공 등)	
기부금액	- 상한액 상향 - 상한액 폐지	- 상한액 상향, 상한액 폐지 - 하한액 설정	- 상한액 상향	- 상한액 상향 (2,000만 원)
세액 공제		- 세액 공제 한도 상향 - 세액 공제 이월 허용 - 세액 공제 비대상자 인센티브 마련 - 세액 공제 비대상자에 답례품 지급 비율 상향	- 세액 공제 한도 상향 - 세액 공제 비대상자 인센티브 마련(은퇴자, 저소득층 등)	
기부 방식	- 지정기부 허용	- 지정기부 허용	- 지정기부 허용(클라우드 펀딩)	- 지정기부 허용
모금 주체(지역)	- 기부지역 제한 (인구감소지역 한정)	- 기부지역 제한(광역시·도 제외) - 광역지자체의 경우, 구, 군 통합 모금	- 기부지역 제한(광역시·도 제외, 수도권 제외)	
기금사업 추진	- 법령상 분야 외 허용 (지자체별 자율 수립)	- 법령상 분야 확대(환경개선 등) - 지자체 자율 확대 - 기금사업 업무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공		

32

## 참고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제안 분석

### 운영 관리 개선 제안

구분	의안정보시스템	지자체 실무자 의견	권역별 시도연구기관 포럼	행안위('23.11월)
답례품 개발 및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 불가 답례품 (사회질서위반 물품 추가)</li> <li>- 사회적, 중소, 여성, 장애인기업 지원 강화</li> <li>- 답례품 비용 지출 근거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례품 선정 기준 완화(OEM 생산 등)</li> <li>- 지자체 대표 답례품 발굴 촉진</li> <li>- 답례품 비용 지출 근거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례품 개수 제한</li> <li>- 수도권 등 농수산 특산품이 부재한 지역은 지역간 협약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례품 비용 지출 근거 마련(답례품 관련 필요경비 사용 확대)</li> </ul>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전략 확대</li> <li>- 전자매체 활용</li> <li>- 사적모임 홍보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방법 규제 완화 및 기준 명확화</li> <li>- 불법적 모금행위 방지</li> <li>- 중앙부처-지자체의 제도 홍보 역할 분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방법 규제 완화 (개별 홍보 허용 등)</li> <li>- 중앙부처-지자체 제도 홍보 역할 분담(중앙 : 제도에 대한 홍보, 지자체 : 기금사업과 답례품 홍보 전담)</li> <li>- 홍보 범위 확대(관할 구역 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금방법(홍보) : 원칙 허용, 예외 금지</li> <li>- 중앙부처, 지자체의 홍보 책무 강화</li> </ul>
모금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창구 다양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창구 다양화</li> <li>- 민간 모금플랫폼 도입 허용 (반대 의견도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창구 다양화(지로납부, ATM기 납부, 이동형 농협창구 운영 등)</li> </ul>	

33

## 참고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제안 분석

### 운영 관리 개선 제안

구분	의안정보시스템	지자체 실무자 의견	권역별 시도연구기관 포럼	행안위('23.11월)
고향사랑e음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기부 허용</li> <li>- 유지관리비 경감 및 차등 적용</li> <li>- 관리비용 국비 지원</li> <li>- 포인트 소멸 기한 안내</li> <li>- 기부자 대상 설문조사 추가</li> <li>- 기부절차 간소화</li> <li>- 답례품 주문접수시 공급업체에 문자 알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절차 간소화</li> <li>- 답례품 목록 개선 필요(선택 순위별 등)</li> <li>- 답례품 선택 후 남은 포인트의 재기부 허용 (전북 완주군은 답례품에서 '잔여포인트 모아 기부' 운영)</li> <li>- 고향기부자 대상 시니어 모드 운영</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명칭 변경(지역사랑나눔제 등)</li> <li>- 타 지자체 사례 및 정보 공유</li> <li>- 지역 기부실적 공개 금지</li> <li>- 담당자 교육, 전담 인력 총원</li> <li>- 포괄적 금지보다 제한적 규제 방식 운영</li> <li>- 기부자의 개인정보 열람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li> <li>- 기부금 관련 자료 및 정보 공개 필요</li> <li>- 타 기금,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li>- 오프라인에서도 답례품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li> </ul>	

참고 : 의안정보시스템('22.10~'23.11), 지자체 실무자 의견 조사 결과(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6차, '23.10.23.), ② 지자체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23.10~11월, '23.12월), '고향사랑 기부금' 전국 시·도연구원 협력 포럼('23.8~'2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된 법령 개정안 내용('23.11.2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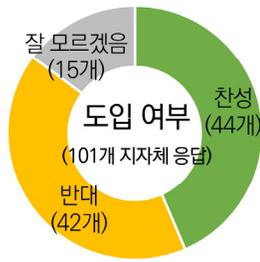
**참고**

**민간 모금플랫폼 도입에 관한 의견(2023.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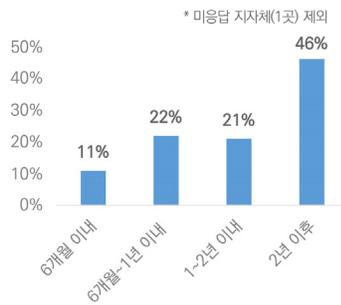
**민간 모금플랫폼 도입 의견 조사**

- (도입 여부) 설문에 응답한 101개 지자체(회수율 42%) 중 44개 지자체(43.6%)는 모금활성화 등을 위해 찬성, 42개 지자체(41.6%)는 현행 시스템 외 수수료 이중 부과, 운영창구 일원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반대 의견 제시
- (도입 시기) 절반 가량의 지자체(46%)에서 현행 플랫폼이 안정화된 향후 2년 이후부터 도입 필요 의견 제시
- (필요 항목) 답례품 목록, 지역 정보, 기금사업 목록 순으로 민간 플랫폼 내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으로 응답
- (수수료 부과) 정률(51곳, 1~2% 多), 전년도 모금 현황에 따라 차등 적용(30곳, 100만 원 단위 多), 정액(14곳, 100~200만 원 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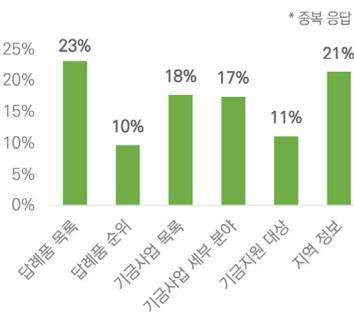
< 민간 플랫폼 도입 수요 >



< 민간 플랫폼 도입 시기 >



< 민간 플랫폼 내 필요 항목 >



💡 (도입 여부) 찬성, 반대 비율 비슷 / (도입 시기) 2년 이후 / (항목) 답례품 목록, 지역 정보 등 / (수수료) 정률 多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4**

## 01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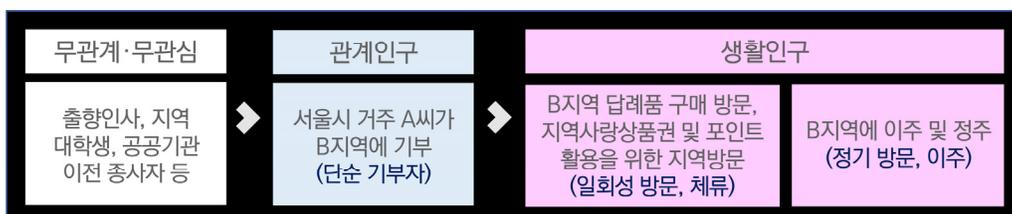


37

## 02 기부자의 관계인구화 및 생활인구화 전략

### 필요성 및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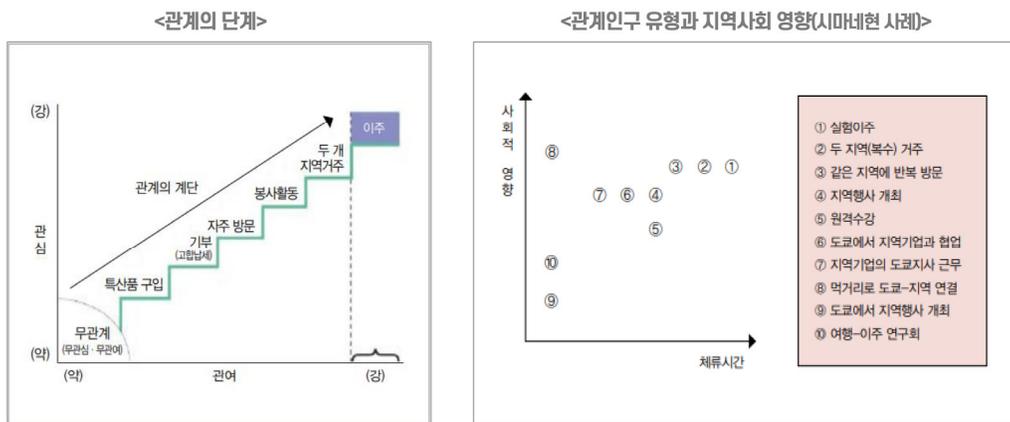
- 생애주기·지역과의 관계·체류강도 등 관계인구 특징을 토대로 기부자를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끌어 생활인구로 만드는 것이 중요
- (관계인구) 이주(정주인구)나 관광(체류인구)이 아니라, 일상생활권과 통근권 이외에 특정 지역과 계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
  - 관계심화형(연고형, 고향사랑기부자), 관계창출형, 주변 확대형, 주변 확대형(외국인) 등
- (생활인구) ① 주민등록인구, ② 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체류인구), ③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체재 및 교류 활성화(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 체험·관광 상품 연계 필요)
  - 지역실험겨주 및 이주 활성화(한달 살기, 4도3촌, 워케이션 등을 실행하는 사람 대상의 전략 필요)



38

## 참고 관계인구 : 관계의 단계와 지역 활성화

- 일본의 관계(緣, 연)인구는 '이주나 관광이 아니라, 일상생활권과 통근권 이외에 특정 지역과 계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정의
- 관계의 단계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구입에서 기부(고향납세), 방문, 봉사활동, 두 지역 거주를 거쳐 중국에는 이주로 발전하면서 지역과의 관계를 형성
- 지역 상황에 맞는 관계인구 유형화 및 활용 필요



39

## 02 기부자의 생활인구화 및 관계인구화 전략

### 기부자를 지역으로 이끄는 단계별 전략

#### 관계인구화 전략

- 무관심·무관계 인구의 관계인구화 추진
  - 지역 알리기와 로컬 브랜드 강화(지역 자원 발굴, 로컬 브랜드 육성, 지역 홍보 강화 등)
  - 출향인사 등 연고자, 은퇴자, 지역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자녀, 지역 대학생,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워케이션 참여자 대상으로 자발적 기부 촉진 및 관계인구화 추진

#### 생활인구화 전략

- 관계인구(기부자)의 생활인구화 추진
- 페르소나 기법을 활용한 기부자-지역 연계 전략
  - 기부자의 특성(연령, 직업, 활동 특성 등)을 토대로 지역별 차별화된 기금사업 및 답례품 발굴 등 전략 추진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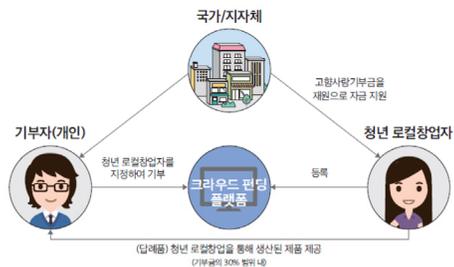
### 03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과 지역산업 진흥 전략

#### 지역 향토 및 특화자원 기반의 답례품 발굴 및 개발

- '지역 향토 및 특화산업 기반의 브랜드(답례품)' 발굴 및 개발
  - 지역 고유의 자원에 스토리를 입혀 지역별 '로컬 브랜드 패키지' 형태의 답례품 구성
  - 지역별 타겟 집단(금액별, 연령대별, 가구유형별 등)을 정하고 그에 따른 답례품 발굴 및 개발
- 지역 가치를 담은 '답례품'과 관련 '기금사업' 부문 간 연계 촉진
  - (기부 유도형)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 관련 기금사업-답례품\* 간 연계
    - \* 부모님댁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부모님 병원 부속 동행 서비스(할인권), 지역 거주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 상품 등
  - (방문·체류 유도형) 지역 특산물 관련 기금사업-답례품\* 간 연계 \* 지역 특산물 활용한 지역 레스토랑 이용권 등
  - 지역 특화 스포츠 산업 관련 기금사업-답례품\* 간 연계 \* 야구, 축구 등 지역 특화 스포츠의 경기 관람권, 스포츠 스타와의 레슨 기회 등

#### 지역 특화 답례품 관련 산업 기반 및 일자리 창출

-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로컬 창업자' 육성
  - '로컬 창업자'와 기부자를 연결하여 로컬창업 자금의 일부를 조달
  - (기부자) 로컬창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도 및 기부 효능감 제고
  - (지역) 로컬창업자 육성 등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 특화 답례품 관련 산업 기반 및 일자리 창출



41

### 03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과 지역산업 진흥 전략

#### 답례품등을 활용한 지역구독경제 활성화

-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한 사람, 자동 정기결제를 선택한 기부자 등을 대상으로 큐레이션을 접목한 답례품을 구성하고, 월별·계절별 답례품의 정기배송 추진
- (로컬푸드형) 로컬푸드, 친환경 농수산물 등에 기반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도 증대 및 지역 기반 산업 기반 강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시와 지역 모두에서 로컬푸드,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
  - 지역 특산물 꾸러미, 제철 식재료 활용 밀키트 등을 활용하여 무관심·무관계 인구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 (관광형) 계절별로 단기 및 장기체류형 관광상품 답례품(이용권 또는 할인권) 개발 및 제공, 지역 관광 상품과 결합·연계하여 지역 방문·체류 유도
  - 단계적으로 지역 특산물 등에 기반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타 지역 주민들의 방문과 체류를 유도 추진
- (공공) '고향사랑e음' 개편을 통해 지역 특산물 꾸러미, 밀키트 등의 답례품 항목 구성 및 구독경제 시스템 구축 (민간)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민간 모금플랫폼과 쿠팡, 마켓컬리 등 주요 구매·유통 채널 간 협업 추진(기업 ESG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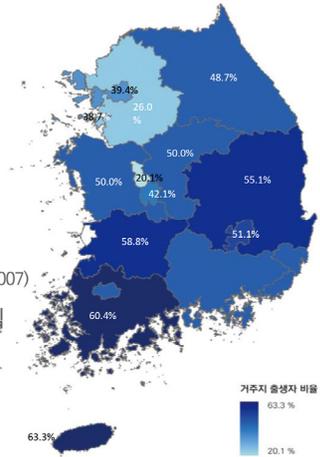
42

## 04 새로운 고향 만들기와 지속적 기부문화 확산

### 제3의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

- 시대와 여건 변화에 따라 '고향'에 대한 인식 변화
  - 출생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인구 비중(2020)이 41.4%로 감소세
    - \* 서울시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는 비율 : 24.4%(2005년) → 39.4%(2020년)
    - \* 제주도에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는 비율 : 72.9%(2010년) → 63.3%(2020년)
- 고향의 '정의'와 '가치' 재정립 필요
  -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림고정든 곳 등 연령, 출신지 등에 따라 고향을 다양하게 인식
    - \* 고향을 본인이 태어난 곳보다는 현재 거주지로 인식하는 경향 강화 (신두섭·하혜영 2007)
  - 광역 지자체 vs. 기초 지자체 vs. 읍·면·동 등 공간 단위에 따라 고향을 다르게 인식
    - \* (고향 선택권) 제2의 고향 만들기, 2지역거주 등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고향' '제3의 고향'을 선택
- 고향을 나고 자란 곳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직장·학업·부모님 거주·관광 등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지역과의 관계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

<출생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인구 비중(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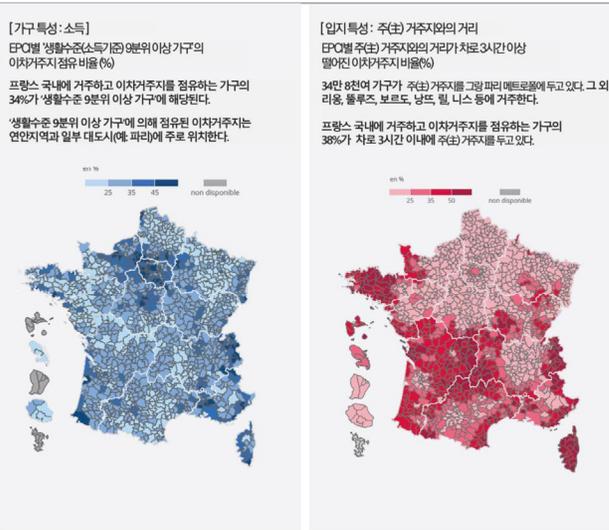


## 참고 프랑스의 2지역 거주와 제3의 장소

### 2지역 거주, 제3의 장소 등 공간의 가치와 유연성 활용

이차거주지는 전체 주택의 약 11% 차지하며 증가 추세, 제3의 공간 수요 및 지원 증가

#### < 2차거주지 >



#### < 제3의 장소 >



## 04 새로운 고향 만들기와 지속적 기부문화 확산

### 기부자의 지역 참여 확대를 통한 기부 문화 확산

- (기부방식 다양화) 일회성 기부, 정기 기부(매월 00만 원 이체) 등
- (지정기부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기부 활성화로 기부자의 지역참여 확대
- (사업추진과정) 답례품 개발, 기금사업 대상·분야 선택, 기금사업 실행 등 기부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답례품 개발 단계 : 지역 자원 활용한 답례품 제안 제도 운영(채택 시, 인센티브 제공)
  - 기금사업 분야 선정 단계 : 기부자와 주민 참여형 기금사업 선정 협의체 운영
  - 기금사업 실행 : 기금사업 실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칭)기부자 참여예산 제도' 도입 검토, 기금사업 발굴과 실행, 성과 전반에 대한 '기부자 참여 모니터링단' 운영 등
- (사후관리) 지속적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밀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부자 대상 지역 방문 및 지역 행사, 이벤트 참여 정보 제공
  - 기부금을 통해 지역이 변화한 모습(Before and After) 등을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재
  - 기금사업 성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안내 등을 통해 일회성 기부자를 지속적 기부자로 유도

45

...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다. 고향은 살고 싶은 곳이다”라는 말은 고향의 사전적 의미에 갇혀 있던 내게, 살고 싶은 곳으로의 고향 찾기가 필요함을 깨닫게 했다.

... (중략) ...

미국의 도시사회학자인 레이 올든버그가 제시한 제1, 제2, 제3의 장소로 구분한 틀을 인용해 생애주기에 따라 태어난 곳인 제1의 고향, 공부하고 일하며 돈버는 제2의 고향, 그리고 경제활동을 마친 이후에 여유를 갖게 되는 제3의 고향으로 재해석해 사용할 수 있겠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들 한다. 태어나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돈 버는 데서 벗어나 내 삶의 진정한 여유와 행복 찾기를 위해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서 제3의 고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때가 아닌가 싶다. 나의 고향은 어디일까? 궁금해진다.

(차미숙, 농민신문 시론 "나의 고향은" 가운데 발췌, 2024.5.13)



감사합니다



발표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와 발전방안

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과와 발전방안

전 영 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맺는말 : 분석의 종합 및 정책적 제언

## I. 들어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 1) 연구배경

-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서 2023년 1월에 처음 시행
-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약 52만 6천 건의 기부를 통해 약 650억 6천만원의 기부금을 거두었음
- 이러한 제도 시행 첫해의 모금 실적은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약 2배 많은 일본의 2008년 모금 실적(81.4억 엔)과 견주어 봐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I. 들어가는 말

### 1) 연구배경(계속)

○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 시행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였는지 살펴보는 일은 정책의 평가 및 환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에 해당함

-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난 1년 동안의 제도 시행을 통해 해당 목적이 실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5

## I. 들어가는 말

### 2)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2023년 한 해를 기준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확충 수준과 이들 간 재정격차 완화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해당 제도의 목적 달성 정도를 가늠하고자 함
- 제도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지역에서 더 많은 재정수입이 발생하였거나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완화되었다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라는 당해 제도의 목적을 일정 부분 잘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6

## Ⅱ.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논의



## Ⅱ.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논의

### 1) 고향사랑 기부제의 주요 재정적 효과

-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부가 이루어지는바, 기부금 수입 발생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을 기대할 수 있음
- 수직적·수평적 재원이전이 함께 이뤄지도록 시행되고 있음
  - 당해 제도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특성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국세분)와 기부자의 주소지로 등록된 지자체(지방세분)가 약 9대1의 비율로 각각 부담함
  - 즉,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에 따라 중앙정부와 기부자의 주소지로 등록된 지자체의 재원이 기부받은 지자체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함

## Ⅱ.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논의

### 2)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른 행위주체별 재정 변화

※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는 그 시행에 따른 주요 행위주체의 재정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겠음

#### ○ 기부자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1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 100%만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의 16.5%만큼 공제 받음
- 이때의 세액공제는 국세분(소득세) 90.9%와 지방세분(지방소득세) 9.1%로 구성
- 단, 특정 개인의 산출세액이 적을 경우 당해 제도에서 보장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음

9

## Ⅱ.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논의

### 2)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른 행위주체별 재정 변화(계속)

#### ○ 기부를 받은 지자체

-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이 발생하며, 이때의 기부금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
- 반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국세분)로 인해 보통교부세 수입의 감소 발생(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제외)
-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함에 따라 전체 기부금 수입액의 최대 30% 내에서 답례품 구입비를 지출할 수 있음
- 이밖에 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각종 경비로도 전체 기부금 수입액의 최대 15%까지를 지출할 수 있음  
(단, 제도 시행 첫해였던 2023년에는 개별 지자체의 해당 비용이 기부금 수입액과 상관없이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지출됨)

10

## Ⅱ.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논의

### 2)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른 행위주체별 재정 변화(계속)

#### ○ 기부자의 주소지로 등록된 지자체

-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인하여 지방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내국세 감소에 기인), 조정교부금(자치구 한정) 등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단, 일부 지자체는 재정부족액이 늘어남(세액공제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에 기인)에 따른 기여분이 내국세와 조정률이 줄어들어 따른 기여분보다 더 큼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수입 규모가 제도 시행 전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

#### ○ 중앙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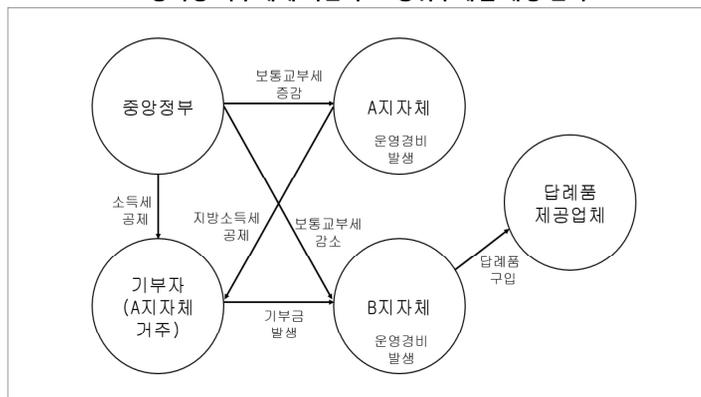
-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내국세(소득세) 수입이 감소

11

## Ⅱ.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논의

### 2)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른 행위주체별 재정 변화(계속)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른 주요 행위주체별 재정 변화>



출처: 임정빈 외(2017: 76)와 송영현(2023: 194)을 바탕으로 재작성함

12

## Ⅱ.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논의

### 3) 소결

- 이와 같은 재정 변화를 고려할 때,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개별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실제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성 존재
  - 단순히 기부금 수입만을 놓고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지방재정이 어렵지 않게 확충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다만,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 제공 등을 함께 고려할 시, 그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거나 해당 제도로 인해 오히려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 기부는 매우 적는데 반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자들이 타 지자체에 대해 많은 금액의 기부를 하게 되면, 당해 지자체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등이 되레 줄어들어 재정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음
- 결국,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부금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뿐 아니라, 기부자 대상 세액공제에 따른 지방세 및 이전재원 수입의 변화와 답례품 구입비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의 발생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13

## Ⅲ. 연구설계



### Ⅲ. 연구설계

#### 1) 분석대상

○ 2023년 한 해 동안 있는 총 526,305건의 모든 기부 정보(기부자의 기부금액 및 등록 주소지, 기부 대상 지자체, 제공받은 답례품 금액)를 활용함('24년 1월 4일자 기준)

-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모두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해당
- 특히, 전국 지자체를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상·하위 20%로 각각 나누어서 이들의 재정수입 발생분을 산출·비교함
- 전국 지자체를 행정구역 단위(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각 지자체 단위에서의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분석함

15

### Ⅲ. 연구설계

#### 2) 분석방법

○ 지자체의 재정수입 발생분 산출방식

- 제도 시행에 따른 개별 지자체의 재정수입 발생분을 기부금에 의한 세외수입(A), 세액공제(기부자 대상)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세(B) 및 이전재원 수입(C), 답례품 구입 비용(D)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함

$$\text{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각 지자체의 재정수입 발생분} = A - (B + C + D)$$

- 이때, 개별 기부자의 소득 및 세액공제액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함에 따라, 본 연구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부자의 세액공제액 산출을 위해 2가지 안을 설정하였음

- 1안) 기부자 전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가정 적용
- 2안) 기부자 중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가정 적용  
(※ 2안에서의 세액공제액은 국세청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서의 연령대별 종합소득세 납부 인구 비율을 활용하여 산출함)

16

### Ⅲ. 연구설계

#### 2) 분석방법 (계속)

##### ○ 이전재원 수입 증감분 산출방식

- 제도 시행으로 인한 개별 지자체의 이전재원(보통교부세 혹은 조정교부금) 수입 증감분을 추정하기 위해서 2023년 기준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과 개별 특·광역시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활용
- 2023년 본래의 산정 기준액에 대해 1안과 2안에서의 소득세(국세 및 지방세) 감소액을 각각 적용하여 개별 지자체의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액을 산출 → 이를 기존에 산정된 해당 수입액에서 빼주는 방식을 통해 이들 수입의 변화분을 도출

17

### Ⅲ. 연구설계

#### 2) 분석방법 (계속)

##### ○ 지자체 간 재정격차 측정 방식

-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지자체별 재원 규모(수입 측면)의 차이로 간주하고, 이의 수준은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해 측정함
- 이때, 총액과 주민 1인당 금액을 각각 기준(2023년도 최종 예산 기준)으로 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 간 재정격차 변화를 파악함

18

## IV. 분석결과



## IV. 분석결과

### 1)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현황

○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는 약 650억 6,597만원의 기부금을 유치하였고, 지자체별로는 평균 약 2억 6,776만원을 모금함

<2023년 지역별 고향사랑 기부금 유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지역	모금 건수 (비중)	모금액 (비중)
서울특별시	27,385 (5.2%)	2,481 (3.8%)
부산광역시	15,354 (2.9%)	1,274 (2.0%)
대구광역시	8,808 (1.7%)	747 (1.1%)
인천광역시	8,629 (1.6%)	773 (1.2%)
광주광역시	12,591 (2.4%)	1,516 (2.3%)
대전광역시	6,441 (1.2%)	628 (1.0%)
울산광역시	9,193 (1.7%)	985 (1.5%)
세종특별자치시	1,587 (0.3%)	145 (0.2%)
경기도	41,009 (7.8%)	3,906 (6.0%)
강원특별자치도	44,293 (8.4%)	5,295 (8.1%)
충청북도	21,922 (4.2%)	3,112 (4.8%)
충청남도	37,758 (7.2%)	4,317 (6.6%)
전북특별자치도	63,625 (12.1%)	8,481 (13.0%)
전라남도	92,761 (17.6%)	14,335 (22.0%)
경상북도	66,001 (12.5%)	8,999 (13.8%)
경상남도	52,340 (9.9%)	6,248 (9.6%)
제주특별자치도	16,608 (3.2%)	1,823 (2.8%)
계	526,305 (100.0%)	65,066 (100.0%)

주) 각 시·도 지역의 모금 실적은 개별 기초지자체의 해당 값을 포함한 것임

## IV. 분석결과

### 1)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현황 (계속)

<2023년 지자체 단위별 고향사랑 기부금 유치 현황>

(단위: 만원)

구분	광역		기초			전체
	시	도	시	군	자치구	
전체	122,158	425,059	2182,141	3,124,991	652,247	6,506,597
평균	15,269	47,228	29,095	38,109	9,452	26,776

21

## IV. 분석결과

### 1)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현황 (계속)

<2023년 지역별 답례품 구입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지역	답례품 구입 건수	답례품 구입비
서울특별시	63,742	660
부산광역시	12,020	309
대구광역시	4,715	154
인천광역시	6,815	188
광주광역시	10,320	333
대전광역시	4,747	148
울산광역시	7,584	217
세종특별자치시	1,219	37
경기도	35,554	1,004
강원특별자치도	41,031	1,319
충청북도	19,492	716
충청남도	35,758	1,056
전북특별자치도	56,154	1,969
전라남도	83,994	3,315
경상북도	53,939	2,165
경상남도	46,121	1,439
제주특별자치도	15,238	439
계	498,443	15,477

주1) 각 시·도 지역의 답례품 구입 현황은 개별 기초지자체의 해당 값을 포함한 것임  
 주2) 지자체의 답례품 구입 건수는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건수를 기준으로 파악함

22

## IV. 분석결과

### 2)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확충 수준

#### □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 간 비교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 간의 기부 규모>

		수도권 (69개 지자체)	
		기부 금액	기부 받은 금액
비수도권 (174개 지자체)	기부 금액	-	12억 5,218만원
	기부 받은 금액	233억 8,256만원	-

-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부(수도권→비수도권): 약 233억 8,256만원
  -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부(비수도권→수도권): 약 12억 5,218만원
-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부금액은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부금액보다 19배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23

## IV. 분석결과

### 2)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확충 수준 (계속)

#### □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 간 비교(계속)

<제도 시행에 따른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의 재정수입 발생분> (단위: 만원)

구분	비수도권 (174개 지자체)	수도권 (69개 지자체)	
1만	임시적 세외수입(기부금 수입) 발생액 (A)	5,790,552	716,044
	지방세(지방소득세) 수입 감소액 (B)	229,423	200,400
	이전재원(보통교부세 또는 조정교부금) 수입 감소액 (C)	797,238	44,176
	담배품 구입비 지출액 (D)	1,362,371	185,410
	재정수입 발생액 [A-(B+C+D)]	3,401,518	286,057
	지자체별 평균 발생액	19,549	4,145
2만	임시적 세외수입(기부금 수입) 발생액 (A)	5,790,552	716,044
	지방세(지방소득세) 수입 감소액 (B)	169,497	146,792
	이전재원(보통교부세 또는 조정교부금) 수입 감소액 (C)	586,274	32,642
	담배품 구입비 지출액 (D)	1,62,371	185,410
	재정수입 발생액 [A-(B+C+D)]	3,672,409	351,199
	지자체별 평균 발생액	2,1105	5,089

24

## IV. 분석결과

### 2)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확충 수준 (계속)

#### □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비교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의 기부 규모>

		비인구감소지역 (89곳)	
		기부 금액	기부 받은 금액
인구감소지역 (140곳)	기부 금액	-	26억 1,715만원
	기부 받은 금액	300억 3,991만원	-

- 비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비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 약 300억 3,991만원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비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인구감소지역→비인구감소지역): 약 26억 1,715만원
- 비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금액은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비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금액보다 11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25

## IV. 분석결과

### 2)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확충 수준 (계속)

#### □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비교(계속)

<제도 시행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재정수입 발생분> (단위: 만원)

구분	인구감소지역 (89곳)	비인구감소지역 (140곳)
1안	임시적 세외수입(기부금 수입) 발생액 (A)	2,742,433
	지방세(지방소득세) 수입 감소액 (B)	206,619
	이전재원(보통교부세 또는 조정교부금) 수입 감소액 (C)	258,033
	답례품 구입비 지출액 (D)	657,383
	재정수입 발생액 [A-(B+C+D)]	1,620,396
	지자체별 평균 발생액	11,657
2안	임시적 세외수입(기부금 수입) 발생액 (A)	2,742,433
	지방세(지방소득세) 수입 감소액 (B)	151,916
	이전재원(보통교부세 또는 조정교부금) 수입 감소액 (C)	189,849
	답례품 구입비 지출액 (D)	657,383
	재정수입 발생액 [A-(B+C+D)]	1,743,283
	지자체별 평균 발생액	12,541

26

## IV. 분석결과

### 2)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책중 수준 (계속)

#### □ 재정자립도 상·하위 지자체 간 비교

<재정자립도 상·하위 20% 지자체 간의 기부 규모>

		재정자립도 상위 20%	
		기부 금액	기부 받은 금액
재정자립도 하위 20%	기부 금액	-	1억 6,389만원
	기부 받은 금액	69억 9,634만원	-

-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거주자의 하위 20% 지자체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상위 20%→하위 20%): 약 69억 9,634만원
- 재정자립도 하위 20% 지자체 거주자의 상위 20% 지자체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하위 20%→상위 20%): 약 1억 6,389만원
-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거주자의 하위 20% 지자체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액은 재정자립도 하위 20% 지자체 거주자의 상위 20% 지자체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액보다 4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27

## IV. 분석결과

### 2)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책중 수준 (계속)

#### □ 재정자립도 상·하위 지자체 간 비교(계속)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자립도 상·하위 20% 지자체의 재정수입 발생분> (단위: 만원)

구분	하위 20% (50개 지자체)	상위 20% (50개 지자체)	
1안	임시적 세외수입(기부금 수입) 발생액 (A)	2,098,924	857,277
	지방세(지방소득세) 수입 감소액 (B)	26,393	299,243
	이전재원(보통교부세 또는 조정교부금) 수입 감소액 (C)	219,938	121,866
	답례품 구입비 지출액 (D)	483,912	213,652
	재정수입 발생액 [A-(B+C+D)]	1,368,679	222,514
	지자체별 평균 발생액	27,373	4,450
2안	임시적 세외수입(기부금 수입) 발생액 (A)	2,090,924	857,277
	지방세(지방소득세) 수입 감소액 (B)	19,598	219,738
	이전재원(보통교부세 또는 조정교부금) 수입 감소액 (C)	161,743	89,725
	답례품 구입비 지출액 (D)	483,912	213,652
	재정수입 발생액 [A-(B+C+D)]	1,433,669	334,160
	지자체별 평균 발생액	28,673	6,683

28

## IV. 분석결과

### 3)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효과 분석

#### □ 총액 기준

<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효과 분석 결과(총액 기준) >

구분		재정수입1 (세외수입)		재정수입2 (재정수입1+지방세)		재정수입3 (재정수입2+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수입4 (재정수입3-담레품 구입비)	
		기존	제도 시행 결과	기존	제도 시행 결과	기존	제도 시행 결과	기존	제도 시행 결과
시·도 (본청)	1안	1.3055	1.3049	1.2840	1.2839	1.0256	1.0255	1.0256	1.0255
	2안	1.3055	1.3049	1.2840	1.2839	1.0256	1.0255	1.0256	1.0255
시	1안	0.7683	0.7666	0.9282	0.9276	0.5425	0.5423	0.5425	0.5424
	2안	0.7683	0.7666	0.9282	0.9276	0.5425	0.5423	0.5425	0.5424
군	1안	0.4291	0.4234	0.7518	0.7480	0.2508	0.2506	0.2508	0.2506
	2안	0.4291	0.4234	0.7518	0.7480	0.2508	0.2506	0.2508	0.2506
구	1안	0.6012	0.6003	0.6268	0.6265	0.3997	0.3996	0.3997	0.3996
	2안	0.6012	0.6003	0.6268	0.6265	0.3997	0.3996	0.3997	0.3996

- 재정수입1, 재정수입2, 재정수입3, 재정수입4 각각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 모든 지자체 단위에서 제도 시행 결과를 반영한 변이계수가 기존보다 얼마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확인

29

## IV. 분석결과

### 3)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효과 분석 (계속)

#### □ 주민 1인당 금액 기준

<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효과 분석 결과(주민 1인당 금액 기준) >

구분		재정수입1 (세외수입)		재정수입2 (재정수입1+지방세)		재정수입3 (재정수입2+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수입4 (재정수입3-담레품 구입비)	
		기존	제도 시행 결과	기존	제도 시행 결과	기존	제도 시행 결과	기존	제도 시행 결과
시·도 (본청)	1안	0.7446	0.7450	0.3833	0.3834	0.4508	0.4510	0.4508	0.4510
	2안	0.7446	0.7450	0.3833	0.3834	0.4508	0.4510	0.4508	0.4510
시	1안	0.3006	0.3013	0.2503	0.2500	0.5006	0.5007	0.5006	0.5007
	2안	0.3006	0.3013	0.2503	0.2500	0.5006	0.5007	0.5006	0.5007
군	1안	0.3731	0.3691	0.2205	0.2190	0.33723	0.33719	0.33723	0.33720
	2안	0.3731	0.3691	0.2205	0.2190	0.33723	0.33719	0.33723	0.33720
구	1안	0.5856	0.5851	0.5814	0.5812	0.44625	0.44621	0.44625	0.44622
	2안	0.5856	0.5851	0.5814	0.5812	0.44625	0.44621	0.44625	0.44622

- 재정수입1, 재정수입3, 재정수입4 각각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 군과 자치군 단위에서만 제도 시행 결과를 반영한 변이계수가 기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도 및 시 단위에서는 되레 제도 시행 결과를 반영한 변이계수가 기존보다 얼마간 증가하였음
- 재정수입2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시·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단위에서 제도 시행 결과를 반영한 변이계수가 기존보다 다소 감소하였음  
- 시·도 단위에서는 오히려 제도 시행 결과를 반영한 변이계수가 기존보다 얼마간 증가하였음

30

## V. 맺는말



## V. 맺는말

### 1) 분석결과 종합

-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으로 인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는 약 368억 7,575만 원 또는 402억 3,608만 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나아가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지역에서 더 많은 재정수입이 발생함
  -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재정수입 발생분이 10배 이상 더 크고, 지자체별 평균액을 기준으로도 4배 이상 더 큰 것으로 추산됨
  - 비인구감소지역 대비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재정수입 발생분이 1.3배 이상 더 크고, 지역별 평균액을 기준으로도 2배 이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상위 20% 지자체 대비 하위 20% 지자체에서의 재정수입 발생분이 4배 이상 더 크고, 지자체별 평균액을 기준으로도 4배 이상 더 큰 것으로 추산됨

## V. 맺는말

### 1) 분석결과 종합(계속)

-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확충 수준이 지자체 전반의 수입에 비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재정격차 완화효과는 획기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음
- 그럼에도,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제도로 인하여 모든 지자체 단위(시·도, 시, 군, 구)에서 각각 재정격차가 얼마간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남
  - 다만, 주민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 군과 자치구 단위에서만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시·도와 시 단위에서는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다소 늘어날 수 있음이 확인됨

33

## V. 맺는말

### 2) 정책적 제언 : 제도 발전 방안

- 결국, 2023년 한 해의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균형발전 달성에 얼마간 이바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음
  - 해당 제도로 인해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더 많은 재정수입이 발생하고, 행정구역 단위별로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나타냄
  - 결국, 2023년의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자체의 모금액 또는 재정수입 발생분으로 대표되는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궁극적인 정책목표(지역균형발전에 일조)로서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향후 개인의 연간 상한 기부액이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2025년 시행 예정)되고, 세액공제 혜택을 더 늘림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가 현재보다 한층 활성화된다면, 해당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게끔 더 큰 재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34

## V. 맺는말

### 2) 정책적 제언 : 제도 발전 방안 (계속)

- 다만,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력 부족, 모금액에 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지속 발생, 지자체들 간의 지나친 경쟁 등과 같은 제도 활성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겠음
- 단기적으로는,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을 허용할 필요성 존재
  - 현재 모금주체로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중복되고, 기초지자체 대비 광역지자체의 모금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임
- 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라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한층 잘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 존재
  - 수도권 지역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기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 또는 현행 유지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경제상황이나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제도는 중앙-지방 간의 수직적 재원이전 효과가 압도적으로 더 크게 발생하게끔 설계되나, 지방-지방 간의 수평적 재원이전 효과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 존재

35

## 참고문헌

- 김미경·라휘문. (2001). 조정교부금의 형평성 제고방향.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19.
- 남수경. 2007.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의 형평성 평가. 「교육재정경제연구」, 16(1): 31-56.
- 송영현. (2023).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정확충효과 모의실험-충청남도를 사례로. 「GRI 연구논총」, 25(3): 179-200.
- 신두섭·염명배. (2016).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재정정책논집」, 18(4): 145-194.
- 염명배. (2010). 일본 ‘후루사토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논집」, 15(3): 71-111.
- 염명배. (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경제연구」, 39(4): 133-181.
- 염명배. (2021).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경영전략적 접근: 성공적 제도정착을 위한 지자체의 ‘3+1 마케팅전략’ 제안, 「경제연구」, 41(3): 27-58.
- 유보람·박지영·신두섭. (2024).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예비 기부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6(1): 57-75.
- 임정빈·김성찬·홍근석. (2017).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재원확충과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7(4): 69-101.
- 주만수. (2017). 고향기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험과 지방분권 원리에 기초하여. 「지방행정연구」, 31(3): 245-272.
- 최성은·노성민·민효상. (2024).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복지재정 정책효과 분석: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4(2): 59-79.
- 홍근석·임정빈. (2019).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3(3): 1-31.
- 황이경·김남철(2023).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공법연구」, 51(3): 643-675.

36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  
토론

**좌장** |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토론** |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문재철 MBN 미디어랩 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오상철 경상북도 행정지원과장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전영준)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적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음.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상·하위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 확충 수준을 비교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를 분석함
  - 분석 결과,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발생하였고 재정 격차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재정수입 발생분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에서 10배 이상 컸고, 비인구감소 지역 대비 인구감소지역에서 1.3배 이상 컸으며,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대비 하위 20% 지자체에서 4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
- 결론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의 양적 측면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질적 측면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
  - 다만, 원활한 제도 운용을 위한 행정력 부족, 모금액에 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지속 발생,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자치 마련 등 필요성 제기
  -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에 국한하여 모금을 허용,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세액공제 혜택 등 일정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제안
-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제도의 목적을 취지와 목적 등을 달성하였는지를 평가 한다는 것이 다소 이른 감음은 있지만,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 기준을 설정해 분석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음
  -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다양한 질적·양적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분석·평가하여 데이터를 축적해 나간다면 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 제안사항 중 기초자치단체에 국한하여 모금을 허용하고 낙후된 지역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함. 일반적으로 '고향'이라는 실체가 충북, 경북 등 광역 단위 보다는 충주나 안동 등 기초 단위이므로 기초 중심으로 제도운영이나 기부금 모금을 집중할 필요는 있음

##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차미숙)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앞으로 제도의 발전 과제와 제도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기부 주체 확대(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해외동포, 외국인 등으로 확대) 및 기부 금액(현행 상한액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확대
  - 세액공제 확대(세액공제 한도 상향, 세액공제 비대상자 인센티브), 모금 주체(지역)(인구 감소지역으로 기부 제한, 광역 및 수도권 제외, 구·군 통합 모금 등)
  - 모금 방법 및 모금 시스템 개선(24시간 기부 허용, 답례품 목록 개선, 민간 모금플랫폼 도입), 홍보 방법(호별 방문, 개별 전화·서신, 향우회, 동창회 등 허용)
  - 답례품 개발 및 비용(해당 지역 이외 생산·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허용, 답례품 비용 지출 근거 마련)
  - 기타(지역사랑기부제로 명칭 변경, 중간지원조직 운영, 기부자 개인정보 열람 등)
-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 기부자의 관계인구화 및 생활인구화 전략, 일자리·지역경제활력 제고, 새로운 고향(제3의 고향) 만들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 등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발전과제와 지역활성화 방안에 공감함. 다만, 최근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개정(2024.2.20.)으로 모금방법, 상한액, 지정기부, 답례품 지출 근거 마련, 자료제공 등 일부 제도개선이 된 사항도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법』 주요 개정 내용〉

조항	개정 전	개정 후(2024.2.20.)
제7조 (모금방법)	개별 전화·전송·향우회·동창회 등 권유·독려 불가능	모금방법 확대(전자매채, 향우회 등 사적 모임 권유·독려 허용 등)
제8조 (접수·상한액)	개인 연간기부금 상한액 500만 원	개인 연간기부금 상한액 2,000만 원
제8조의2 (지정 모금 및 기부)	〈신설〉	지정기부제 도입(목적사업 허용) * 제11조 제2항(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제11조 (기금의 설치)	기금설치 및 복리증진 사업	기금 사용에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 총당 추가(기부금 30%)
제12조 (제도의 연구 및 지원)	제도의 조사, 분석, 연구	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홍보강화)
제14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신설〉	기부자의 체류 여부 등 자료제공

- 다만, 발제문에서 제시한 기부주체 확대, 세액공제 확대, 민간 모금플랫폼 도입 등은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적극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민간 모금플랫폼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제12조 제3항에서 ‘기부금 모금  
수집·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전문기관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이어야 하고  
개인정보, 수수료, 기술요건 등 소정의 요건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사업자의 기준, 요건, 지정  
등 절차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자치단체에 민간 플랫폼 사용 중단 요청)
  - 이에 자치단체는 민간 플랫폼도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대비 수수료도  
저렴하며 이미 법률이 보장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
-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기부상한액이 없고 기부자에 법인이 포함되는 등 참여의 폭이 넓으며  
민간에서 자율로 기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고향  
사랑기부제의 민간 플랫폼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용의 문턱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을 것임

토론문

##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문재철

MBN 미디어랩 부장

###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 고향사랑기금 사업현황 및 사례(2023년 10월 기준)

- 92개의 기금사업 사례에 대한 내용은 다양한 기금 사업의 모습을 보여준다.

- 사업의 유형이 현실적이며 방송, 언론 보도가 되기에 충분히 보인다.
- 특히, 이들 사업들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혜택의 대상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기부를 했거나 관심 있는 국민들의 경각심과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03 고향사랑기금 사업 현황 및 사례(2023.10월 기준)

### 고향사랑기금 사업 유형별 사례

지원 대상	사업명(지역명)
아동·청소년	• 야간, 휴일 소아청소년 진료서비스 지원사업(경북 경산),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드림콰이어" 멈추지 않는 하모니 지역아동 센터 합창단 지원사업(경남 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광주 남구) 등
지역주민 (대상불특정)	• 100원 빨래방 마을공동 운영(전남 나주),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광주 동구), 태양열 우편함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경남 통영),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제주), 고향사랑 연극 공연(경남 밀양) 등
저소득, 다문화, 돌봄필요가정 등	• 의료후불제 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사업(충북),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및 퇴원환자 통합돌봄(전남 담양), 취약계층 세탁 서비스 지원사업(경북 영양), 램프요정 지니 프로젝트 "너의 소원을 말해 봐" 사업(경남 창원) 등
관광객, 외지인	• 서울에서 가장 예쁜 장미축제 활성화를 위한 "장미도시 조성"(서울 중랑구), 밀양시 고향알기 프로그램(경남 밀양) 등
노인	•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광주 남구), 독거어르신 건강돌봄 로봇 구입지원(전남 순천) 등
장애인	• 발달장애인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광주 동구), 장애인 휴대용 경사로 지원사업 "턱을 넘어서"(경남 김해) 등
청년	•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울산 동구), "장흥을 알다" 청년지역탐방 사업(전남 장흥), 구미영 에너지 사업(경북 구미) 등
신혼 및 임신가	• 신혼(임신)부부 예방접종 지원사업(울산 남구)
기업	• 지역상생형 V-ESG 자원봉사 프로젝트(광주 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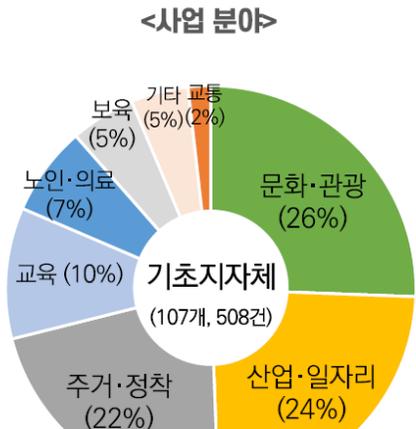
  

지원 분야	사업명(지역명)
환경	• 순천만 갯벌 블루카본 강화 사업(전남 순천), 꿀벌 살리기 프로젝트 "창원시 밀원수림 특화단지 조성" 사업(경남 창원), 평 두매습지, 어린이 람사르습지 탐사대 운영(광주 북구) 등
주거, 인프라	• 농어촌민박 리모델링 지원사업(대구 군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충북 진천), 고향사랑 조형물 설치 사업(경남 밀양), 담양읍 상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전남 담양) 등
문화, 예술, 관광	• 북구의 작가를 찾아라 북구 무등문화상 운영(광주 북구), 고향사랑 나라사랑 "광주역사문화공원 자연힐링공간 조성"(서울 중랑구), 찾아가는 "내사랑 김해공연"(경남 김해),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전남 광양) 등

**참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사례(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유형 및 현황(22~23)**



자료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전성만 외(2022), 박성남 외(2023)

사업 분야(건수)	기금사업 명(지사체명)
문화·관광 (130건)	· 농산촌 체험형 생활인구 지원(강원 평창, 살아봐요 장항위케이션 '위매'(충남 서천), '제천 더 오래'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사업(충북 제천) 등
산업·일자리 (121건)	· 산촌 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충북 괴산),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지원 사업(전북 고창), 귀농·귀어 가업승계자, 스마트한 부자만들기 프로젝트(전남 진도), 식물 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 사업(경기 연천) 등
주거·정착 (110건)	·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충남 논산),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전남 고흥),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전남 장흥), 산단 생활지역 정주환경 개선 사업(경남 고성), 빈집·농지 통합플랫폼 구축(전남 해남) 등
교육 (53건)	· 도담도담 마을로 이어지는 곡성유학 완성(전남 곡성), 지리산 권 인재양성 프로젝트 : 춘향골 인재학당(전북 남원) 등
노인·의료 (36건)	· 100세 팔팔 건강지킴이 스마트 경로당 설치(전남 신안) 등
보육 (26건)	·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충북 단양), 공공산후조리원 조성(강원 영월), 소아 외래진료센터 건립(충남 보령) 등
기타(23건)	·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정원 조성(강원 양구) 등
교통(9건)	· 버스공영제 고도화로 소외 없는 교통케어(강원 정선) 등

**(대상) 청년(74개) 중심 / (분야)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정착 순 / H/W, 생활인구, 장기거주 유도**

○ 일본의 **고향 창업가 지원 사업 지원** 사례와 시사점

- 기금 사업의 새로운 형태로 국내 적용이 절실해 보인다. 실제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기금 사업아이템을 알리고 관련한 창업 준비 청년들을 선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소개**

**행안부-지자체가 인건비·창업비, 직무개발비 지원**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p><b>기업</b></p> <p>인건비 연간 2,400만원 지원(2년)</p> <p><b>청년</b></p> <p>직무개발비 등 300만원 이내 지원(2년), 3년차 인센티브 1,000만원 지원</p>	<p><b>창업지원비</b></p> <p>연간 1,500만원 지원 (1~2년)</p> <p><b>직무개발비 등</b></p> <p>150만원 지원</p>

- 다만, 지자체 입장에서 제대로 된 창업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크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를 활용한다면 기부금을 납부한 국민들이 해당 창업가를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납부한 국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절차로 방송의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형태를 적용한다면, 인지도 상승은 물론 제대로 된 창업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고, 선정과정에서 국민들이 방송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 된다면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MBN이 기획/방송한 <사장의 탄생> 23년 7월 방송  
 (요식업계 창업을 꿈꾸는 2030 청년들이 창업 자금을 얻기 위한 대결을 펼치며 '진짜 사장'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리얼 서바이벌 프로그램)

○ 일본의 고향이주 축진프로젝트 지원 사례와 시사점

- 고향이주 축진 지원 사례의 경우 이미 농식품부에서 오랫동안 진행해오고 있는 '귀농귀촌 사업'과 연계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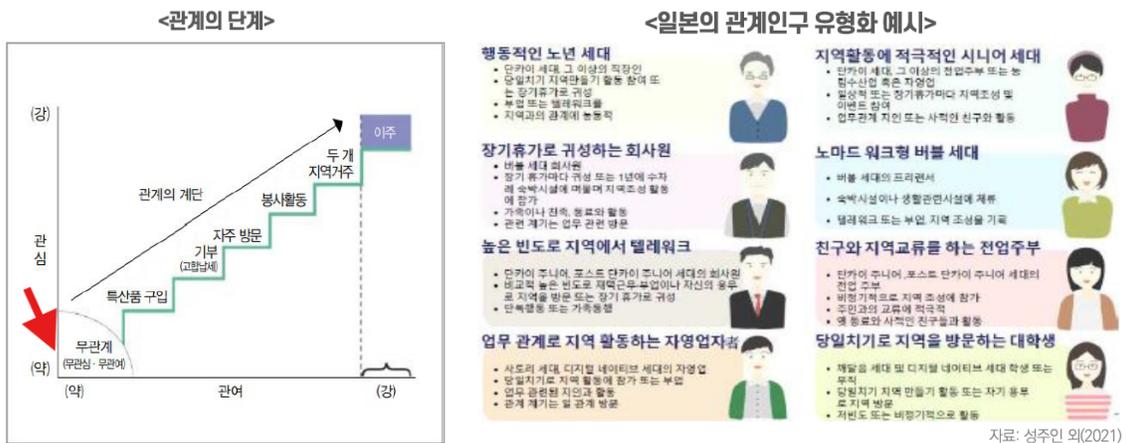
- 더불어 살고 싶은 고향에 대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방송,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 일본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시사점

- 관계인구의 단계에 대한 아래 표에서 사실은 특산품 구입 전에 해당 지자체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에 의한 관심이 먼저일 듯하다.

#MBN <생생정보마당> 지자체 소개방송: [문화충전도시, 영월] 석탄광산에서 문화광산으로  
<https://youtu.be/2fHsQhlmv8E?si=cOwYCIJ46oEaF1Hz>

- 또한 '관계인구 유형화 예시'는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행안부 차원에서 본 유형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와 발전방향**

○ (사례) **좋은정책대회**

- 2021년 12월 개최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MBN 공동 주최

**「대한민국 좋은 정책 대회」 진행 과정?**

**진행 과정**

- 1 협약식
- 2 사례 응모 (총 268건 접수)
- 3 1차 심사 (20개 사례 선별)
- 4 2차 PT
- 국민 심사단
- 국민 투표
- 3 시상식

**심사 배점**

2차 PT	국민 심사단	국민 투표	계
40%	50%	10%	100%

▲ 2021년 개최한 '좋은정책대회' 투표 페이지

(<https://www.mbn.co.kr/pages/event/saengsaeng.mbn>)

- 행사 시상식 관련 방송 뉴스



- MBN종합뉴스 <https://youtu.be/VEN2EXa9Eg8>
- 전국네트워크 (대상 지자체 소개) <https://youtu.be/wwCRxQu3QOs>  
(우수상 지자체 소개) <https://youtu.be/qYIAFBXuWBA>

(시사점) 다양한 기금 사업 및 답례품 등에 대해 우수한 사례를 지자체가 공모하고, 시청자(국민)이 직접 투표하고 그 결과를 방송(유튜브)에 보여줌으로써 관심 및 참여의지 제고

## 토론문

##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 □ 2023년 고향사랑기부 실적 및 제도의 기본 방향성 총족

## ○ 연말에 집중된 고향사랑기부

(단위: 억 원,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모금액	44.4	43.0	48.2	40.1	30.8	26.8	22.1	21.7	26.9	26.9	59.0	260.3
비중	6.8	6.6	7.4	6.2	4.7	4.1	3.4	3.3	4.1	4.1	9.1	40.0

※ 연간 모금액: 650.2억 원

- 모금액은 연말(12월, 40.0%)에 집중되고, 연초에 약간 높은 것(1~6월 평균 7% 정도)이 특징임
  - 이는 다음 해의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위해 기부하고, 연초에 약간 높은 것은 제도 도입 초기의 홍보와 일부 정치인과 유명인의 기부에 따른 것으로 추론 가능함
- 따라서, 연중 고른 기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답례품의 선정과 기부금을 통한 지역발전 사례의 확산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 필요
  -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특징(한계)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점진적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함
  - 특히, 연중 고른 기부금 모집은 지역 특산물 중심의 답례품이 고르게 배분되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임(연말 집중은 계절성이 강한 지역 특산물의 답례품 선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 30~50대 중심의 고향사랑기부

- 20대 이하 8.19%; 30~50대 81.32%; 60대 이상 10.49%
- 이는 소득공제가 고향사랑기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임을 방증함

-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전액 공제액을 상향(10만 원 → 20~30만 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고향사랑기부의 방향성 충족: 재정 취약지 중심의 기부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부
  - 수도권 → 비수도권 234억 원 vs 비수도권 → 수도권 13억 원
- 인구감소 지역에서 비인구감소 지역으로 기부
  - 비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300억 원 vs 인구감소지역 → 비인구감소지역 26억 원
- 재정자립도 높은 지역에서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으로 기부
  - 상위 20% 재정자립도 → 하위 20% 재정자립도 지역 70억 원 vs 하위 20% 재정자립도 → 상위 20% 재정자립도 지역 2억 원

□ **최근 제도개선 사항: 민간 플랫폼 도입(행안부, '24년 8월 1일 발표)**

○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은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

- 이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방식으로,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웹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방식임

※ 관련법률: 「전자정부법」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 민간서비스 활용을 위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 민간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연계를 통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 가능

- 또한, 민간 플랫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 도입 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 누리집 이용 가능함

○ (민간플랫폼 허용 범위 확대 필요) 2025년 동안 고향사랑e음과 연계한 민간플랫폼 도입의 효과를 점검하고, 민간플랫폼의 역할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제도개선 방향 1: 법인의 기부 허용**

○ 일본 경우, 법인의 고향납세 허용 이후, 납세액의 유의미한 증가는 사사점 큼

-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기업)의 고향사랑기부 허용은 지방정부와 기업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긍정 검토 필요
  - 지역발전 사업의 추진(민관 공동협력 또는 민간투자 활성화)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 가능
  - 기업과 인력의 지역 정착·정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 제도개선 방향 2: 지정기부 확대 및 활성화

- 법인의 기부 허용은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클라우드 펀딩 및 지정기부)과 연계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일본 사례도 참조)
- 지정기부 허용과 연계하여 장기 기부 약정(예, 향후 10년간 매년 5백만 원 기부 약정)제 도입

### 〈참고〉

6월 5일 기준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은 8개 지자체의 11개 사업에 그쳤다. 지정기부를 도입한 초기이기도 하지만 까다로운 모금 절차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가 4월 각 지자체로 내려보낸 ‘고향기부제 지정기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모금을 개시하거나 모금 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상적 경비, 기존 지자체 사업과 중복, 보조사업 매칭 자원 등에는 지정기부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재난 복구의 경우 예외적 활용만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처음이다보니 지자체가 고민도 많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데 시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참여 지자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양석훈 기자, 농민신문, 2024.6.6.]

## □ 제도개선 방향 3: 기본 방향성 충족 통한 고향사랑기부 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

-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취약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운영 필요
- (중앙정부와 국회)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법령 개정 필요
-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황에 적합한 사업을 기획하고, 경제적 부와 재정력이 강한 지역의 개인과 법인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성과 창출 노력 필요

토론문

##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오상철

경상북도 행정지원과장

###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관련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에 적극 동감

####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지방 → 수도권 인구 유출 → 경제활동 인구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

#### ☞ 지방소멸 위기 및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 대응

※ 경북도 22개 시군 중 19개 시군 초고령 사회, 합계출산율 0.86(목표 1 저출생극복본부 출범)

#### - (건의사항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법령 개정 및 개선 추진 현황

- 향우회, 동창회 방문 모금 완화('24.8.21.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
- 개인별 기부액 500만 원 → 2,000만 원 상향('25. 1월 시행 예정)
- 지정기부제(기부자 본인의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 시행('24.6.4.~)

#### ※ 지정기부제

-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
-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회 심의 후 기금모금 가능
  - 일반기부금은 모금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회 심의

(주요사업 예시)

- \*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충남 서천군)
-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 취약계층(독거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

- 고향사랑기부금(카카오톡, 네이버)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추진 중

- 소결론

개선추진 사항(관련 법령, 운영제도 등의 변경)을 통해 선순환체계 구축 기대

○ 도(道)와 산하 22개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문제점 취합

-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금·접수 가능
  - ☞ (차미숙 연구원분의 주장 뿐만 아니라) 시행초기 우리 도에서도 지역주민, 법인, 단체, 해외동포 등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고향사랑 e음을 통한 기(既) 기부자에 대한 감사 및 답례품 관련 안내 문자 발송 기능 추가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답례품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부자에 대해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업무담당자가 답례품 직권 신청 가능토록 개선
- 광역도의 경우, 지정기부사업 발굴 및 모금 주체 한계  
(이 자리를 빌려 광역자치단체 모금 주체 제외 의견 피력)

※ 개인의견

-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주체이나 홍보 및 답례품 선정 등에서 중복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홍보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기초자치단체) 모금 주체로서 모금활동 및 답례품 개발, 기금사업에 집중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에 집중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와 발전방향(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발표내용 중, 수도권 지역 기부의 경우 세액공제를 축소 또는 현행 유지, 인구감소 및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세액공제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기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함

토론문

##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

2007년부터 논의되었던 고향세가 2021년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시행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제안의 내용을 담은 오늘 두 분의 발제문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하며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에서 법률검토 및 입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해 발제문에서 언급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의견과 소상공인과 연계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 1)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내용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인구감소 및 인구 유출로 야기되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방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에 도움을 주며,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서 중점 개선과제로 기부금액의 확대를 언급하였는데 올해 2월 제8조제3항 중 “5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어 연간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의 내용도 개정이 되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시행일: 2025. 1. 1.] 제8조제3항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시행일: 2025. 1. 1.] 제4조제2항제3호

그리고 제8조의2 지정 모금 및 기부 조항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구상해 제시하면 기부자가 이 가운데 마음이 가는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지정기부제가 도입되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0]

## 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의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에서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와 제도 개선 제안을 검토해 본 결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기부주체의 폭을 확대한다면 본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인의 기부가 불가능하지만 일본은 법인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 주체의 차이가 있다. 법인의 제한은 당초 입법작업 시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현재 기부금액이 2천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와 더불어 주체 확대가 가능해진다면 고향사랑 기부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한도 또한 상향된다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률의 목적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법 제11조의 고향사랑기금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기금의 재원과 사용 범위에 관해서만 언급되어 있다. 기금관리조항에 안정적이고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하에서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기금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민간 플랫폼 활성화로 지정기부 활성화를 제고하였다. 정부도 ‘고향사랑 e음’의 민간 모금플랫폼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3) 소상공인과 연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용방안

기부자의 여러 기부 동기 중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답례품 관련하여 기부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며 여기에는 답례품 개발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지역의 우수 농수 특산물·공예품 중심으로 답례품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같은 우수한 소상공인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성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연계하여 그들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개발하고 택배 외에 구독 서비스나 가게 방문 쿠폰, 체험 쿠폰 등으로 답례품을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 등의 답례품뿐만 아니라 이색체험 및 투어권, 백년가게 정액권 등의 차별화된 답례품을 개발한다면 자연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 조례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정위원으로 백년소상공인과 같은 지역에서 인지도와 기여도가 있으며 명망있는 업체를 포함하여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백년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올해 7.17일부터 시행되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토론문

##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

### □ 두 발제의 목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미 도입된 제도이므로 제도 자체보다는 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제도 활성화 방안 제시
- 일본의 활성화 성공 방안
  - 기부자에 대한 혜택 확대: 세액공제 확대, 답례품 다양화 등
  - 기부의 편의성 확대: 일본의 원스톱 특례제도
  - 기부자의 범위 확대: 기업 기부 허용
- 균형발전 효과 평가 및 제안(전영준박사님)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 인구증가 지역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자원 이전
  - 인구 일인당 형평화 효과는 일부 역전 가능
  - 재정열악 지역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의한 혜택 차별화로 재정형평화 확대 가능
-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차미숙박사님)
  - 기부자의 생활인구화 및 관계인구화 전략
  - 답례품 개발 및 지역산업 진흥으로 일자리 및 경제 활력 제고
  - 새로운 고향 만들기와 지속적 기부 연계

### □ 고향사랑기부는 지방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는가?

- 10만 명의 기부자가 10만 원씩 기부해서 총기부액이 10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 기부자 거주 자치단체 지방세 10억 원 감소
- 중앙정부 소득세 90억 원 감소
  - 지방교부세 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감소: 총 40.03% 감소
  - 지방재원 약 36억 원 감소
- 100억 원 기부에 대해 답례품 30% 지급: 30억 원
- 행정비용 상한 15%(일본 20%): 15억 원
  -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지출하여 법률 위반의 위험 상존
- 실제(교육청 포함) 지방 가용재원 =  $100 - 10 - 36 - 30 - 15 = 9$ 억 원 증가
  - 일반행정 자치단체 재원 =  $100 - 10 - 17.3 - 30 - 15 = 27.7$ 억 원 증가(특별광역시 지방 소득세 감소에 따른 교육 전출금 감소 포함하면 이보다 조금 더 증가할 것임)
  - 교육 자치단체 재원 = 18.7억 원 감소(특별광역시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교육 전입금 감소 포함하면 이보다 더 감소할 것임)
- 중앙정부 가용재원 약 54억 원 감소
- 일반정부(교육재정 포함) 재원 45억 원 감소(답례품과 행정비용)

## □ 고향사랑기부는 재정형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 전영준박사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
- 비교 대상을 동일 재원에 의한 형평화 정책으로 설정하면 결과 바뀜
  - 보통교부세 혹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로 재정형평화할 때와 비교
  - 고향기부제에 의한 형평화는 보편적이지 않고 일부 사례의 확률적인 것임

##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 30억 원 어치의 답례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사과 100개 먹던 기부자가 답례품으로 110개 먹는다면 사과 과수원업자 이득
  - 사과 소비량을 100개로 유지한다면, 동네 마트 사과 구매량 90개로 감소
    - 사과 과수원업자 총판매량 동일: 경제활성화 효과 없음
    - 사과 생산지역이 변화한다면 오히려 생산지역 왜곡에 의한 효율성 손실 발생

- 성공 사례는 확실히 존재
  -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고 negative sum game!
- 경제논리에 입각한 사회전체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 기부자: 100억 원 기부로 30억 원 이득
  - 일반정부는 45억 원 감소하나 답례품 30억 원 및 행정비용 15억 원 지출
  - 한계소비성향=1이면 총지출은 제도 도입 전후 동일하지만 시장의 왜곡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활성화 효과 없거나 오히려 악화
  - 특정 지역의 개선은 다른 지역의 악화로 상쇄되며 악화의 크기가 더 클 것임
- 지역 간 경쟁에 의한 자발적 노력 유인 효과는 존재

#### □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 자기희생에 입각한 진정한 의미의 기부가 확대된다면 성공 가능
  - 자신의 저축 혹은 소비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타인의 소비 능력을 확대
  - 자기희생에 의한 자발적 기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기부자도 만족하고, 기부 받는 자치단체도 만족
-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자기희생이 아니라 자기이득을 위한 기부임
  - 10만 원을 기부하여 3만 원 이득을 얻으므로 전통적 의미의 기부가 아님
- 따라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기부는 확실히 증가하지만 사회전체의 손실도 확대될 것임

#### □ 일본 고향납세가 정말 좋은 제도라면 왜 다른 국가는 이를 도입하지 않는가?

- 일본 고향납세에 대한 우려 문헌
  - Hideaki Hirata, "Growing Distortions in the Hometown Tax Scheme," Series I, II, III. The Tokyo Foundation for Policy Research. 2023. 2024.
  - Naoko Kutty and Naoko Tochibayashi, "The pros and cons of Furusato Nozei, Japan's hometown tax programme," World Economic Forum. 2023.









